

# 리아호나

## 연차 대회 말씀

가바렛 장로, 고도이 장로,  
마르티네스 장로, 그리고 윙 장로가  
모국어로 말씀을 전했다



### 나병환자들을 돌보시는 그리스도, 제이 커크 리차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마태복음 11:5)

## 토요일 오전 모임

- 4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 우리 희망의 근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9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린 지 로빈스 장로
- 12 성찬 - 영혼을 위한 재생  
첼럴 에이 에스플린
- 14 단합하여 구조하십시오  
치 흥 (샘) 웅 장로
- 16 영원히 자유롭게, 스스로 행하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20 빛과 진리의 간증을 얻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4 교회 직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25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앨린 에이치 옥스 장로
- 28 조셉 스미스  
닐 엘 앤더슨 장로
- 32 자녀의 복음 교육에서 주된 교사:  
부모  
태드 알 콜리스터
- 34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외르크 클레빈가트 장로
- 37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 40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43 지속적인 평안을 찾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십시오  
엘 톰 페리 장로

## 신권 모임

- 46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쿠엔틴 엘 쿡 장로
- 50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아노라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장로
- 53 금식의 법: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개인적인 책임  
딘 엠 데이비스 감독
- 56 “주여, 내니이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59 예비 신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7 무사히 본향으로 인도되기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일요일 오전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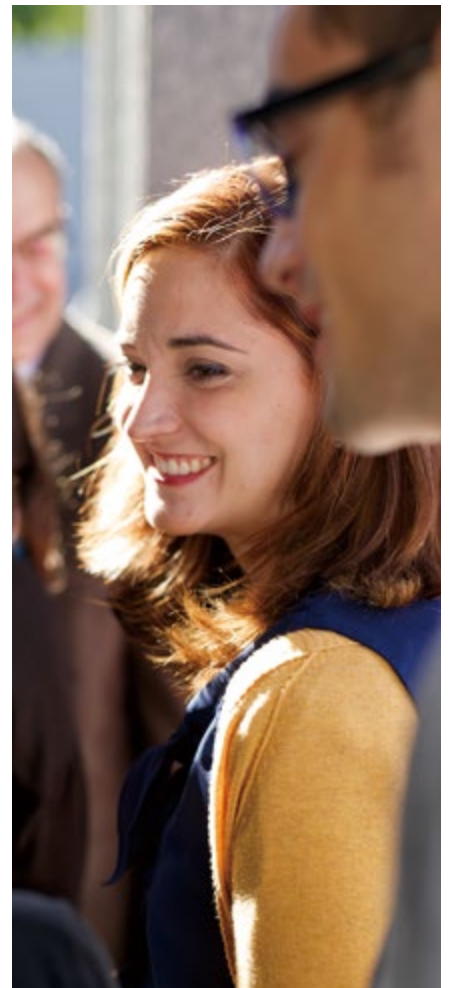
- 70 계속되는 계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4 선지자를 지지하며  
러셀 엠 넬슨 장로
- 77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캐럴 에프 맥콩키
- 80 영생—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83 성찬과 속죄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
- 86 네 발이 행할 길을 헤아리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89 배 안에 머물고 배를 꽉 붙들십시오!  
엠 러셀 뱌라드 장로
- 92 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96 주님께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 99 책  
앨런 에프 패커 장로
- 102 우리의 개인적인 성역  
우고 이 마르티네스 장로
- 104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마십시오  
래리 에스 캐처 장로
- 107 와서 보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11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여성 총회

- 111 일찍이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린다 케이 버튼
- 114 하나님의 성약의 딸들  
진 에이 스티븐스
- 117 여러분의 빛을 나누십시오  
닐 에프 매리엇
- 120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합시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 124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25 교회 소식



# 제184차 반연차 대회 요약

##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보니 엘 오스카슨.  
 폐회 기도: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앤드류 언즈워스.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 찬송가, 8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디포드, 머피 편곡, 미출판. “하늘 아래 사는 온 백성이”, 찬송가, 52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장로.  
 폐회 기도: 에드워드 듀브 장로.  
 음악: 유타 투엘레, 그랜즈빌, 스탠스버리 파크 스테이크 연합 합창단. 지휘: 헐리 베번,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 “Arise, O God, and Shine”, 영어 찬송가, 265장, 윌버그 편곡, 옥스포드 출판.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허프 편곡, 미출판.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낮도 다간 이 저녁에”, 찬송가, 72장, 게이츠 편곡, 잭맨 출판.

##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브루스 에이 칼슨 장로.  
 폐회 기도: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  
 음악: 프로보 선교사 후원원 신권 합창단. 지휘: 라이언 에جت, 엘모 케크,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텐슨. “Rise Up, O Men of God”, 영어 찬송가, 324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선교사 메들리: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 어린이 노래책, 91쪽; “용감한 중”, 어린이 노래책, 85쪽;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어린이 노래책, 92쪽; “주 섬기라”, 어린이 노래책, 94쪽; 에반스와 에جت 편곡, 미출판.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너 이스라엘 장로는”, 찬송가, 200장, 스피엘 편곡, 미출판.

## 2014년 10월 5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돈 알 클라크 장로.  
 폐회 기도: 로즈메리 워슨.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즈워스, 클레이 크리스텐슨. “Sing Praise to Him”, 영어 찬송가, 70장. “소리 높여 찬양해”, 찬송가, 47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18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2장. “Softly and Tenderly”, 톰슨, 윌버그 편곡, 미출판.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4년 10월 5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데이비드 에프 에번스 장로.  
 폐회 기도: 존 에스 태너 형제.  
 음악: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지휘,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켓츠. “Lo, the Mighty God Appearing!”, 영어 찬송가, 55장, 머피 편곡, 미출판. “내가 받은 복음 모두 세어라”, 찬송가, 142장.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머피 편곡, 미출판.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찬송가, 2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여성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로즈메리 엠 워슨.  
 개회 기도: 도라 움카벨라.  
 폐회 기도: 에이미 캐롤라인 화이트.  
 유타 메그니, 헌터, 테일러스빌의 초등학교, 청년, 상호 부조회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지휘: 에린 파이크 톨,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 “이 즐겁고 기쁜 날에”, 찬송가, 38장, 톨과 마켓츠 편곡, 미출판.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한국 서울 어린이 합창단, 자브리스키 편곡, 미출판, 메들리: “구주 나 사랑하시네”, 벨과 크리머;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톨과 마켓츠 편곡, 미출판; “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2쪽, 자브리스키 편곡, 미출판;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영어 찬송가, 41장, 와드 편곡, 미출판.

##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인터넷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대회 후 6주 내에 배부 센터에서 연차 대회 음성 녹음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연차 대회 자료는 disability.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회 사진

연차 대회 장면 촬영: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윌든 시 앤더슨, 코디 벨, 자네 빙엄, 랜디 콜리어, 웨스턴 콜튼, 크레이그 다이먼드, 너새니얼 레이 에드워즈, 애슐리 라슨, 어거스트 밀러, 브라이언 니콜슨, 레슬리 닐슨,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바이런 워너. 미국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찰스 해택, 미국 위스콘신 버로나에서 제니퍼 앤 리, 미국 조지아 피치트리 코너스에서 데이비드 윈터스, 파라과이 산 로렌소에서 레베카 리오스 베니테스,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에서 델 벤슨, 멕시코 쿠아우테목에서 날차 베아트리스 산틸란 카스티오, 브라질 소브라우에서 웨슬리 디아스, 필리핀 라스피냐스에서 다니엘 산체스 라바호 2세, 아일랜드 워터포드에서 이머드 마틴, 브라질 카노아스에서 미카엘 모리스 2세, 아르헨티나 바릴로체에서 호수에 페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서맨사 스캐일즈.



2014년 11월호, 제51권, 제11호

리아호나 1099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도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빈 비 아놀드, 크리스토퍼 골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바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타티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담당자: 리사 캐롤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에타, 데이비드 뉘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다 플리틀, 로리 풀러, 케렛 에이치 가프, 라린 퓨터 건트, 민디 앤 레빗,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채이 퍼키, 켄 피보로우, 리처드 엠  
롭니,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윌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넨슨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엠 벨틀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힐글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지식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거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제작 팀: 케이티 당컨,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낄슨, 게이일 데이브 러퍼티

사전 인쇄: 제프 앤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우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약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76호, 제51권, 제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4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

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iahona.lds.org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제출하거나 이메일

주소 iahona@ldschurch.org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아호나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될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플라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ovember 2014 Vol. 38

No. 11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연사 색인

닐 에프 매리엇, 117  
닐 엘 앤더슨, 28  
앨런 에이치 옥스, 25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07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16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20,  
56, 120  
딘 엠 데이비스, 53  
래리 에스 캐치, 104  
러셀 엠 넬슨, 74  
로버트 디 헤일즈, 80  
리처드 지 스코트, 92  
린 지 로빈슨, 9  
린다 케이 버튼, 111  
보이드 케이 패커, 6  
앨런 에프 패커, 99  
에두아르도 가바렛, 37  
엘 톰 페리, 43  
엠 러셀 벨라드, 89  
외르크 클레빈가트, 34  
우고 이 마르티네스, 102  
제임스 제이 해물러, 83  
제프리 알 홀런드, 40  
진 에이 스티븐스, 114  
첼렐 에이 에스플린, 12  
치 흥 (샘) 왕, 14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96  
캐럴 에프 맥콩키, 77  
쿠엔틴 엘 쿡, 46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50  
레드 알 콜리스터, 32  
토마스 에스 몬슨, 4, 67, 86,  
110  
헨리 비 아이어링, 24, 59, 70

### 주제 색인

가르침, 32  
가정의 밤, 92  
가족 역사, 99  
가족, 32, 43, 92, 99, 117  
간중, 6, 20, 28, 50, 80, 104  
개중, 37, 56, 104  
결혼, 46, 114  
검슨, 56  
경전 공부, 20, 50, 89, 92  
계명, 120  
계시, 70, 77, 111  
공의, 16  
관람, 56, 96  
교만, 56  
교회 조직, 74  
구원의 계획, 16, 86, 96  
금식, 40, 53  
기도, 20, 32, 40, 92  
논쟁, 25  
단합, 14, 80  
포래의 압력, 9  
모범, 32, 67, 86, 104  
목표, 46  
배도, 9, 89  
변화, 34, 56  
복지, 40, 53  
봉사, 53, 59, 102, 110, 120  
빛, 20, 117  
사랑, 25, 80, 102, 120  
선교 사업, 4, 37, 107  
선지자, 9, 70, 74, 77, 89  
선택의지, 16, 46, 86, 92, 96,  
104  
성신, 70, 80, 104  
성약, 114  
성전 사업, 92, 99  
성전, 4, 111, 114, 117  
성찬, 12, 83  
소망, 6  
속죄, 6, 12, 16, 34, 83, 92,  
107, 117

순중, 34, 37, 86, 111  
신권, 67  
신앙, 14, 50, 77, 92  
아론 신권, 53, 59  
아버지 본분, 43  
어머니 본분, 43  
역경, 89, 110  
연차 대회, 4, 110  
영성, 34  
예수 그리스도, 6, 9, 12, 14,  
16, 20, 25, 37, 43, 46, 67,  
77, 80, 83, 86, 92, 102,  
107, 117  
용기, 9  
용서, 6, 12, 34  
유혹, 67, 86  
육체적인 건강, 34  
의로움, 46, 67  
의심, 104  
자립, 53  
자비, 6, 16  
제자 됨, 40, 46, 56, 86, 102,  
110  
조셉 스미스, 6, 9, 28, 50, 53,  
70, 80, 96  
존경, 25  
준비, 59, 111  
지도력, 74  
지혜, 46  
진리, 20, 25, 107  
책무, 16  
축복사의 축복, 96  
친절, 25, 110  
침례, 114  
평의회, 14  
하나님 아버지, 20, 34, 80,  
120  
함당성, 67  
활동 촉진, 14  
회개, 16, 34  
회복, 28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신앙이 커지기를 간구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세계적인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우리가 총관리 역원과 교회의 본부 역원으로 지지한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메시지에 관해 하늘의 도움을 구했고 그에 필요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라디오로 연차 대회를 방송한 지 90주년이 되는 대회입니다. 1924년 10월 연차 대회 때, 모든 모임이 교회 소유의 방송국인 KSL을 통해 처음으로 라디오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또한 텔레비전으로 연차 대회를 방송한 지 65주년이 되는 대회입니다. 1949년 10월에 열린 연차 대회 모임이 처음으로 KSL 텔레비전을 통해 솔트레이크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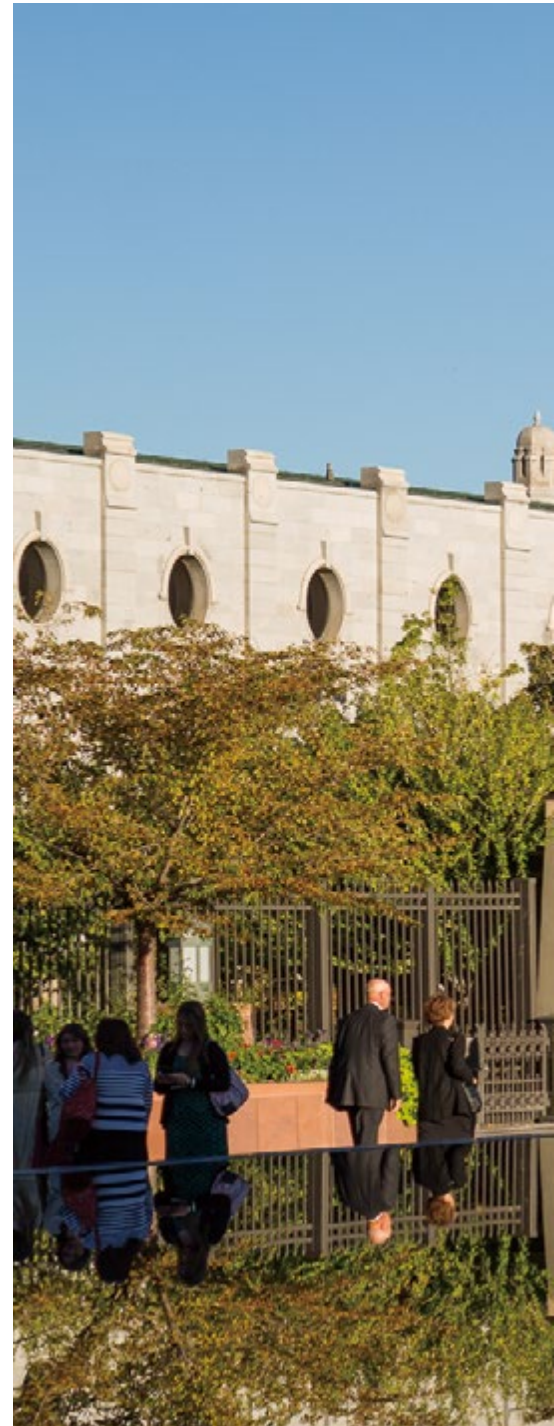
우리는 수백만에 이르는 교회 회원이 현대 매체를 통해 연차 대회를 시청하거나 들을 수 있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연차 대회는 휴대 기기를

비롯해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인터넷을 통해 방송됩니다.

지난번 연차 대회 이후 6개월 동안 새로운 성전 한 곳이 헌납되었고 다른 곳이 재헌납되었습니다. 5월에는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성전을 헌납하셨는데, 헌납식 전날에는 청소년들이 축하 문화 행사에 참여해 훌륭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인 5월 4일 일요일에는 세 번의 모임을 통해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1972년에 헌납하신 유타 옥든 성전을 제가 재헌납했습니다. 장엄한 축하 문화 행사가 재헌납식 전날에 열렸는데, 수많은 청소년이 두 팀으로 나뉘어 두 가지 공연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총 16,0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재헌납식에는 여러 총관리 역원들과 여성 보조 조직 지도자들, 성전 회장 및 회장단 보좌와 그 부인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계속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애리조나



피닉스 성전이 헌납되며, 내년 2015년에는 적어도 다섯 개의 성전이 헌납 또는 재헌납될 예정입니다. 완공 속도에 따라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발표된 성전들이 모두 건축되어 헌납되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170개가 됩니다. 이전에 발표한 성전 완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부지를 찾게 되면, 성전 건축 계획이 추가로 발표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회원수는 1,500만 명을 넘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노력은 방해받지 않고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재 88,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복음 메시지를 나누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이 신권의 의무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합당하고 가능한 젊은 청년들이 모두 봉사하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또한 봉사 중인 젊은 자매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 선교사들은 젊은 형제들처럼 의무적으로 봉사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 대회 모임에서 전해질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권고합니다. 말씀 지명을 받은 분들은 이 일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신앙이 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우리 희망의 근원

구속의 희망에 대한 간증은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몇** 년 전에 패커 자매와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는 저의 9대조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컬리지의 학장인 포펠웰 박사는 친절하게도 대학 문서고 담당자에게 기록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1583년도 기록에서 우리는 저의 조상인 존 패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이듬해에 우리는 크라이스트 컬리지 도서관에 비치할 아름다운 표준 경전 합본을 전달하러 옥스포드에 다시 갔습니다. 포펠웰 박사에게는 좀 불편한 일인 듯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의 교목을 불러서 그 책을 받게 했습니다.

교목에게 경전을 건네기 전에 저는 '주제별 안내서(Tropical Guide)'를 열어 한 가지 주제를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대한 참조 성구들이 18쪽에 걸쳐 상당히 작은 활자로 뽁뽁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주라는 주제에 대한 참조 성구들을 세계 역사상 가장 포괄적으로 모아 둔 목록 중의 하나이며,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의 간증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참조 성구들을 어떻게 따라가 보시든 간에, 즉 좌우로든 위아래로든, 책과 책 사이나

주제와 주제 사이를 넘나들며 보시든 간에, 이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신성을 일관되고 조화롭게 증명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분의 가르침,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그리고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함께 구주의 가르침 중 일부를 나누고 나자 분위기가 바뀌었고, 교목은 우리와 함께 교정의 시설을 둘러보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중에는 최근에 발굴한 로마시대의 벽화도 있었습니다.

주제별 안내서에 있는 참조 성구 중 하나는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6)

구주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그리고 몰몬경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아버지요 아들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 그들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리라."(이더서 3:14)

표준 경전 안에는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역할을 선언하는 다른 성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에서 보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일어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속을 받습니다.

몰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이니, .....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필경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참으로 모두가 완악하게 되었고, 참으로 모두가 타락하여 잃은 바 되었은즉, ..... 속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 될 것임이라."(앨마서 34:9~10)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실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만,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그분의 율법에 속하기로, 그리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로마서 3:23~24)

구주께서는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셋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 또 우리 각자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음을 알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은 크나큰 겸손과 자신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영원한 이해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그분의 자비로운 팔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열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말씀과 그분이 선택하신 종들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평안과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치르신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책감을 지우고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죄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구속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단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을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태만하여 죄를 지은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에 대한 약속까지 아우릅니다. 주님의 자비는 강력한 치유제이며, 죄 없이 상처받은 이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자매님이 자신의 삶에서 겪은 큰 고통에 대해 쓴 편지를 받았습시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타인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울분으로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는 마음속으로 '누구든 이 끔찍한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해.'라고 외쳤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극도의 슬픔과 의문이 드리운 그 순간,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응답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그 값을 치렀단다."

구주의 희생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에 대한 후회를 짊어진 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에 따르는 죄책감은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 성역, 그리고 우리 구주로서의 그분의 사명을 더 깊이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구주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북 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전파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대회는 94개 언어로 102개 국가에 위성 중계되고 있으며 교회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3,000개가 넘는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임 선교사들은 88,000명이 넘고, 교회 회원 수는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교리와 성약 65:2)는 성구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이 얼마나 커지든, 몇 백만 명의 회원들이 더 생기든,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대륙과 나라에 들어가든, 또는 얼마나 많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회원 개개인의 영적인 역량을 기준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성스러운 제자가 품는 확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속의 희망에 대한 간증은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젊은이와 노인, 기혼자와 미혼자들의 간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인종과 모든 국적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개종한 사람과 개척자들의 후손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우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통찰과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은 각자가 이 교회 조직의 필수 요소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고린도전서 12:12~14).

회원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대적의 세력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구주의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인데.’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분명 조셉 스미스도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은 “모든 교회 중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까?”(조셉 스미스 - 역사 1:10 참조)를 궁금해하는 열네 살 소년 때 시작되었습니다. 조셉의 신앙과 간증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며”(니파이후서 28:30; 또한 교리와 성약 128:21 참조) 자라났듯이 우리의 신앙과 간증도 그래야 합니다. 조셉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와 첫번째 시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십이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며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앙개조 제3조)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감리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한 자신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갈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진리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주님의 권능은 끝이 없습니다. 구주에 대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린 지 로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신임 칠십인으로서의 저의 첫 임무 수행에 동행하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께서 갑작스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전후 설명 없는 뜻밖의 질문에 당황한 저에게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힘 있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칠십인은 회원들을 대신해서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회원들에게 전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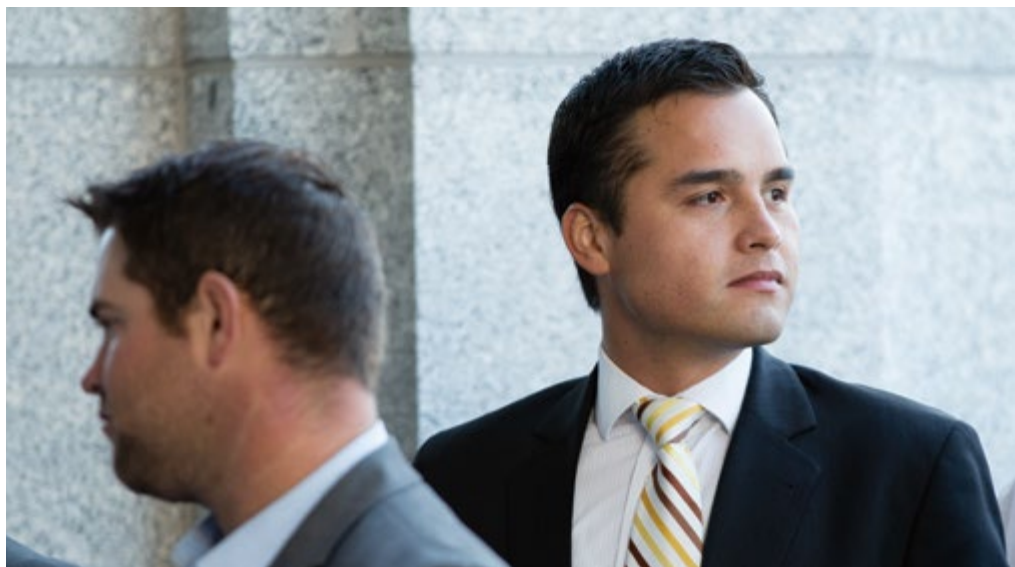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려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마태복음 22:37~39 참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사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이사야 51:7; 또한 니파이후서 8:7 참조)고 경고하셨습니다. 리하이의 꿈에서는 크고 넓은 건물에서 조롱하는 손가락질을 통해 그런 두려움이 촉발되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더니” 나무를 떠났습니다.(니파이전서 8:25~28 참조)

이 같은 집단적인 압력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려 시도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공존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용납하려 할 때, 그것은 잠언에 나오는 “올무”가 됩니다.(잠언 29:25 참조) 올무에는 하나님께서 비난하신 것을 용인하거나 승인해 달라면서 우리의 동정 어린 마음에

호소하는 미끼가 교묘하게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 그것은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젊은 선교사들은 선교 임지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서 선교부 회장에게 동반자의 명백한 불순종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동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을 올바른 순서로 기억할 때,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마태복음 22:37~39 참조) 이것을 혼동한 선교사들은 자신이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마틴 해리스에게 116쪽의 원고를 빌려 주려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했던 22세의 젊은 조셉 스미스 역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잊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조셉은 마틴에게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셉은 널리 퍼지고 있는 거짓된 소문에 대해 자신을 지지해 줄 다른 증인들을 몹시도 갈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또한 그것이 아무리 타당해 보이나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날카롭게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며, 사람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 그 몇 번이나. 이는 보라,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음이니라.”(교리와 성약 3:6~7) 이 가슴 아픈 경험으로 조셉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불순종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이중성, 혹은 위선이거나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마태복음 6:24; 제3니파이 13:24)

위험을 마주하려면 확실히 용기가 필요하지만, 참된 용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자 앞에 던져졌지만, 그가 정말로 용기를 내야 했던 일은 다니오 왕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다니엘 6장 참조) 그런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의 은사입니다. 또한 에스더도 기도를 통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남편인 아하수어로 왕 앞에 나설 똑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에스더 4:8~16 참조)

용기는 단지 기본 미덕의 하나가 아닙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발휘되는 모든 미덕의 형태이다. …… 빌라도는 자비를 보이는 것이 위험한 것이 되기 전까지는 자비로웠다.”<sup>1</sup>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달라는 요청에 근심했으나 “그 함께 앉은 사람들”(마태복음 14:9)을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노아 왕은 아빈아다이를 놓아 주려 했으나 사악한 제사들이 압력을 가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모사이야서 17:11~12 참조)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에]”(사무엘상 15:24)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시내 산 기슭에서 반발하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아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는 잊어 버린 채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출애굽기 32장 참조) 신약전서에 나오는 많은 고위 관리 중에도 “[주님을] 믿는 자가 많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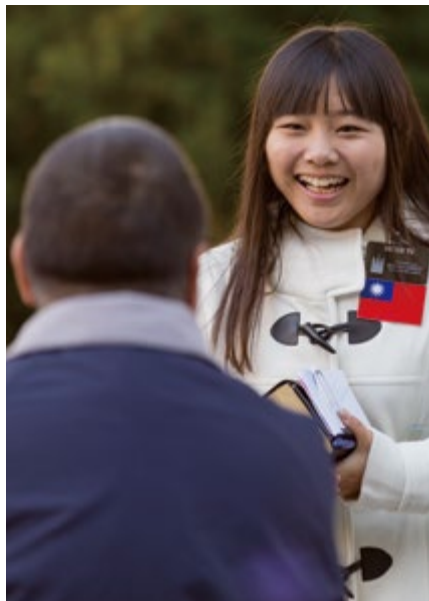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요한복음 12:42~43) 경전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자, 영감을 주는 이 예들을 잘 들어 보십시오.

- 물론: “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말하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이라.”(모로나이서 8:16; 강조제 추가)
- 니파이: “그러므로 세상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나는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을 쓰노라.”(니파이전서 6:5)
- 모로나이 장군: “보라, 나는 모로나이요, 그대들의 총대장이라. 나는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끌어내리고자 하노라. 나는 세상의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하나님의 영광과 내 나라의 자유와 복리를 구하노라.”(앨마서 60:36)

모로나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기억하는 일에서 위대한 용기를 보인 사람이기에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모로나이서 48:17)

어느 시대에나 선지자들은 항상



조롱의 손가락질로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죄인은 진리를 심하다고 여기나니, 이는 진리가 그들의 바로 그 중심까지 베기 때문입니다.”(니파이전서 16:2)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맞은 새가 파닥거립니다!”<sup>2</sup>라고 하셨습니다. 코리호어가 그랬듯이 조롱하는 행위는 사실은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최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앨마서 30: 52)고 자백했습니다. 코리호어는 자신의 속임수를 너무도 확신하여 자신이 지은 거짓말을 믿게 되었습니다.(앨마서 30:53 참조)

조롱하는 사람들은 종종 선지자들을 21세기에 맞지 않는, 편견이 극심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을 낮추려고 교회를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에 자기 도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sup>3</sup> 사회의 부적합한 행위의 수준에 맞춰 주님의 표준을 낮추는 것은 배도입니다. 구주께서 방망하시고 200년이 지난 뒤에 니파이 백성 중에 있는 많은 교회가, 홀런드 장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꾸[기]”<sup>4</sup> 시작했습니다.

제4니파이의 구절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우리 시대와의 유사점을 찾아보십시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십 년이 지나갔을 때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나니, 참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의 복음의 대부분을 부인하였나니, 그 결과 그들이 온갖 간악함을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금지된 자에게 성스러운 것을 빼돌렸더라.”(제4니파이 1:27)

이 후기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원들은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지역적 또는 민족적 “조상의 전통[들]”(교리와 성약 93:39)을 수용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같은 울무에 빠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회원들은 감독에게 성전 추천서, 입학



추천서, 선교사 신청서의 표준을 낮추어 달라며 애원하거나 요구하면서 자기 기만과 자기 부정을 합니다. 그와 같은 압력을 받으며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을 지키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구주처럼(요한복음 2:15~16 참조) 오늘날 감독님들도 성전 표준을 담대하게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 만일 내 백성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아니하면”(교리와 성약 110:7~8)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본보기인 구주께서는 항상 자신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십니다. 구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움을 베푸셨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요한복음 5:4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를 바라셨으나 환심을 사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등 사랑의 은사를 베풀 때에도 종종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마태복음 8:4; 마가복음 7:36; 누가복음 5:14; 8:56)고 요청하셨습니다. 멀리하려 해도 그분을 따라다녔던 명성을 어느 정도는 피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마태복음 4:24 참조)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행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마태복음 6:5 참조)

구주는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 유일하게 완전하시고, 가장 두려움이 없었던 분입니다. 삶에서 많은 적을 마주하셨으나 조롱하는 손가락질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요한복음 8:29; 강조체 추가)고 하셨으며, 또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였다”(요한복음 5:30)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니파이 11장부터 28장을 살펴보면, 구주는 자신이 아버지를 대변함을 니파이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시고자 아버지라는 단어를 최소 163번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사이에서는 최소한 50번을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완전한 제자였습니다. 참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했기에, 구주를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즉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요한복음 14:9 참조)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요한복음 5:36 참조)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주님을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였습니다.(요한복음 17:21~22 참조)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감에 찬 모범을 통해 자만심이나 타인이 놓은 아침의 빛에 걸리지 않도록 강화되고, 위협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아침하지 않는 용기를 얻으며, 가능한 한 의명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지”(교리와 성약 121:35) 않기를 기원합니다. 비할 데 없는 주님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마태복음 22:38)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데 찬성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누구의 제자이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C. S. Lewis, *The Screwtape Letters*, rev. ed. (1982), 137-38.
2. Harold B. Lee, Boyd K. Packer, *Mine Errand from the Lord: Selections from the Sermons and Writings of Boyd K. Packer* (2008), 356.
3. 닐 에이 맥스웰, “회개”, *리아호나*, 1992년 11월호, 37쪽.
4. 제프리 알 홀런드,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14년 6월호, 35쪽.



체럴 에이 에스플린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 성찬—영혼을 위한 재생

영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재생시킵니다. 성찬으로 우리가 약속받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 명의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자매님이 우리 나이라면, 무엇을 알았으면 하시나요?” 지금 답을 해야 한다면,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에 성찬의 중요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성찬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장로님은 ‘성찬식에 내재된 권유 중 하나는 성찬식을 진정한 영적인 경험의 시간, 즉 성스러운 교감을 하고 영혼을 재생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권유’<sup>1</sup>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주 성찬식을 “진정한 영적인 경험의 시간, 즉 성스러운 교감을

하고 영혼을 재생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성찬 기도를 듣고 우리의 성약을 다시 맺을 때, 성찬은 영적으로 강화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sup>2</sup> 이 약속에 대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로 두어야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sup>3</sup>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 기억하겠대!”<sup>4</sup>고 약속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모으시고 성찬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떼어 축복하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는 내 몸을 기억하는 것이니라.”<sup>5</sup>라고 하였고, 그다음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도들에게 마시라고 주시면서 “내 이름을 믿는 자를 위하여 흘린 …… 내 피를 기억하는 것이니라.”<sup>6</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인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후기에 다시 회복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취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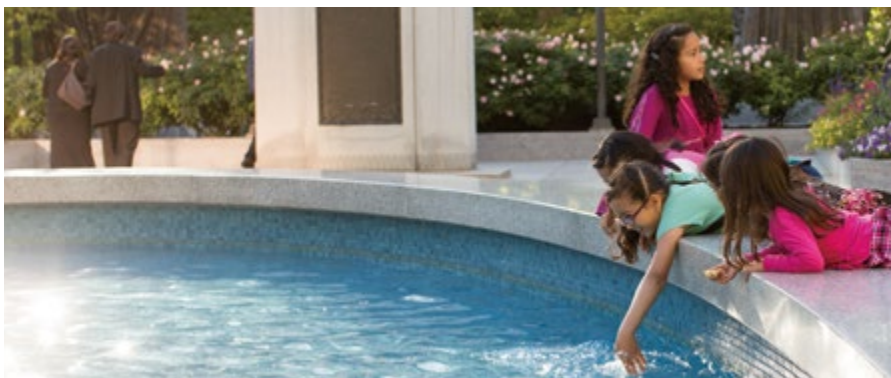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짧은 성찬 의식 동안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아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구주의 모범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선택, 행동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sup>8</sup>

성찬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sup>9</sup>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sup>10</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기회가 됩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복음의 힘이 우리 삶에 찾아와 더 큰 평안과 영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통한 그분의 구속과 특별한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성찬은 진실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최근에 한 청년 지도자는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을 취하고자 노력할 때 어떤 힘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지도자는 개인 발전 기록부의 요건을 완수하기 위해 성찬 찬송과 성찬 기도 문구에 집중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터였습니다.

매주 그녀는 성찬 의식 동안 스스로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전에 지지른 실수를 떠올리며 다음 주에는 더 잘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돌아보며 그녀는 자신이 “속죄에서 회개 부분을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는 그런 자아 성찰 후에 우울함과 비판적인 기분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속죄의 큰 부분인 그리스도의 특별한 권능을 경시하고 있다는 뚜렷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능력을 넘어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주께서 도와주셨음을 계속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 주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는 걸 인식하자 기쁨이 찾아왔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으로 명확히 보이지 않던 자녀의 필요 사항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던 날에도 친구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참지 못하던 일에서도 인내심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제 삶에 깃든 구주의 가능하게 하는 권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제가 거쳐 온 회개 과정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성찬이 어떻게 치유와 정화의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중에 다음 성찬식까지 일주일 동안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주님의 영을 손상시키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송스럽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 용서를 얻기 위한 방법은 ……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과오를 범한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받은 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적합한 상태에 이르러, 용서받을 수 있는 성찬 탁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찬 집행 중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영이 함께함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짐이 들려지는 느낌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취하기에 합당하고 진정으로 이를 바라는 영혼에게 평안과 행복이 찾아옵니다.”<sup>11</sup>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재생될 수 있는 이유는 빵과 물이 구주께서 희생하신 그분의 살과 피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떡”<sup>12</sup>이자 “생수”<sup>13</sup>가 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몸을 먹는 것이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리라 하시더라.

이제 우리가 다 먹고 마신 후에, 보라, 그들이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라.”<sup>14</sup>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재생시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찬으로 우리가 약속받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sup>15</sup>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찬을 취할 때면, 자주 마음속으로, 부활하신 구주께서 마치 사랑 가득한 품 안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준비가 된 것처럼 두 팔을 벌리시는 모습의 그림을 상상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그림을 생각하면 제 영혼은 거의 구주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듯이 고양됩니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sup>16</sup>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할 때 구주를 대표합니다. 신권 소유자들이 팔을 뻗어 신성한 상징물을 전달하는 것은 마치 구주께서 직접 자비의 팔을 뻗어 우리 각자가 그분의 속죄 희생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사랑의 선물, 곧 회개와 용서, 위안과 희망의 선물을 취하도록 권하시는 것과 같습니다.<sup>17</sup>

성찬의 중요성을 더욱더 숙고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더욱더 신성하고 의미있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96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 불

수도, 들을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든데요. 왜 교회에 가세요?”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찬식이니까. 나는 성찬을 취하기 위해서 간다.”

우리 모두가 성찬식이 “진정한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성스러운 교감을 하고 [우리] 영혼을 재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sup>18</sup> 준비하여 그곳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성찬을 통해 그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영을 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Jeffrey R. Holland, *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 (1997), 283.
2.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3.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가 되기 위하여”,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67쪽.
4. 교리와 성약 20:77, 79.
5.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6:22(경전 안내서 323쪽)
6.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6:24(경전 안내서 323쪽); 마태복음 26:26~28; 마가복음 14:22~24; 누가복음 22:15~20.
7. 제3니파이 18:7, 11; 교리와 성약 20:75 참조.
8. “나는 구주를 항상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어떻게 지키는가?” *와서 나를 따르라* 주일 학교 교과 과정; [lds.org/youth/learn/ss/ordinances--covenants/remember](https://lds.org/youth/learn/ss/ordinances--covenants/remember);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88~90쪽 참조.
9. 교리와 성약 20:77.
10. 요한복음 14:15.
11. Melvin J. Ballard, Melvin R. Ballard, *Melvin J. Ballard: Crusader for Righteousness* (1966), 132-33.
12. 요한복음 6:48.
13. 요한복음 4:10.
14. 제3니파이 20:8~9.
15. 교리와 성약 20:77.
16. 제3니파이 9:14.
17. 이 원리에 대한 앤 메드슨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18. Jeffrey R. Holland, *Christ and the New Covenant*, 283.



치 홍 (샘) 왕 장로  
칠십인

# 단합하여 구조하십시오

구주를 도우려면 우리는 서로 단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합니다. 직책이나 부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조하기 위해 손을 내밀[라]”<sup>1</sup>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신약전서의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 이야기는 회원과 선교사들이 와드 평의회를 통해 함께 단합하여 구조하러 나아가는 방법을 잘 보여 줍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리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화는 항상 고무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이야기에선 중풍에 걸린 남자가 나오는데,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감독님에게서 중풍에

걸린 남성의 집을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 및 아론 신권에서 각각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사람인 전임 선교사 중 한 명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와드 평의회에서 와드의 필요 사항에 대해 함께 협의한 후, 감독님은 “구조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네 명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그 남성을 돕도록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남성이 스스로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정으로 가서 그 형제를 직접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예수께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니다.]”(마가복음 2:3)







그렇지만 그곳은 너무나도 붐볐기에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구조”하려 노력하는 그들에게 방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중풍병자를 문 옆에 버려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다음으로 해야 할 일, 즉 어떻게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서 병 고침을 받게 할 것인가를 협의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영혼을 구하는 일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낸 계획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마가복음 2:4).

그들은 병자를 지붕 위로 올렸습니다. 건물 외부에 그들이 딛고 올라갈 계단이 없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가 다 지붕에 오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와드에 다니는 청남이 지붕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하기에 지붕

위로 오르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장로 정원회 회원인 그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와 키가 크고 힘센 전임 선교사가 아래에서 힘껏 밀어서 올려 주었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는 조심하라고 이르면서 격려의 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아 스스로 움직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만을 소원하며 기다리는 중풍병자를 상호부조회 자매가 끊임없이 위로하는 동안, 남성들은 지붕을 뜯었을 것입니다.

구조하는 일에서는 모두가 함께 일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인,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는 세심한 공동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네 사람은 단합되어 조화를 이루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떠한 불협화음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똑같은 속도로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밧줄을 풀다면 병자는 침상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인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주를 도우려면, 우리는 서로 단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합니다. 직책이나 부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해야 합니다.

중풍을 앓는 그 남자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마가복음 2:5). 예수께서는 자비를 보이시며 그를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나 혼자서는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자녀나 부모 중 한 사람, 혹은 배우자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각 단위 조직에 더 많은 수의 전임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으므로 감독님과 지부 회장님은 와드 및 지부 평의회를 더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감독님은 와드 평의회에 각 구성원에게 도움이 필요할 만한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은 함께 모여 도움을 줄 가장 좋은 방법을 세심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감독님은 그런 방안을 주의 깊게 듣고 임무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노력에서 전임 선교사는 와드에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그들은 젊고 열기왕성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명단을 가지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와드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찾을 멋진 기회임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헌신합니다. 그들은 이런 구조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강한 간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전 이야기에 숨어 있는 보화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강조체 추가)라고 나옵니다. 예전에 저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말에 주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함께 결합할 때, 다른 이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란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중풍병자 본인과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곧 일어날 기적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염원했던 사람들 모두일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부모, 자녀, 선교사, 정원회 회장, 상호부조회 회장, 감독, 그리고 멀리 있는 친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려 애쓰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의 하나님임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구하고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도와 그분의 사명인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또한 구조될 것입니다.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를 들어, 토마스 에스 몬슨, “구조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5쪽 참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영원히 자유롭게, 스스로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남성과 여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월** 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헨리 5세*는 프랑스군과의 전투 전날 밤 아쟁쿠르에 있던 영국군 진영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변장을 한 헨리 왕이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는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적군보다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였던 자기 군대의 사기를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병사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대화 중에 왕과 병사들은 전투에서 생기는 일이 왕의 책임인지 각 병사의 책임인지를 놓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듣고 있던 헨리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명분이 옳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죽는 것보다 왕의 군대에 속해 싸우다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오.”

이에 마이클 윌리엄스가 반박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소.”

동료들도 동의합니다. “그렇소,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소. 우리가 왕에 복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오. 그의 명분이 틀렸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소. 우리는 단지 그에게 복종할 뿐이기 때문이오.”

윌리엄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왕의

명분이 틀렸다면, 승리를 위해 한 모든 일에 왕이 홀로 책임을 져야 하오.”

헨리 왕은 당연히 이렇게 반박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는 왕에 대한 의무를 지지만, 신하들의 영혼은 각자의 책임이오.”<sup>1</sup>

셰익스피어는 작품 속에서 이 쟁점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습다.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면 남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탓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의존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며, 자신의 복리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정부로 전가하는 개인 또는 단체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애써 의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이 주신 도덕적 선택의지에 따라 행동하여 “각 사람[이] ……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sup>2</sup>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보자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때 루시퍼가 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그분의 꼭두각시가 되겠다 한들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 주실 분도 아니십니다. 또, 그분의 선지자들도 천상에서 “꼭두각시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후기 성도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계시의 영이 그들을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제가 하는 그 어떤 일로도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sup>3</sup>

따라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있는 그대로의 우리”는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것이 ……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sup>4</sup>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여 어떻게 되고자 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강제로 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강압하지도, 버려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도록, 또한 경전에 나오듯이 “쓴 것을 맛보게 되나니, 그리하여 [우리가]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도록]”<sup>5</sup> 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뻐해야 하며, (또한 실제로도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는 구주의 속죄로 원죄가 극복되어, 우리가 아담의 범법에 따른 형벌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에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sup>6</sup> 그렇게 하여 타락으로부터 구속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죄한 삶을 시작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영원히 자유롭게 되[어] ……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sup>7</sup> 우리는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분처럼도 될 수 있습니다.<sup>8</sup>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자비 덕분에 우리는 지상에서 헤의 왕국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실패를 지울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지상에 살게 된 것은 우리 각자가 아버지의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sup>9</sup> 따라서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심으로, 또는 그분이 뜻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sup>10</sup>

공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말한 것을 변경하지도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그의 길은 곧고,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sup>11</sup>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라.]”<sup>12</sup>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에 의지하여 신앙과 확신, 소망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하실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독단으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하시는 그런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으시며]”<sup>13</sup> 자비가 공의를 앗아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sup>14</sup>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는 바로 그와 동반하여 자비의 원리를 마련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자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따라서 “공의는 그 모든 요구를 행사하며, 자비 또한 그 스스로의 것을 다 주장[합니다.]”<sup>15</sup>

우리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 [그분] 아들의 흘린 피<sup>16</sup>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고 자비를 확장시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압니다.<sup>17</sup>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의를 좇아 이 시험의 상태[와] …… 회개하는 조건 위에서가 아니고는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sup>18</sup> 그것이 회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자 기회이며 이를 통해 자비가 공의를 짓밟지 않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가 제공될 수 있게 하시고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회개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sup>19</sup>해야 하기도 하지만, 회개는 자신의 의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게 회개는 우리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또 이리하여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전한 팔 안에 감싸주거니와, 한편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의 온 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sup>20</sup>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오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두 가지 다 우리의 완전하면서 거룩한 잠재력에 못 미치도록, 때로는 그것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과 그 역할 면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덕적 율법을 제정하여 자녀들을 다스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나 공의가 없는 세상이나 마찬가지이며, 도덕적 상대주의가 제일인 세상입니다.

상대주의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최고 권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옳고 그름은 스스로 판단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힌두교나 가톨릭, 성공회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일 민느냐가 문제죠. …… 옳고 그르고는 없는 것 같아요.”<sup>21</sup>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자신요! 정말 그래요. 본인이 믿는 것에 누가 이래라저러라 할 수 있나요?”<sup>22</sup>

무엇이든 다 참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확실하며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선포를 강압으로 여기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부당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분개해도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는 법입니다. 영원한 율법과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아니라 적용할 때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필수적입니다. 확실하고 불변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택의지의 은사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의도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죄가 없다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죄가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의가 없다 하리라. 또 의가 없을진대 행복이 없을지라. 의가 없고 행복도 없을진대 형벌이나 비참도 없을지라. 또 만일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이라. 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나니, 이는 행하거나 행함을 받는 것들의 창조가 없었을 것임이라. 그런즉 만물이 다 사라져 버렸으리라.”<sup>23</sup>

현세적, 영적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받은 모든 잠재력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가 있기 전부터 공격받아 온 개인의 책임은 우리가 끊임없이 수호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선의로라도)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려 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리의 책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재능과 능력,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을 회피하려 하는 자신의 본성에 맞서 우리의 책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사 누군가가 자신을 보살피 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세금과 십일조를 냈으니 교회와 정부에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먹을 게 없었으나 자신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았습다. 도와주려 애쓰다가 넌더리를 내고 단념한 사람들은 그가 생계를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니 그냥 공동묘지로 데려가 죽게 놔 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로 향하는 길에 한 사람이

**아르헨티나 바릴로체**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게 옥수수가 좀 있으니 그걸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남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는 “껍질을 벗겨 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자 남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그냥 가던 길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남성과 여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난의 굴욕적인 한계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존감과 독립심을 만끽하며, 해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모든 면에서 준비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일이 그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sup>24</sup>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최소한의 능력, 혹은 최소한의 선행밖에 베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것 외에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회개하고, 공의와 도덕적 선택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책임을 받아들이고 나가 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며 무한한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 성취되게”<sup>25</sup>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William Shakespeare, *The Life of King Henry V*, act 4, scene 1, lines 127-29, 131-37, 183-85.
2. 교리와 성약 101:78.
3. Brigham Young, “Sermon,” *Deseret News*, Oct. 31, 1855, 267; Terryl Givens and Fiona Givens, *The Crucible of Doubt: Reflections on the Quest for Faith* (2014), 63에서 인용.
4. 모세서 6:57.
5. 모세서 6:55.
6. 신앙개조 2조; 또한 니파이후서 2:25; 모세서 6:53~56 참조.
7. 니파이후서 2:26; 또한 교리와 성약 93:38 참조.
8. 제3니파이 12:48; 27:27; 또한 로마서 8:16~17; 교리와 성약 84:37~38 참조.
9. 요한계시록 12:7~9; 교리와 성약 29:36~38; 모세서 4:3~4 참조.
10. 교리와 성약 93:29~31 참조.
11. 교리와 성약 3:2.
12. 사도행전 10:34.
13. 교리와 성약 1:31.
14. 엘마서 42:25 참조.
15. 엘마서 42:24.
16. 교리와 성약 45:4.
17. 모사이야서 15:9 참조.
18. 엘마서 42:13; 강조체 추가.
19. 니파이후서 31:19.
20. 엘마서 34:16.
21. Christian Smith, *Souls in Transition: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Emerging Adults* (2009), 156.
22. Christian Smith, *Souls in Transition*, 156.
23. 니파이후서 2:13.
24. 니파이후서 25:23.
25. 모로나이서 10:3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빛과 진리의 간증을 얻음

빛과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은 이 필멸의 삶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항공기 조종사로 일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칠혹 같은 밤에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며 보냈습니다. 조종석 창밖으로 밤하늘, 특히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무수한 세상”이라는 경전의 묘사를 실감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광대함과 깊이에 경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가 우주에서 유일한 은하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아직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sup>2</sup>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진 무의 공간, 즉 무한한 빈 공간만 있을 뿐이며, 그곳은 별도 빛도 생명도 없는 차갑고 텅 빈 공간만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망원경이 더 정교해지고 우주로 발사하는 망원경까지 생기면서, 천문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장엄하고도 이해하기 힘든 진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주는 어느 누가 감히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온 정신을 압도할 만큼 더 크다는 진실, 그리고 하늘은 상상도 못할 만큼 먼 곳에 존재하는 무수한 은하계로 가득하며, 은하계마다 수십억 개의 별이 있다는 진실입니다.<sup>3</sup>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먼 은하 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sup>4</sup>

우리는 그것이 실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천상의 빛을 끌어모을 만큼 강력한 도구를 개발해서 이 은하를 가시화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이 갑자기 변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우리의 시력과 이해력이 극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층 커진 빛으로 인류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경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란 어렵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천 년 전, 혹은 백 년 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 기술 몇 가지를 그들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령, 그 사람들에게 초대형 여객기와 전자레인지, 방대한 디지털 자료가 담긴 휴대기기, 전 세계 수백만 명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손자손녀들의 동영상 등에 대해 말해 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몇몇은 우리를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에게 반발할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입을 틀어막거나 해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자신이 아는 대로 논리와 이유, 사실적 근거를 들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어리석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며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려 한다며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진지하게 하는 말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견해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진리의 빛을 아직 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빛의 약속

자신이 틀렸는데도 맞다고 생각하는 성향은 인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조종석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의 광대함과 깊이에 경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있겠습니까? 우리는 편견 꾸러미를 열기설기 엮어 만든 엉성한 뗏목을 타고서 정보가 충돌하는 대양을 정처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까?

진리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제 메시지의 목적은 모든 진리를 아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중대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창조주,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꿈으로, 시현으로, 생각과 느낌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방법으로, 또한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신성한 인도와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불가능하며,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한 개인의 기도를 듣고 답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일로 바쁘실 거라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염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여쭙는 질문을 듣고 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한 때에 응답될 것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는 길을 찾기를 바라시는데, 그 길이란 바로 구주를 뜻합니다.<sup>5</sup>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거룩한 제자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평화와 기쁨을 가슴 깊이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고대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 나오는데, 기꺼이 이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이, 누구라도 그대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고대와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하되, 의심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닌 진리를 찾으려는 진실한 열망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 느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진리를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sup>6</sup> “설혹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도록]”<sup>7</sup> 하십시오.

둘째, 생각하고, 숙고하며, 믿으려 노력하고<sup>8</sup> 또한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오늘날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큰 자비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주시어 그분의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돕게 하신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참됨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간구하십시오.<sup>9</sup>

네 번째 단계는 구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sup>10</sup> 다시 말해, 복음 원리들이 참된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에 따라 생활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하나님을 믿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분이시므로,<sup>11</sup> 약속대로 성신의 권능으로써 진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더 큰 빛으로 여러분은 어둠을 뚫고 필멸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할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단계들이 너무 어렵다거나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간증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간증은 인생 동안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할 뿐 아니라 영원에 걸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영에 속한 것은 오직 영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더 큰 빛을 모을 수 있을 만큼 도구를 정교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층 더 완전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지식에 관해 이와 유사한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쳤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sup>12</sup>

말하자면,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싶으면 올바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감지할 수 없는 도구로는 그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sup>13</sup>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하나님께

향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빛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진지하게 그 빛을 구할 때마다 더 많은 빛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흐리고 어둡고 멀게만 보였던 것들이 점차 명백하고 밝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빛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우리의 빛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나 한 주 동안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문득 되돌아볼 때면 자신이 과거에 왜 복음이 참되었다고 믿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때 그렇게 명백했던 것이 다시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멀게 느껴져서, 전에 알던 지식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복음 메시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sup>14</sup>고, 바울이 강력히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 리트머스 시험지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온갖 종류의 간증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교회 회원 중에는 간증이 확고하고 활활 타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알기 위해 아직도 힘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닌 간증의 깊이나 높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모이는 집입니다. 제가 알기에, “이곳에 들어오려면 간증의 키가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 같은 표지판을 걸어놓은 집회소 대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sup>15</sup> 하기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양육하는 곳이지, 소외시키거나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신성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고양하고, 지지하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빛을 지녔다거나 지니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난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모든 빛을 양육하고 격려하여 더욱 선명하고 밝고 참되게 빛나도록 합니다.

###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

일 분이나 한 시간, 혹은 하루 만에 간증을 얻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간증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을 모으는 과정은 일생에 걸친 탐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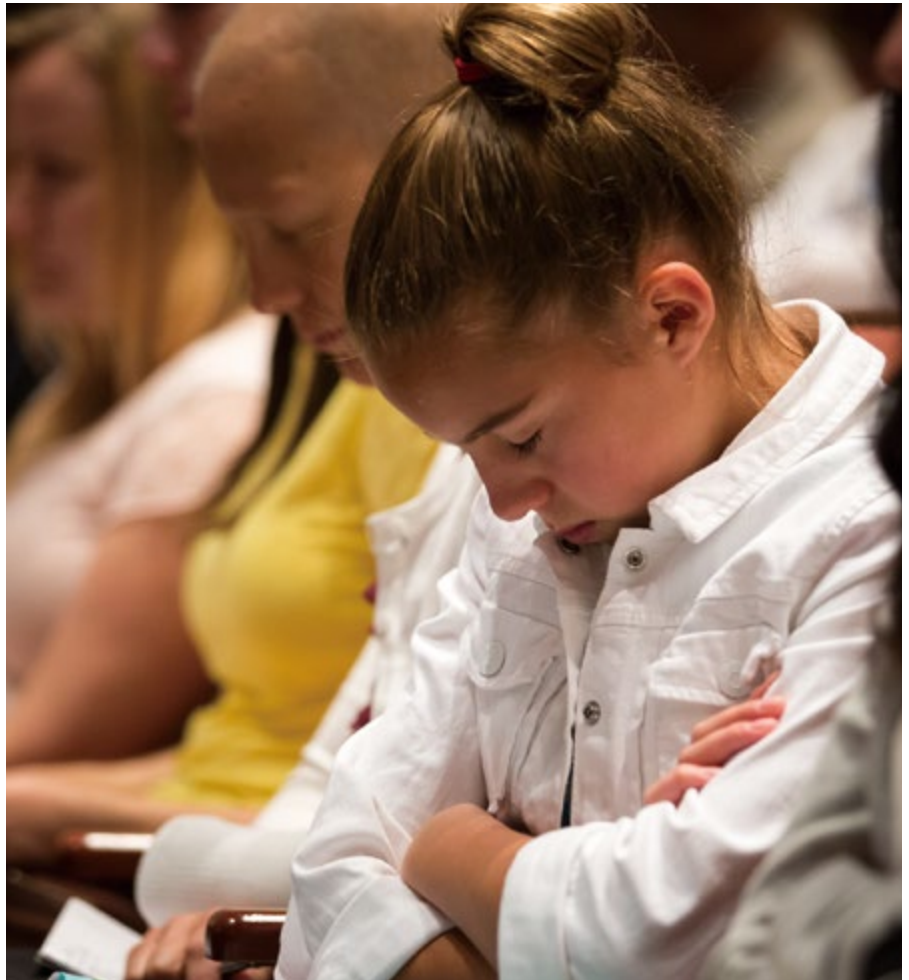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과 그분의 회복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빨리 생기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을 한다면, 간증이 생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영에 빛을 안겨 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그 빛은 놀라운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더불어 순수한 예지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직접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대 경전에 약속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영의 임재하심으로,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sup>16</sup>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소망이자 보호자요 아버지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찾으리라고, 구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sup>17</sup>

이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은 희미하고 초점이 흐리고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진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선명해지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영적 경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그 빛은 여러분 마음을 밝혀 주고 치유하며 일상에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 곧 빛과 진리의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찾고 강화할 그 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빛과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은 이 필멸의 삶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간증과 함께 저의 축복을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모세서 1:33.
2. Marcia Bartusiak, *The Day We Found the Universe* (2009), xii 참조. 우리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해 그토록 확신한다는 사실이 나는 늘 놀랍다. 때로는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존재하는

-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여기 좋은 예가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 천문학회 회장이었던 사이먼 뉴컴은 1887년에 한 천문학축소 봉헌식에서 '천문학 분야에서 ..... 우리는 실제로 지식의 한계점에 빠르게 근접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 그 결과로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지식을 더욱 정교화하는 일에 갈수록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Bartusiak, xv)
3. 이 "최근의" 발견에 비추어 모세서 1장 33절과 35절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값진 진주의 모세서는 에드윈 허블이 이 먼 은하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기 한 세기 전인 1830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것이다.
  4. 예를 들어, [heritage.stsci.edu/gallery/gallery.html](http://heritage.stsci.edu/gallery/gallery.html)에서 Hubble Heritage Image Gallery 참조.
  5. 요한복음 14:6 참조.
  6. 제3니파이 17:3 참조.
  7. 앨마서 32:27.
  8. 교리와 성약 67:3 참조.
  9. 모로나이서 10:3~5 참조.
  10. 요한복음 7:17; 또한 시편 25:14; 요한복음 3:21 참조.
  11. 교리와 성약 82:10 참조.
  12. 고린도전서 2:14.
  13. 교리와 성약 50:24.
  14. 고린도전서 1:18.
  15. 모로나이서 10:32; 또한 교리와 성약 20:59 참조.
  16. 앨마서 5:26 참조.
  17. 교리와 성약 88:63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니스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리셀 엠 벨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와 윌리엄 알 워키 장로를 칠십인 제일정원회에서 해임하고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아라익 브이 미나시안 장로와 비도 센칸스 장로가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에 감사를 표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분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를 위한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 가치에 바탕을 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I.

예수께서는 지상 성역을 마치실 무렵, 제자들에게 “새 계명”(요한복음 13:34)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5:12; 또한 15:17 참조) 세 번이나 되풀이하신 이 계명은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구주의 성역에서 중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마태복음 5:44)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양떼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평범하지 않은 과제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지난 4월에 “실제로 사랑은 복음의 정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sup>1</sup>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은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가치, 성약에 따르는 의무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드리신 위대한 중보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14). 그런 다음,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대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15)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듯이, 주님의 왕국은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누가복음 13:21; 마태복음 13:33; 또한 고린도전서 5:6~8 참조)과 같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믿음과 실천을 함께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면, 절대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구주는 또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14:15 참조)

## II.

복음에는 우리와 다른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며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논쟁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이 침례 방식에 관해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이 의식을 행하는 방법을 분명히 지시하신 후, 다음과 같이 위대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고, 나의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서도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논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제3니파이 11:28~30; 강조체 추가)

구주는 논쟁을 피하라는 경고를 침례에 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만 국한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논쟁을 금하라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논쟁의 아비”이지만, 구주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잠언 29:8)고 가르칩니다. 초기 사도들은 우리가 “화평의 일[을] …… 세우는 일을 힘쓰고[기]”(로마서 14:19)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며]”(에베소서 4:15) 또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야고보서 1:20)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 부드럽고 온유[하게]”(교리와 성약 38:41)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고, 지극히 겸손함으로”(교리와 성약 19:30) 회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III.

온유하며 논쟁을 피하려 힘쓰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에 대한 결의를 약화시키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이나 가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맺은 성약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끝없는 싸움에서 불가피하게 우리를 투사로 만듭니다. 그 싸움에서 타협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대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요한복음 8:4) 여인을 끌고 와서 맞섰을 때, 예수께서 그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위선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과 여인을 남겨 두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8:11)고 단호히 명하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친절은 꼭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주님처럼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 IV.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러셨듯이 악한 행위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옳다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때로는 “편협한 사람” 또는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행 중에는 후기 성도에게 그런 어려움을 안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 내 여러 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세찬 조류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결혼의 필요성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설물이나 위험한 마약에 대한 제재마저 반대합니다. 종교를 믿는 대다수 사람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또 다른 예로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 직장 동료나 그 밖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전, 예배의 집,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같이 헌납된 곳에서 우리는 진리와 계명들을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회복된 복음으로 밝혀진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우리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 및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며, 또 헌법에

공식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개인의 사생활로서 보호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개 석상에서 언행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종교에 관한 자유로운 표현은 대부분의 공공 행위에 적용되지만, 여기에는 타인의 믿음과 행위를 수용하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성적 착취 및 성폭력, 또는 테러 행위처럼 일반적으로 잘못되었고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한 극단주의자들의 소행도 포함하여 모두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덜 심각한 행위들은, 비록 일부 종교인들에게는 용인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물론경의 선지자가 말한 “백성의 소리”(모사이야서 29:26)에 의해 합법화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공개적인 담론에서,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툼을 피하라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손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경청자가 되며, 타인의 신실한 믿음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쾌해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발언이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에는 현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닌 진지한 종교적인 믿음이나 자유로운

종교적 표현에 언짢아하지 말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주의 황금률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우리의 입장이 우세하지 않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정중히 받아들이고 적대자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종, 민족, 종교적 신앙 또는 불신앙, 성적 취향의 차이에서 기인한 박해를 비롯해 어떤 종류의 박해도 거부하며 만민에게 선의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V.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이제에는 구주의 가르침을 더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 상황, 즉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상황에서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놀면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유타에 사는 비회원들은, 자기 자녀를 신앙이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일부 우리 회원들 때문에 너무도 자주 마음이 상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와 행동 표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많은 교사들은 후기 성도 청소년을 비롯한 일부 청소년들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 안타까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당연히 종교와 인종, 문화, 경제 수준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에게 타인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는 따돌림과 모욕, 그런 언어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구주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구주께서는 다툼은 악마의 도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 정치권에서 쓰는 말이나 행동과는 확실히 상반되는 가르침입니다. 정치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차이가 정부의 절차를 방해하고 개인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증오에 찬 대화를 지양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공손함을 표해야 합니다.

다툼을 피하고 차이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가족 관계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큰 차이점의 예로 가족 중에 혼의 동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일이 생기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즉 그 식구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의 다짐이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알기에 잘못된 것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듯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이 깃든 친절을 보이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관한 다른 예를 들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10년 전, 저는 중서부 지역의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비회원인 남편이 지난 12년간 자신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는 했으나 교회에 들어올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인내하며 남편을 친절히 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자매님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12년간 잘 참아 왔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을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이제 침례를 받았죠.”

친절은 특히 가족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매님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도 더 친절해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올해 성전 인봉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6년 뒤에 자매님에게서 온 또 한 통의 편지에는 “남편이 [저희 와드] 감독으로 부름받고 성별되었어요”<sup>2</sup>라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 VI.

인생에서 우리는 무수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부정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 가치에 바탕을 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통해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지상에 왔습니다. 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문화와 믿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경의 한 선지자가 가르쳤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니파이후서 31:20)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분의 계명은 아마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고 모든 관계와 활동에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토마스 에스 문슨, “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1쪽.
2. 2006년 1월 23일 및 2012년 10월 30일에 앨런 에이치 옥스가 받은 서한.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조셉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한 복음의 회복을 이끌기 위해 거룩한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조셉 스미스입니다.

17 세였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조셉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보내진 모로나이 천사라 밝히고, 하나님께서 조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당시에 천사가 조셉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질]”<sup>1</sup> 것이라 했을 때, 조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조셉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기에 모로나이는 그가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또 나쁘게도 오르내릴 것이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sup>2</sup>

조셉 스미스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천천히 전해졌으나 나쁜 이야기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 무명의 …… 소년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져 …… 주의를 끌며 …… 극심한 핍박과 비방의 태도를 불러일으켰다.”<sup>3</sup>

조셉을 향한 사랑과 적대감은 함께 커졌습니다. 그는 38세 나이에, 얼굴에 칠을 한 150여 명의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sup>4</sup> 선지자의 생은 급작스럽게 끝이 났지만 조셉에 대한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는 그때 막 시작되었습니다.

조셉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sup>5</sup>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sup>6</sup>

주님은 조셉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이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은 너를 조롱할 것이요, 지옥이 네게 분노하리라.

한편 마음이 순결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 유덕한 자는 네 손 아래에서 끊임없이 …… 축복을 구하리라.”<sup>7</sup>

주님은 왜 악의적인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가 함께 돌아다니는 걸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진리를 구하는 이들은 무릎을 꿇고 응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sup>8</sup>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영적인 사업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하늘 천사의 방문이 수없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성스러운 경전과 잃어버렸던 교리와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조셉이 한 일의 중요성을 알려면 지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셉처럼 “하나님께 구[해야만]”<sup>9</sup> 합니다. 영적인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 중 다수는 하늘에서 온 존재가 지상의 인간과 대화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금판을 전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불신 때문에 조셉의 간증을 즉각 거부하고, 소수는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생애를 깎아내리고 그의 성품을 모략하기까지 합니다.

한때는 조셉을 존경했다가 확신을 저버리고 선지자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더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sup>10</sup>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변절한 사람의 눈을 통해 교회를 알아보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알려고 유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변절한 사람은 자신이 떠난 곳에 대해서보다는 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sup>11</sup>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친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sup>12</sup>고 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 모든 상황을 모로나이가 오래 전에 예견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보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 듣거나 읽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걱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언제나 솔직하고 진솔한 질문을 환영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성품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또 그가 하는 일을 목숨 바쳐 도왔던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그 대담으로 줄 수 있습니다. 조셉을 죽인 폭도들이 쓴 총알을 네 발이나 맞았던 존 테일러는 나중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조셉이] 선량하고, 존경할 만하고, 유덕한 사람이며, 그가 …… 보여 준 성품은 한결같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고고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sup>13</sup>

우리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는 “진실” 여과기가 없다는 점을 그 진지한 탐구자에게 환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타임”지에서 마틴 해리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경 판이 발견된 과정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기록과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sup>14</sup>

그 문서 때문에 몇몇 회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sup>15</sup>

애석하게도 그들은 너무나 빨리 떠났습니다. 여러 달 후에 그 편지가

완전히 사기였음을 전문가들이 발견했습니다.(위조자들도 실토했습니다.)<sup>16</sup> 뉴스를 듣고서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간증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셉에 관한 어떤 정보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당시 시대와 상황의 전후 관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탐구자들에게 환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리셀 엠 벨슨 장로님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미국 질병통계센터에서 미국 정부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의를 끝낸 후 공항으로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면서 잔디 위에 몸을 뺀고 누워 겨울 날씨의 유타로 돌아가기 전에 따뜻한 햇살을 잠시나마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 나중에 저는 사진기자가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잔디에서 쉬던 제 모습이 있었고 사진 아래에 ‘통계 센터에서 일하는 정부 고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설명이 사실이었지만, 그릇된 인상을 퍼뜨리려고 그 사실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sup>17</sup>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것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셉이 혼자 있을 때만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이 아님을 탐구자들에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경의 증인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말로써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 우리가 그 판[을] …… 보았나니”<sup>18</sup> 우리는 또 다른 많은 것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sup>19</sup>

진지한 탐구자들은 선지자 조셉을 통해 주님의 사업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회복된 복음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29,000여 개가 넘는 곳에



여러분의 영적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서 진리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회중이 모여, 88,000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후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고결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타인을 돕는 일에 시간과 재능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sup>20</sup>.

이런 설명도 설득력이 있지만, 진지한 탐구자들은 전적으로 이것에만 의존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저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과 성품에 대한 영적인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 있을 때, 한 귀환 선교사가 제게 오더니 자신의 친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정보로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결과, 그 귀환 선교사도 약간 의심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가 친구를 일으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의 간증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한 가지 경고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남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에 관한 동영상 보여 주었고, 이런 주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기내 압력이 변하면, 여러분의 좌석 위 칸이 열리고, 산소 마스크가 보일 것입니다. 손을 올려 마스크를 잡아당겨 코와 입에 마스크를 대십시오. 고정용 끈을 머리에 두르고 본인한테 맞게 마스크를 조절해 주십시오.” 그 뒤에 이런 주의 사항이 이어졌습니다. “타인을 돕기 전에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커질 것입니다. 반쪽짜리 진실과 교묘한 속임수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영적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서 진리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sup>21</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은 우리 각자 다른 경로로 올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가 참된 선지자였음을 확인하려고 하나님께 구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시헌에 대한 조셉의 기사를 읽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물몬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간증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은 이제 158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스며들 수 있습니다. 조셉에 대해 간증을 전하거나 성전에 가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기록한 인봉 권능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올 수도 있습니다.<sup>22</sup> 신앙과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커질 것입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계속 던지는 물 풍선으로 때로는 젖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여러분의 타고르는 신앙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거나 향후에 이 말씀을 읽게 될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도전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본인의 간증을 지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모로나이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선지자 조셉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또는 그렇다고 아는 성구를 물몬경에서 찾으십시오. 그런 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정의 밤 시간에, 세미나리 및 청년 청년 공과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둘째, 값진 진주 또는 158개 언어로 제공되는 이 소책자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으십시오. 그 간증은 LDS.org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선교사에게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조셉의 간증입니다. 자주 읽으십시오.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정기적으로 듣고 친구와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조셉의 간증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으면 원하는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대의는 계속 뻗어 나가 ……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든 이 위대한 대업은 전진할 것입니다.”<sup>23</sup>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시라는 제 간증을 전합니다. 주님은 충만한 복음의 회복을 이끌기 위해 거룩한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조셉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

죽음의 휘장 너머의 세상에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부름과 신성한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세상은 조셉을 다시 알[게]”<sup>24</sup>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조셉 스미스-역사 1:33.
2. 조셉 스미스-역사 1:29~46 참조.
3. 조셉 스미스-역사 1:23.
4. 교리와 성약 135:1 참조.
5. 사도행전 26:24 참조.
6. 마태복음 11:19; 요한복음 10:20 참조.
7. 교리와 성약 122:1~2.
8.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의 포로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사랑과 평안, 값진 은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신성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오는 축복은 어디에서든 나타나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시험을 받아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은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9. 야고보서 1:5; 또한 조셉 스미스-역사 1:11~13 참조.
  10. 다니엘 타일러는 이렇게 회상했다. “아이작 베후닌 형제와 나는 그의 집으로 [선지자들] 찾아가다. 대화의 주제는 그에 대한 박해였다. 그는 배도자들[이]…… 하는 거짓되고 일관성 없는 모순된 여러 가지 말들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한 그가 체포되었을 때 [고의적으로]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대부분의 관리들이 그를 알게 된 후 그의 편이 된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 베후닌 형제가 이렇게 말했다. ‘비록 제가 교회를 떠나다 해도 저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몰몬이즘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으로 가서 정착할 것이며, 제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조셉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베후닌 형제님, 형제님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들도 한때는 형제님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형제님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 형제님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형제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제님은 중립 지대를 떠난 것이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님이 섬기기로 한 주인을 떠난다면, 그것은 악한 자가 선동했기 때문일 것이며, 형제님은 그의 명령에 따르고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교회 회상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323~324쪽)
  11. Neal A. Maxwell, “All Hell Is Move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8, 1977), 3; speeches.byu.edu.
  12. 마태복음 5:44.
  13. 교회 회상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01), 83쪽; 또한 교리와 성약 135:3 참조.
  14. Richard N. Ostling, “Religion: Challenging Mormonism’s Roots,” *Time*, May 20, 1985, 44 참조.
  15. Ostling, “Religion: Challenging Mormonism’s Roots,” 44 참조; 또한 고든 비 힐클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60쪽; 닐 앨

- 앤더슨, “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1쪽 참조.
16. Richard E. Turley Jr., *Victims: The LDS Church and the Mark Hofmann Case* (1992) 참조.
  17. Russell M. Nelson, “Truth—and More,” *Ensign*, Jan. 1986, 71.
  18. “세 증인의 증언”, 몰몬경.
  19. 조셉 스미스-역사 1:71, 주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76:23 참조.
  20. 마태복음 7:18, 20.
  21.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려고 노력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의심을 쫓아내기 위한 증거 내지 추론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들의 의심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은 자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의심을 하게 만든 논거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 우리 학생들이 의심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오래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 그들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 대화 주제를 마음에 대한 것, 즉 영적인 눈을 열어 주는 마음의 변화로 즉시 돌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And Thus We See: Helping a Student in a Moment of Doubt”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들에게 전한 말씀, Feb. 5, 1993], 3~4; si.lds.org)
  22. 고든 비 힐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오래 전, 제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집사로 성임되었고, 당시 스테이크 회장이셨던 아버지께서는 저를 처음으로 신권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이 개회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제 마음도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하신 선지자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 그때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조셉 스미스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성도의 빛, 1984년 4월호, 1~2쪽)
  23. 토마스 에스 몬슨, “다시 모이게 되어”,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4쪽.
  24.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테드 알 콜리스터  
본부 주일학교 회장

# 자녀의 복음 교육에서 주된 교사: 부모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상적인  
터전은 바로 가정입니다.

**벤** 카슨은 자신이 “5학년 전체에서 가장 형편없는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수학 시험을 봤는데, 3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뒤에 앉은 학생이 오답을 수정하고 채점을 한 후 시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윌리엄슨 선생님은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점수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벤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윌리엄슨 선생님은 벤이 “아홉 개”라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벤이 30문제 중 아홉 개를 맞혔다니 실력이 꽤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학생이 “아홉 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맞혔어요. 빵점이라고요!”라고 소리쳤습니다. 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벤의 어머니인 소냐도 큰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3명이나 되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자라 교육이라고는 3년밖에 못 받았고, 글도 몰랐습니다. 열세 살에 결혼했다 이혼한 후 아들 둘을 데리고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소냐는 자립심이 투철했고, 가족이 스스로 해야 할 몫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냐와 두 아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소냐는 가정집에서 청소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서재가 있고 그곳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끄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세 개 이상 보아서는 안 돼. 나머지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일주일에 두 권씩 읽고, 독후감을 써서 엄마에게 가져오너라.”

두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벤은 학교에서 시킬 때를 빼고는 책을 읽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징징대고 불평하면서 페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벤은 그날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규칙을 세우셨어요. 저는 그게 싫었지만,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았죠.”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7학년 때 벤은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 학업에 정진해서 장학생으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고, 그 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진학했으며, 33세에 소아신경외과 과장이 되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인생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지만, 부모 본연의 임무를 영화롭게 했던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경전에는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교리와 성약 68:25)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나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교사이자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독, 주일학교 교사, 청남 청년 회장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첫째 가는 교사이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교사로서 우리는 속죄의 권능과 실재성을,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과 신성한 운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삶에 토대가 될 굳건한 반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상적인 터전은 바로 가정입니다.

1년 전에 저는 교회의 임무 수행 차 레바논 베이루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라라는 열두 살 난 소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새라의 부모님과 두 오빠는 루마니아에서 우리 교회로 개종했지만, 새라가 일곱 살이던 해에 그 가족은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국에는 우리 교회가 없어서 아무런 조직도, 주일학교도, 청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5년 후에 이 가족은 베이루트에 지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라 부모님은 열두 살이 된 새라가 짐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빠들과 함께 베이루트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구원의 계획을 주제로 영적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라는 간간히 손을 들고 몇몇 질문에 대해 대답을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저는 새라가 교회 모임에 참석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는 것을 듣고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새라, 그럼 그 질문들에 대해 네가 대답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알았던 거지?” 새라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나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그 가정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라에게 주된 복음 교사이었던 것입니다.

이노스는 “내가 종종 들었던 바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이노스서 1:3)라고 말했습니다. 이노스에게 주된 복음 교사가 누구였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벽난로 옆에 편히 앉아 경전과 다른 양서를 읽으시던 모습을 기억하는데, 저도 그 옆에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셔츠 앞 주머니에 카드 몇 장을 넣어 두시던 것도 기억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암기하고 배우려 하시던 성구와 셰익스피어의 인용구, 새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복음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던 일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연로한 분들을 방문했던 기억도 많습니니다.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을, 또 어떤 때는 저녁거리로 닭을 가져간 적도 있었고, 아버지가 누군가와 악수를 하시며 그 손에 약간의 돈을 쥐어 주셨던 장면도 생각납니다.



그때 느낀 기분 좋은 느낌과 나중에 크면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던 제 마음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아흔 살쯤 되셨을 때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쟁반 가득 들고 나오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디에 가시는 거냐고 여쭙자 어머니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갖다 드려야겠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요.’ 저의 첫째 가는 복음 교사이셨던 부모님께 그 어떤 말로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뜻 깊은 일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힘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건 판에 박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일곱 살 때, 저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어머니께서 복도에 와 계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자 어머니는 “태드, 좋은 아내를 찾으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야구와 학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애야,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한단다. 네가 앞으로 인생에서 내리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이잖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했고, 그 후 6년에 걸쳐 좋은 아내를 찾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영원한 결과를 낳는 것들에 대해 기도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주 혼탁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종하고,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간구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대다수가 저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아마도 개인적으로 아침 기도 습관을 들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그들의 주된 복음 교사로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경 시대의 어느 부모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전쟁터로 아들들을 내보낼 때, 가슴판과 방패와 검도 없이 가도록 내버려두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자녀가 기도의 보호하는 힘에서 오는 영적인 가슴판과 방패와 검 없이 매일 아침 현관을 나가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가도록, 그렇게 사탄과 그가 만든 수많은 유혹과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교리와 성약 10:5)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침 기도의 습관이 배고 힘이

스며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소나 카슨처럼 절연한 태도로 단호하면서도 사랑을 담아 대개 자녀의 생활을 독차지하는 텔레비전 및 기타 전자 기기 이용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녀가 복음에 중심을 둔,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불평도 하겠지만, 소나 카슨처럼 우리도 비전을 갖고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자녀도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이해하고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영적, 지적,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 부름이나 직장에 쏟아붓고 남은 자투리 시간과 재능만 주고 있는가?’ 내세에서 감독이나 상호부조회 회장과 같은 칭호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칭호는 끝이 없는 세상에서도 계속 공경을 받을 것임을 압니다. 바로 그 점이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서 받게 될 책임, 지금과 비슷하면서도 더 큰 책임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도움을 마련하지 않으신 채로 책임을 주시는 법이 절대 없으십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신성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에서 자녀에게 첫째 가는 복음 교사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Ben Carson, *Gifted Hands: The Ben Carson Story* (1990) 참조.



외르크 클레빙가트 장로  
칠십인

#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시다

기꺼이 경청하고 행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함으로써 오늘부터 영적인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 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은 1부터 10 사이에서 어느 등급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후기 성도로서 자신의 헌신이 영생을 상속받기에 충분하다는 개인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1분간 구주와 개인 접견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죄와 후회, 결점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쁜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겠습니까? 문 앞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자신 있게 그분을 향해 걸어가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저버리도록 설득하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가 최대한 멀어지도록 사악한 술책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큰 자비와 강력한 기적들을 지속적으로 흘려들게 하는 그런 신앙이, 옳은 일을 택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자신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 거짓말을 하려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실망하셨다, 속죄는 그림의 떡이다, 노력해 봤자 다 소용 없다, 모두가 다 너보다 낫다, 너는 합당하지 않다 등 하나의 사악한 주제를 무수한 변주곡으로 쏟아냅니다.

이렇게 기만하는 목소리를 허용하는 한, 진정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기적에 대해 어떤 소망을 품든 간에 늘 자기 회의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 아니라 자신감까지도 조금씩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복음 생활은 즐겁지도,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변화하겠다는 결심은 자기 자신만의, 타인이 아닌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섯 가지 실질적인 제안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안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사악한 목소리를 흠여버리고 평온한 확신과 영적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1부터 10 사이의 몇 등급을 매겼든 그것에 상관없이 기꺼이



경청하고 행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함으로써 오늘부터 영적인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화되길 바라며,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영적 복리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타인이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탓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은 그만하십시오. 순종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멈추십시오. 자신이 “육체로 말할진대 …… 자유로우며” “자유로이 …… 자유와 영생을 택[한다]”(니파이후서 2:27)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도 아주 잘 아시지만, 또한 여러분이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라면, 솔직하게 그 점을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온전해지고자 노력하십시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함으로써 영적 복리에 대해 책임을 질 때,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이 커집니다.

2. 자신의 신체적 복리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15 참조) 성전인 몸을 소홀히 한 채 영을 먹으면 대개 영적인 부조화와 낮은 자존감이 초래됩니다.

여러분의 몸매가 영망이라면, 자신의 몸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여겨야” 하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량을 조절하며 운동해야”(“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야호나, 1999년 1월호, 87쪽)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우리의 영과 몸은 우리 몸이 우리 정신의 도구가 되고 우리 인격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The Instrument of Your Mind and the Foundation of Your Character,” Church Educational System fireside, Feb. 2, 2003), 2; speeches.byu.edu)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특히 얼마만큼 먹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몸에 맞게 필요한 만큼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신체적으로 가능하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 즉 몸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규칙적이고 장기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좀 더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구주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육에 속한 사람을 진정으로 다스릴 때, 여러분의 영적 자신감이 커집니다.

3. 온 마음을 다하는 순종을 삶의

일부분으로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인식하십시오. 구주의 표준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선택적인 순종은 선택적인 축복을 가져오며, 더 많이 나쁜 것보다 좀 덜 나쁜 것을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영화를 보면서 매우 나쁜 영화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결함을 느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계명을 충실하게 지킨다고 해서 나머지 계명을 경시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좋은 것을 느끼고 나쁜 일을 할 때는 나쁜 것을 느낀다.”(William H. Herndon and Jesse William Weik, Herndon’s Lincoln: The True Story of a Great Life, 3 vols. [1889], 3:439)

또한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고]”(교리와 성약 64:34)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33:1)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왜 교회에 가는지, 여러분의 몸만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예배하는지를 아십니다. 일요일에 “오 바벨론 오 바벨론 이제 떠나서”(“너 이스라엘



장로는”, 찬송가 200장)라고 찬송하면서, 잠시 후에 그런 것과 다시 함께하려 하거나 받아들이려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가볍게 하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회복된 복음이 단지 바깥 활동 또는 사회생활의 일부가 아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섬길 자를 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에 따라 생활하기 전까지는 그저 겉치레에 불과합니다.(여호수아 24:15 참조) 비록 불안정하더라도 의로운 동기로 헌납된 삶을 살고자 진정으로 노력할 때, 여러분의 영적 자신감이 커집니다.

4.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정말 실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언제든 그것을 풍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속죄의 축복은 결코 동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회개를, 위대한 의사이신

구주의 명에 따라 매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회개를 여러분의 생활 양식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행복하고도 즐겁게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또 그렇게 할 때, 미루고 싶은 유혹을 조심하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환호를 보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주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실지를 더 신경 쓰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크든 작든 자발적으로 기쁘게 죄를 회개할 때, 영적인 자신감이 커집니다.

5. 용서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10) 항상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용서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 노력함으로써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원한을 품지 말고, 쉽게 상처받지도 말고, 즉시 용서하고 잊어버리며, 여러분이 이 계명에서 면제를 받았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영혼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심을 인식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자신감이 커집니다.

6. 시련과 좌절, “예상 밖의 일”들을 필멸의 삶에서 하는 경험의 일부로 여기십시오. 하나 덧붙이자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다 행하는지”(아브라함서 3:25) 시험을 받고 증명하기 위해 이 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그런 식으로 시험을 받았거나 지금 받고 있는데, 왜 여러분만 면제를 받겠습니까? 어떤 시련은 여러분의 불순종이나 태만을 통해 옵니다. 다른 시련들은 타인의 부주의 때문에, 또는 단순히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들이 올 때 사탄의 앞잡이들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이것이 형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신호라고 떠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은 무시하십시오! 그보다는 애써 웃음을 짓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저 자신을 증명해 보일 때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는 주님을 동반자로 삼아 끝까지 잘 견뎌 내십시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다.”(Glenn L. Pace, “Crying with the Saint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Dec. 13, 1987], 2; speeches.byu.edu)는 점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자신감이 커집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선교부를 감리하던 시절에 한번은 아주 충실한 한 자매에게 왜 항상 스스로를 그토록 모질게 대하는지, 왜

아주 작은 일에도 항상 자신을 비난하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잘못된 목소리에 경청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실례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문제로 저를 비난할 수 없잖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자매 선교사에게 준 권고를 여러분에게도 드립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안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그 약점 중 일부는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가 어떠한 간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또 최대한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함으로써 매일 자발적으로 정직하고 즐겁게 회개하는 순간, 늘 그랬듯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구주의 속죄가 여러분을 따르고 감쌀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활할 때, 참으로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여러분의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게”(모사이야서 4:12) 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음을 오늘 또는 머지 않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구주께서는 우리가 계명대로 생활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한 구주께서 간절하게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한 구주께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고요하고 행복한 확신으로 우리가 매일 그분의 속죄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한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의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기를(고리과 성약 121:45)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칠십인

##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라” 등 다양한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이 각 권유는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 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sup>1</sup> 오늘 제가 모국어로 제 마음을 전할 기회를 받은 것으로 이 성구는 다시 한 번 성취되었습니다.

1975년에 저는 우루과이 파라과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 첫 달에 저의 지역 지도자들은 한 복음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해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의 각 선교사는 눈을 가리고 활동실까지 이어진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한 지도자의 목소리를 따라야 했는데, 건기 전부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를 혼동하게 하여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리들도 듣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몇 분간 여러 가지 소음과 말 소리가 들렸는데, 그중에 “저를 따라오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올바른 음성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집회소의 활동실에 도착한 우리는 눈가리개를 벗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가리개를 벗으니 두

그룹이 보였는데, 저는 그릇된 목소리를 따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분명히 올바른 목소리처럼 들렸는데.” 하고 증언거렸습니다.

39년 전의 그 경험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다시는 잘못된 목소리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은 구주의 친절한 권유와 관련 짓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sup>2</sup>

“그분을 따르라”는 권유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권유입니다. 혼동할 수 없는 분명한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라” 등 다양한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수동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권유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교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야로부터 그 권유를 받습니다.

#### “내게로 오라”는 권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sup>3</sup>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은 이 권유를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경을 읽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권세를 지닌 사람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겠습니까?”<sup>4</sup> 오늘 여러분은 이 권유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sup>5</sup>

저는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고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우루과이 미나스에 사는 카를로스 바디올라와 그의 가족이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장로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에 사는 예쁜 열네 살 된 비회원 노르마를 불러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노르마는 고등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그 해에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질문을 하면 노르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노르마는 “황금 구도자”였습니다. 그날 가르친 토론은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토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노르마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밀크커피는 마시지 않을 거예요. 우유만 주세요.” 이는 선교사들이 권유한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녀의 소망이 분명하게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카를로스 바디올라와 노르마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노르마의 모범을 따라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노르마와 저는 작지만 강한 지부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훗날,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돌아온 뒤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구주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우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회원이며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은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sup>6</sup> 그 성약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나를 따르라”는 권유

“나를 따르라”는 주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하셨던 권유입니다. 그 청년은 살아오면서 언제나 계명을 지켰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여쭙었을 때 그 답변으로 “나를 따르라”<sup>7</sup>는 분명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유는 단순하지만 희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심과 행위가 결합된 노력을 요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자기반성을 권유했습니다.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 하지 않고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sup>9</sup>

“그분에게로 오라”는 권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권유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전해 왔던 메시지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원토록 변화시켰습니다.

50년 전에 선교사들은 제 아버지의 시계 제작소에 와서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여 제 부모님에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셨고,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메시지와 권유에 응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지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려 애쓸 때, 여러분은 신체적이든 영적이든 인생의 짐을 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행복해지게 하는 긍정적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나와 동행하라”는 권유

예누는 까다롭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여겼으며,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의심을 잠재우시고 “나와 동행하라”는 권유로 그의 신앙을 강화하셨습니다. 맹인의 지팡이, 또는



친구의 팔과도 같은 그 권유는 확신 없는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에녹은 구주의 팔을 잡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자신의 걸음이 확고해졌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위대한 선교사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sup>10</sup>

“내게로 오라”와 “나를 따르라”는 권유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걸음은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구주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그 첫 권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맺게 되는 결실인 것입니다.

노르마와 저는 “내게로 오라”와 “나를 따르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 왔습니다.

구주를 찾고 따르겠다는 결심과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들로 보상될 것입니다.

한 여인이 많은 노력 끝에 구주의 옷자락을 가까스로 만졌을 때나<sup>11</sup> 맹인 바디매오가 자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핵심 요소는 바로 그들의 결심이었습니다.<sup>12</sup> 그 두 사람은 모두 육신과 영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권유를 받아들이고,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라”는 권유는,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킬 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sup>13</sup>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같이 변화할 때, 여러분은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sup>14</sup> 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단계를 따를 수 있을까요?

1.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겠다는 소망을 키우십시오.<sup>15</sup>
2. 주님을 믿는 신앙이 커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sup>16</sup>
3.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이 강화되고 그 길을 밝힐 수 있도록 경전에서 지식을 얻으십시오.<sup>17</sup>
4. 오늘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 지식이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한,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sup>18</sup>

5. 이 원리들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걸음을 유지하십시오.<sup>19</sup>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소망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주시요,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손짓해 부르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간청하십니다.”<sup>20</sup>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헌신의 수준을 높이고자 결심하고 그분의 권유에 대해 크고 분명한 소리로 “예,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sup>21</sup>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엘마서 29:8.
2. 요한복음 10:14, 27.
3. 마태복음 11:28; 또한 이사야 55:3 참조.
4.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31, 195~202쪽 참조.
5. 사도행전 2:37~38 참조.
6. 교리와 성약 20:37, 77~79 참조.
7. 교리와 성약 42:29 참조.
8. 마가복음 10:21.
9. 니파이후서 31:10.
10. 모세서 6:33~35 참조.
11. 누가복음 8:43~48 참조.
12. 마가복음 10:46~52 참조.
13. 모사이야서 5:2.
14. 교리와 성약 81:5; 또한 이사야 35:3 참조.
15. 엘마서 22:15~16; 델린 에이치 옥스, “의로운 욕망”, 리야호나, 2011년 5월호, 42~45쪽 참조.
16. 엘마서 34:17~27; 37:37 참조.
17. 시편 119:105; 힐라맨서 3:29 참조.
18. 모사이야서 5:5 참조.
19. 랠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 그 일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은 그 일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Heber J. Grant, *Gospel Standards*, comp. G. Homer Durham [1941], 355)
20.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야호나, 2008년 11월호, 88쪽.
21. “Lord, I Would Follow Thee,” *Hymns*, no. 220 참조.



아르헨티나 바릴로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곤궁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신선한 말씀을 전해 주신 에두아르도 장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역 초기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분이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셨던 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sup>1</sup>

이렇게 구주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성역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구는 또한 최후의 속죄 희생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구주의 길에서, 메시아로서 그분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의무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포함하여 가난한 이들을 축복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빈곤에 허덕이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그런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sup>2</sup>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sup>3</sup>의 창조주께서 적어도 성인 시절에는 거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유사 이래 가난은 인류가 겪는 가장 크고 보편적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가난은 대개 신체적인 고통을 야기하지만 그로 말미암는 영적 및 정신적인 피해는 사람을 쇠약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힘을 모아 사람들에게서 그 짐을 덜어 주자는 이 일만큼 위대한 구속주께서 우리에게 즐기차게 외치신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이셨을 때 그분은 “[궁핍]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권속을 호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을 흘리느냐”<sup>4</sup>.

잠언의 저자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sup>5</sup>.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가 세워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아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라며]”<sup>6</sup> 회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이라는 구절이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렇게 명하셨을 때에는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세상의 불평등을 해결하라는 엄청난 과제를 받는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sup>7</sup>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

그는 힘을 다하[였느니라]”<sup>8</sup>

“마리아는 힘을 다했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명료한 공식입니까! 한 언론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캘리포니아에서 빈민을 구제하는 그 가망 없는 일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테레사 수녀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이 놀라운 여성은 자신이 통계가 아닌 사랑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빈민들이 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힘이 닿는 대로 봉사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 정도로 작은 일이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바닷물은 그만큼 줄어들겠죠.”<sup>9</sup> 그 언론인은 기독교 정신이란 통계적인 노력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분별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아흔아홉 사람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통계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sup>10</su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다할 수 있을까요?”

베냐민 왕이 가르쳤듯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그 불행을 자초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나누지 않으려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자초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동정심 많은 통치자가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sup>11</sup>라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과 희망,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문제에 대해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적어도 우리에게만은 공의보다 자비가 우선하기를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정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죄 사함을 얻지만, 우리에게 간청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동정심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의 죄 사함을 간직한다는 베냐민 왕의 말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sup>12</sup>

궁핍한 사람을 위해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경전에 표현되어 있듯이 자기 동포들에게 “더러운 것” 혹은 “찌꺼기”로 여겨지던 일단의 조람인들은 “그들이 [입은] 그 의복의 조악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도 가난하였고, 또한 마음으로도 가난하였더라”<sup>13</sup>라고 적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언제나 거의 함께 나타납니다. 선교사 동반자인 엘마와 앰올레크는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부당하게 거부당한 이 사람들에게 대응하며,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도 그들은 들에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또 마음속으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sup>14</sup>

그런 다음, 앰올레크는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한 후에, [너희가] 만일 궁핍한 자와, 헐벗은 자를 물리치며,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 너희의 기도는 헛되고, 너희에게 무익하며, 너희는 신앙을 부인하는 위선자와 같을지니라.”<sup>15</sup> 곤궁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참으로 멋진 성구입니다.

제가 비현실적인, 세계적인 사회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거나 혹은 구걸 행위를 하나의 성장 산업으로 지지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저는 근면과 검약, 자립과 열망의 원리를 그 누구 못지 않게 존중한다는 점 또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각각 어떻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므로, 그분께서 거듭해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여러분이 양심을 다해 원하고, 기도하고, 바란다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정심 어린 행동을 하도록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교회 회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교회 회원들을 돕는 주님의 방법은 더 쉽습니다. 육체적으로 역량이 있는 모든 사람은 금식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

명예의 줄을 끌려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햇빛을 자를 보면 입히[는] …… 것이 아니겠느냐”<sup>16</sup>

금식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기적이 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제게도 그런 기적이 왔음을 간증합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저는 참으로 한 번 이상 금식하며 외쳤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sup>17</sup>고 응답하셨습니다. 최소한 매달 그런 성스러운 특권을 소중히 여겨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 기금과 영구 교육 기금, 선교사 기금을 내실 때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넉넉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며,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복되다 할 것입니다. 작년에 헌신적인 감독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님들이 금식 헌금을 집행하여 75만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디. 고마운 후기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 저는 제가 인생에서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과분한 축복을 끊임없이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재정 문제로 걱정했던 때가 있었지만, 가난한 적은 없었고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필멸의 세상에서 출생 환경과 건강 상태, 교육 및 경제적 기회가 그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같은 처지”<sup>18</sup>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세계는 형제가 있으며, 저는 “받은 것 많아 나누며 …… 살[아야 합니다.]”<sup>19</sup>

이와 관련해 저는 토마스 스펜서 몬슨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 47년간 교분을 나누어 왔는데, 제가 죽는 날까지 그분에 관하여 간직하고 싶은 한 가지 기억은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동독에서 여분의 양복과 셔츠뿐 아니라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주고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은 채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모습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 산을 넘[어 밭을 질질 끌며 공항 터미널을 지나오는 자의] 밭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sup>20</sup>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몬슨 회장님은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과 아버지를 잃은 이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힘을 다했으며” 그 덕분에 참으로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1831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가난한 자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권능과 큰 영광”<sup>22</sup>으로 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언젠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21</sup> 빈곤에 매여 허덕이고 너무 많은 꿈을 빼앗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 권능과 영광에 힘을 보태어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도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누가복음 4:18.
2. 마태복음 8:20.
3. 니파이후서 2:14; 제3니파이 9:15.
4. 이사야 3:14-15.
5. 잠언 14:31; 21:13.
6. 교리와 성약 38:35.
7. 마가복음 14:4-5 참조; 또한 마태복음 26:8-9; 요한복음 12:4-5 참조.
8. 마가복음 14:6, 8; 강조체 추가.
9. Mother Teresa of Calcutta, *My Life for the Poor*, ed. José Luis González-Balado and Janet N. Playfoot (1985), 20.
10. Malcolm Muggeridge, *Something Beautiful for God* (1986), 28-29, 118-19 참조; 또한 누가복음 15:7 참조.
11. 모사이야서 4:19.
12. 모사이야서 4:26 참조.
13. 엘마서 32:2-3.
14. 엘마서 34:17~27 참조.
15. 엘마서 34:28; 강조체 추가.
16. 이사야 58:6-7.
17. 이사야 58:9.
18. 존 브래드포드에게 공을 돌립니다; *The Writings of John Bradford*, ed. Aubrey Townsend (1853), xliii 참조.
19. “풍성하신 주 은혜로”, 찬송가, 138장.
20. 이사야 52:7.
21. 교리와 성약 56:18; 또한 19절 참조.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지속적인 평안을 찾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지속적인 평안을 찾고 영원한 가족 단위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인** 생 여정에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각 시기에는 서로 다른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그에 따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초를 세우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복음은 확실하면서도 굳건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 기초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조금씩 얻게 됨에 따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가르침의 대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경전은 주님에 대해 간증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의로움의 본보기를 알려 줍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저는 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제 어머니께서 상호부조회 공과를 준비하기 위해 기록하셨던 여러 권의 공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책에 기록된 내용은 당시에도 시기적절했지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찰스 에드워드 제퍼슨이 1908년에 기록한 인용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진심으로 열렬히 예수님을 경외하여 그분과 같이 되려는 열망으로 우리 삶 전체를 그분께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위를 통해, 또한 그분의 침묵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는 친구들에게, 두 번째로는 적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영향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다.

20세기 삶의 양상 중 하나는 불만족과 근심이다. ....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를 얻었고, 세상은 인간의 기술과 재능으로 만들어진 발명품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절부절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신약전서를 펴 보면 이러한 말씀을 접하게 된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The Character of Jesus [1908], 7, 11, 15-16)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함께 살고자 선택한 사람에게서 일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러러보고 닮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 지속적인 평안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 때 어떤 주제가 가치 있을까요?

“신약전서의 저자들은 ..... [예수님의] 키나 입으신 옷, 또는 사시던 집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공소에서 일하셨으며, 삼 년간 가르치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 신약전서는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초점을 [그분께] 돌리게 하려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의 기록이다.”(The Character of Jesus, 21~22)

구주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는 특히 현재 우리 시대에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씩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25~30절).

인류의 오래된 적은 가라지를 멀리, 그리고 널리 퍼트리기 위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가라지가 우리 가정의 신성한 영역에까지 침입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사악함과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서 그것들을 뽑아낼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적인 것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발명한 바로 그 장치로, 전선과 방송을 통해 들어옵니다. 밀과 가라지는 가까이에서 함께 자랍니다. 청지기는 온 힘을 다해 선한 것을 양육하고, 그것이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가라지가 눈이나 귀에 매력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주님, 구주의 소중한 복음을 기초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문경의 니파이후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이는 보라, 거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니파이후서 32:5)

세상의 소음이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압도하여 짓누르는 것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직면하게 될 사건들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 우리의 과제는 주님께서 앞으로 틀림없이 닥치게 되리라 말씀해 주신 사건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가족의 해체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슬픔과 절망뿐이라는 것을 근심에 찬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사회와 영원한 세상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가족 가치관이 쇠퇴하면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기에, 이 필멸의 삶을 사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모범으로써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의로운 모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압력에 굳건히 맞서기 위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의로운 가족을 통해 오며, 또한 의로운 가족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르침은 관심을 기울이는 의로운 아버지와 어머니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비헝클리 회장의 다음 인용문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가정으로 만드는 여성들은 거대한 군대의 사령관이나 대기업의 회장보다 훨씬 더 큰 공헌을 이 사회에 하고 있는 셈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이모나 누이가 친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감히 어느 누가 가격표를 붙일 수 있겠는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고 미래의 자손들을 키워 내는 여성들의 영향력은 재단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법이다. 지금 세대의 여성들이 내리는 결정의 영향력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의 어머니들이야말로 가정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와 가장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위대한 원칙[2000], 228쪽)

이제 우리 삶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축복을 주고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직접 가족 기도와 매일 경전 읽기, 매주 가정의 밤을 이끄는 일을 주관합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이 함께 보낼 휴가 여행과 가족 야유회 계획을 도움으로써 가족의 전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들에 대한 추억은 자녀들에게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일대일로 시간을 보내며 복음 원리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아들딸에게 일의 가치를 가르치고 삶에서 합당한 목표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아버지는 복음과 관련하여 충실한 봉사의 모범을 보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 성스러운 부름, 곧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름에서 결코 해임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래전에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메시지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동영상 상영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스테이크 대회의 임무 지명을 받은 우리는 교회 전역을 방문하는 동안 그 영상에 매우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외워서 거의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은 해롤드 비 리 회장이 해설을 하셨는데, 그분 따님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가정의 어머니는 아주 바쁘게 몇 가지 과일 병조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과일을 손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과일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어린 두 아들이 부엌에 나타나더니 엄마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그 어머니는 재빨리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너희끼리 기도해. 엄마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두 아들 중 큰아이가 꼼짝 않고 서서 물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중요해요? 기도예요, 과일이에요?”(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43쪽 참조)

우리는 자녀들이 어린 시기에 때때로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르침의 기회를 여러 상황에서 발견합니다. 당연히, 기도가 과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부모가 되려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칠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살아온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충실하면서도 헌신적인 부모의 인도하는 손길이 더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자신들보다는 더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라며 가족들을 신앙과 용기로 키울 곳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부모들의 위대하고

고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연한 정신을 똑같이 받아들여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그와 같은 희생 정신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의 가르침에 훨씬 더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히라만서 5:12)

우리가 지속적인 평안을 찾고 영원한 가족 단위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라]”(이사야 7:15)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선택과 결정에 관한 몇 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변호사로 일했는데 제 회사가 그 당시 공휴일 TV 특집 프로그램인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sup>1</sup>의 제작사에서 법률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찰스 슐츠와 그가 만든 단편 만화 피너츠(Peanuts)의 팬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찰리 브라운, 루시, 스누피 등의 멋진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만화 연작 중 하나에는 루시가 나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만화에서 찰리 브라운의 야구 팀은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우익수로 뛰고 있었는데, 높이 뜬 공이 그녀 쪽을 향했습니다. 9회말 만루 상황이었어서, 루시가 공을 잡는다면 루시의 팀이 이기고, 떨어뜨린다면 상대팀이 이길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화에서만 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이 내려오는 동안 팀 전체가 루시를 에워쌌던 것입니다. 루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공을 잡으면 영웅이 되고 잡지 못하면 놀림감이 되겠지.’

공은 낙하하고, 팀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루시는 공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찰리 브라운은 질렸다는 듯 글러브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때 루시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걱정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그 공을 잡으라는 거야?”

사실 루시는 여러 해 동안 날아오는 공을 수도 없이 놓쳐 왔고 그날도 그런 경우 중 하나였던 것인데, 그때마다 그녀는 매번 새로운 변명을 해 댔습니다.<sup>2</sup> 루시의 변명은 언제나 익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화였으며, 공을 잡지 못한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성역을 베푸시며 자주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sup>3</sup> 그에 말맞추어, 오늘 저녁 저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합리화를 초월하라는 권고를 드리려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해야]”<sup>4</sup>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탄이 새롭고도 교활한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들쭉이는 우리 시대에는 특히 우리 스스로 공언하는 인생 목표와 목적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신중하고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분명하게 지키고 성스러운 성약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합리화는 성전 엔다우먼트, 합당한 선교 사업, 성전 결혼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에 우리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에 대한 신념을 공언하면서도 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상의 행위를 경시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sup>5</sup>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의 목표가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젊은이들은 데이트조차 하지 않습니다. 독신 남성 여러분, 적절한 연령과 성숙기가 지나면, 독신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런 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 생활이 *더 불편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디, 성전 결혼이라는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영적 활동과 사교 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여”<sup>6</sup>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널리 용인되는 세상이지만, 그런 논법은 신앙을 나타내는 것도, 현대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것도 아니며, 정통 교리와도 모순됩니다.

저는 최근에 멋진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선교 사업을 하고, 학업을 계속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고, 충실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에 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니 그가 하는 행위와 선택이 그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로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어 하고 선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심각한 범법은 피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매일 하는 행동은 그가 겪게 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적 도전에 대비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sup>7</sup> 그는 근면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며, 학업이나 세미나리에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참석했으나 몰몬경은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비디오 게임과 소셜 미디어에 쏟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교 사업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 위해 합당하게 행동하고 진지하게 준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결심해 주십시오.

저는 인생을 좌우하는 굵직한 결정뿐만 아니라 중간쯤 되는 것들, 즉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적인 세상과 평범해 보이는 결정들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는 절제와 균형, 특히 지혜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화를 뛰어 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와 균형, 지혜가 필요한 좋은 예로는 인터넷 사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선교 사업을 하고, 신권 책임을 보조하고,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위해 소중한 조상들을 찾는 등 많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큼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또한 외설물과 온라인상의 학대, 익명으로 떠도는 소문을 포함하여 사악한 것을 대량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sup>8</sup> 그리고 인터넷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일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랜들 엘리트 형제님이 가르치셨듯이 인터넷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고 ……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하찮은 일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sup>9</sup>

의로움에 반대하고 주의를 흐트리게 하는 것들은 인터넷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들은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동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sup>10</sup> 우리는 “재미와 놀이”에 대한 광적인 묘사와 부도덕하고 역기능적인 삶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행위로 표현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최근에 회원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고 경고하셨습니다.<sup>11</sup> 선구자적인 저명한 사상가 아서 시 브룩스는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우리 삶의 밝은 면은 세세히



알리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힘들었던 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때로 과장하거나 허위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공유한 뒤, “소셜 미디어 ‘친구들’의 거의 완벽한 …… 가짜 삶”에 시간을 소모합니다. 브룩스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의 시간 일부를 자신이 실제보다 더 행복한 척하는 데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 보이는가를 알아보는 데 소비한다면, 비참해지는 기분에 젖어 드는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sup>12</sup>

때로는 우리가 하찮은 어리석음과 무의미한 소음, 끊임없는 논쟁으로 익사해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소리를 낮추고 실체를 검사해 보면, 의로운 목표들을 영원히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아버지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하게 해 달라고 조르는 자녀들에게 현명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것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

크든 작든 회복된 복음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과 보호를 잃게 되며 흔히 죄에 빠지거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어리석음<sup>13</sup>과 “모든 새로운 것”에 사로잡히는 것을 특히 염려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진리와 지식을 장려하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지식, 사회적 관행이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수적인 역할로부터 동떨어져 있을 때에는 사회의 분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sup>14</sup> 우리 시대에 여러 분야, 특히 과학과 통신 분야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기본 가치들은 쇠퇴했으며 전반적인 행복과 복지는 감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텐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현상인 참된 지혜의 부재와 지적 허세를 알아보았습니다.<sup>15</sup>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텐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sup>16</sup>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담긴 종교적 성격을 깨닫자 군중의 일부는 그를 조롱했으며, 그 외 사람들은 “네 말을 다시 들겠다”<sup>17</sup>는 말로 사실상 그의 이야기를 묵살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성공도 거두지 못한 채 아텐을 떠났습니다. 딘 프레데릭 파라는 그 방문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아텐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아텐 사람들에게 어떤 서한도 보내지 않았으며, 종종 아텐 주변을 지나가더라도 결코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sup>18</sup>

저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영감 어린 메시지가 선택과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sup>19</sup> 많은 선택이 본질적으로 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가장 좋은 선택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시도들조차도, 그것이 가장 좋은 목표들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게 하지는 않는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십 대 시절에 부친과 함께 잊지 못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이들이 직업과 가족 부양 등과 같은 중요한 장기 목표들에 충분히 집중하지도, 준비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공부와 예비 업무 경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권하신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토론회와 학생회 같은 과외 활동이 저의 중요한 목표 몇 가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리라는 점은 인정하셨지만, 제가 미식축구, 농구, 야구, 육상경기에 참가하느라 보낸 엄청난 시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확신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운동경기가 힘과 지구력과 단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셨지만, 한 가지 운동경기에 집중하면서 좀 더 짧은 시간을 쓰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저에게 운동경기는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지역에서 명성을 쌓는 몇몇 운동경기에 치중한 나머지 더 중요한 장기 목표를 희생할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저는 루시의 야구 일화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공 잡는 일 대신 외교 정책을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제 아버지와 루시의 팀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운동경기를 매우 좋아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경기를 놓친다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충고에 따라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간의 운동경기는 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미식축구 감독님께서 저에게 스탠퍼드 대학교 미식축구 감독이 멀린 올슨과 저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알려 주셨습니다. 젊은 분들은 멀린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을 통틀어서도 인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수비수로 로건 고등학교 소속이었는데, 저도 같은 팀에서 쿼터백과 세이프티(미식축구 포지션 이름-웁긴이)로 뛰었고, 킥오프 리턴과 펀트 리턴(미식축구 작전-웁긴이)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당시에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미식축구 팀에서 멀린을 영입하려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멀린은 전미 최고의 인테리어 라인맨으로 뽑혀 아웃랜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미 미식축구연맹의 선수 선발에서 세 번째로 지명을 받았으며, 놀랍게도 프로 볼(pro bowl: 미식축구경기. 슈퍼볼이 끝난 후, 각 컨퍼런스의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해 경기를 펼친다.-웁긴이)에 연이어 14번이나 출전했습니다. 그는 1982년에 프로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 입회되었습니다.<sup>21</sup>

스탠퍼드 대학교 감독과의 점심식사는 유타 주 로건에 있는 블루버드 레스토랑에서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눈 후, 그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멀린에게만 이야기하고 저는 무시했습니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처음으로 그는 저에게로 몸을 돌렸으나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스탠퍼드를 선택해서 저 친구를 데려오고자 한다면 저 친구 성적이 아주 좋아야 하네. 그러면 주선을 해 줄 수도 있지.” 그 일로 저는 아버지의 현명한 권고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의 취지는 운동경기나 인터넷, 그밖에 기타 젊은이들이 즐기는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절제와 균형, 지혜가 요구되는 활동들입니다. 현명하게 이용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소를 막론한 여러분 모두에게 목표와 목적을 다시 점검해 보고 좀 더 절제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하시도록 권합니다. 우리의 일상 행위와 선택은 우리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합리화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우리의 성약에 일치하는 선택들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sup>21</sup>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그 공에서 시선을 떼거나 공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sup>22</sup>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백성입니다. 훌륭한 유머 감각에 감탄하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격의 없이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중대한 목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보를 제한하는 합리화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몹시 해롭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감소시킨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비극입니다.

신권 소유자로 이루어진 단계로서 우리의 행위가 구주를 섬기는 이에게 요구되는 고귀한 목적들에 일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 것이 해의 왕국과 달의 왕국을 나누는 커다란 시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sup>23</sup>

우리는 그 분기점에서 해의 왕국 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속죄의 실재성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 마음을 다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Lee Mendelson-Bill Melendez Production TV Specials.
2. 자신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토성의 달에서부터 자신의 글러브에 있을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을 걱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루시는 늘 공을 떨어뜨린 일을 합리화했다.
3. “Decisions Determine Destiny,” *Pathways to Perfection: Discourses of Thomas S. Monson* (1973)에서 chapter 8, 57-65 참조.
4. 이사야 7:15.
5. “선을 행하는 것이 그걸 아는 것만큼 쉽다면, 작은 예배당은 큰 교회가 되었을 것이며 가난한 자들의 오두막은 제왕들의 궁전이 되었을 것이다.”(월리엄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제1막 제2장, 12~14행)
6. 교리와 성약 58:27 참조.
7. *선교사 생활에 적용함*(소책자, 2013), 23~49 참조.
8. Stephanie Rosenbloom, “Dealing with Digital Cruelty,” *New York Times*, Aug. 24, 2014, SR1 참조.
9. 랜들 엘 리드, “선택된 세대, 선택의 세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6쪽.
10. 교리와 성약 45:26 참조.
11. David A. Bednar, “To Sweep the Earth as with a Flood” (speech delivered at BYU Campus Education Week, Aug. 19, 2014) 참조;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to-sweep-the-earth-as-with-a-flood 참조.
12. Arthur C. Brooks, “Love People, Not Pleasure,” *New York Times*, July 20, 2014, SR1.
13. 애석하게도 우리 시대에 증가하는 오락의 한 가지는 순전한 우매함이다. 구주께서는 인간을 더럽힐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열거하실 때 어리석음도 포함시키셨다.(마가복음 7:22 참조)
14. 이 일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뿐만 아니라 물론 중세 시대의 문명 사회에서도 일어났다.
15. Frederic W. Farrar, *The Life and Work of St. Paul* (1898), 302 참조. 몇몇 사람들이 이교도 세계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묘사한 경쟁 집단인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학파를 포함하여 온갖 부류의 철학자들이 있었다. 또한 쿠엔틴 일크, “정도를 지나쳐”,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20~24쪽 참조.
16. 사도행전 17:21.
17. 사도행전 17:32.
18. Farrar, *The Life and Work of St. Paul*, 312.
19. 멀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108쪽 참조.
20. 멀린 올슨은 명예의 전당 미식축구 선수이자 배우이며 NBC 미국미식축구연맹 경기의 해설위원이었다. 유타 주립대의 미식축구 선수로서 아웃랜드 트로피를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램스의 프로 선수로도 활약했다. 마이클 랜덴과 함께 TV 드라마 ‘초원의 집’에서 조나선 가비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TV 프로그램인 ‘내일은 태양’에서도 역할을 맡았었다. 멀린은 현재 고인이며(2010년 3월 11일), 우리는 그를 무척 그리워한다.
21. 교리와 성약 76:5 참조.
22. 엘마서 34:32 참조.
23. 교리와 성약 76:79.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모범과 신권 봉사를 보며 끊임없이 영감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 정원회 고문은 집사들에게 “몬슨 회장의 어떤 면이 가장 존경스럽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한 집사는 몬슨 회장이 어린 시절에 가난한 친구에게 장난감을 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다른 집사 한 명은 몬슨 회장이 와드의 홀로되신 자매님들을 돌보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집사는 몬슨 회장이 아주 젊은 나이에 사도로 부름받으셨고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회장에 대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강한 간증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선지자의 특별한 간증과 영의 속삭임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결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몬슨 회장은 어떤 경험을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 온전히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개인적인 간증을 키우라고 권유하십니다. 이 연단에서 몇 해 전에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세력[에] …… 강하게 맞서려면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열두 살이든 백열두 살이든, 또는 그 사이 어떤 나이이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sup>1</sup>

오늘 저녁, 제 말씀은 백열두 살보다는 열두 살에 가까운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다루려 합니다. 몬슨 회장의 말씀에 부응하여,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참됨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간증이 정말로 자기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몬슨 회장의 말씀을 또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와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여러분을 [주위의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리라] 믿습니다. …… 이런 간증이 아직 없는 분들은 간증을 얻는 데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sup>2</sup>

##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sup>3</sup>라고 말했던 청년 용사들처럼, 시작은 타인의 간증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더 쌓아 올려야 합니다. 복음에 따르는 삶을 굳건히 하기 위해 자신의 간증을 열고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엘마처럼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아노라]”<sup>4</sup>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것의 확실함을 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엘마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노라].”<sup>5</sup>

## 나의 아버지가 본 것들을 보기 원하나이다

엘마처럼 니파이도 스스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여러 영적 경험에 대해 들은 니파이는 부친이 아는 것을 자신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에 대해 주리고 목말라 하며



추구했습니다. 니파이는 “몹시 어렸지만, ……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습니다.]”<sup>6</sup>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sup>7</sup> 갈망했습니다.

니파이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다가 “영에 [이끌려] ……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영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파이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본 것들을 보기 원하나이다[.]”<sup>8</sup> 마음으로 믿고 부지런히 노력했기에, 니파이는 그 축복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에 달리심을 목격했고, 마지막 시대에 있을 몰몬경의 출현과 복음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의 결과였습니다.<sup>9</sup>

니파이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곧이어 처하게 될 역경과 도전에 맞설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기에 그는 가족들이 생활고와 싸우는 중에서도 확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니파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 하나님께 구하라

니파이와 비슷하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몹시 어[린]” 시절에 영적 진리에 대해 “마음[으로] 진지한 묵상에 잠[겼습니다.]” 당시 조셉은 종교에 대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가 옳은지 알고 싶었습니다.<sup>10</sup> 그는 성경에 나오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하나님께 구하라”<sup>11</sup>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답을 찾고자 스스로 이를 실천했습니다. 1820년 어느 아름다운 봄날 아침에 그는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특별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시현이 조셉에게 펼쳐졌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셉의 경험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얻거나 키우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으셨습니까? 조셉은 마음을 꿰뚫는 경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러운 시현과 잇따른 모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 농장에서 일하는 열네 살 소년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회원들은 종종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간증은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선물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얻는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배우고 행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 영혼에 속삭이는 성신의 증거입니다.

간증은 마치 전등 스위치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이 켜지거나 꺼지는 것처럼, 간증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한쪽이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간증은 여러 성장 단계를 거쳐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는 미국 서부의 레드우드국립공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 아래에서 보면 한 그루 한 그루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이와 같습니다. 시작은 한 번의 영적 경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고 빈번한 영적인 경험이 더해지면서 간증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선지자 엘마가 간증을 키우는 법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설명하면서 씨앗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과정을 언급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이라면, 너희가 너희의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내어 버[리지 아니할진대] ……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은 너희가 느낄 때에,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이것은 좋은 씨앗임에, 곧 그 말씀은 선함에 틀림없도다. 이는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 하리라.”<sup>12</sup>

대개 간증의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밝히며 확신을 주는 성스러운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증거를 얻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놀라운 느낌이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작은 새싹이 땅을 뚫고 나왔다고 해서 레드우드(일명 미국삼나무—울긴이)를 키우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간증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받은 이 영적인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면,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영과 함께하는 경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느낌은 희미해지고 간증은 작아질 것입니다. 엘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보라 그것은 아무 뿌리도 얻지 못하리니, 태양의 열기가 와서 그것을 태우면, 그것이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고, 너희는 이를 뽑아 내버리느니라.”<sup>13</sup>

대부분 우리의 간증은 마치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꾸고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랄 것입니다. 엘마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신앙으로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꾼다면, 참으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때 이를 가꾼다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리니, 보라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리라.”<sup>14</sup>

###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제 간증은 물론경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싹텄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제가 읽은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성신이 제 영혼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초기에 얻은 이 간증은 제가 다른 여러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대로, “물론경이 참됨을 알게 되면, 조셉 스미스가 진실로 선지자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 이 후기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sup>15</sup> 그날 이후로 저는 성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성스러운 경험을 몇 번이고 더 했습니다. 저도 엘마와 같이 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복음의 참됨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거나 재확인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엘마나 니파이나 어린 조셉 스미스와 같은 신앙을 행사하여 자신만의 간증을 얻고 키워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그 어린 집사처럼 저도 몬슨 회장님의 간증 때문에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간증은 우뚝 솟은 거대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몬슨 회장님의 간증도 오랜 시간 성장과 발전을 거쳐야 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자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신권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배우고 스스로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2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6~67쪽.
3. 엘마서 56:48.
4. 엘마서 5:46.
5. 엘마서 5:45~46.
6. 니파이전서 2:16.
7. 니파이전서 10:17.
8. 니파이전서 11:1~3.
9. 니파이전서 11~14장 참조.
10. 조셉 스미스—역사 1:8~10 참조.
11. 야고보서 1:5.
12. 엘마서 32:28.
13. 엘마서 32:38.
14. 엘마서 32:41.
15.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7쪽.



딘 엠 데이비스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 금식의 법: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개인적인 책임

구주의 제자로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신권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대업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 과학, 기술 분야의 기적적인 발전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큰 고통과 괴로움의 증거도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에 더하여 홍수, 화재, 지진, 질병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자녀들의 복리를 파악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능한 때와 가능한 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교회의 비상 자원을 제공합니다. 한 예로, 작년 11월에 태풍 하이옌이 섬나라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5등급 태풍인 하이옌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고 재해를 일으켰습니다. 도시들이 통째로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채의 가옥이 심하게 파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와 같은 기본 설비 또한 작동이 멈췄습니다.

이 재난이 발생한 직후, 교회는 곧바로 구호 물자를 준비했습니다. 필리핀의 교회 회원들은 음식과 식수, 의복, 위생용품을 회원과 비회원들에게 골고루 조달하며 힘을 모아 형제 자매들을 도왔습니다.



가능한 때와 가능한 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교회의 비상 자원을 제공합니다.

교회 집회소는 수천 명의 이재민들을 위한 피신처가 되었습니다. 지역 회장단과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다수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현지 신권 지도자들의 지도로 모든 회원의 상황과 안전 상태가 파악됐습니다. 회원들이 다시금 적절한 생활 여건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감에 따른 계획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목조 건물인 그들의 은신처와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상분배에 불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원들은 훈련을 받은 후에 먼저는 자신을 위해,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한 가지 축복은 회원들이 목재를 다루고, 배관 공사를 하고, 기타 건축 기술을 익혔기에 재건이 시작된 인근 도시와 마을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인 복음 원리이자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상 성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sup>1</sup>

우리 시대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승영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신성하게 제정된 교회의 네 가지 책임 중 하나입니다.<sup>2</sup>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현세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모두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교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봉사와 더불어 신권 권세를 통해 집행하는 교회의 공식 복지가 포함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주님의 계획은 금식의 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금식과 금식 헌금이라는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sup>3</sup>

구주의 제자로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매달 금식하고, 즉 24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금하고, 최소 그 음식 값에 해당하는 금식 헌금을 교회에 냈으므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하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sup>4</sup>

그런 후 이사야는 금식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리]”<sup>5</sup>

이 성구에 대해 해럴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에서] 오는 크나큰 축복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이 성구에서 주님은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금식이 왜 존재하며 금식을 통해 어떤 축복들이 오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을 분석해 보면, 왜 주께서 우리에게 금식 헌금을 낼 것을 바라시는지, 또 왜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금식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리 회장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주님을 불렀으나 응답이 오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원합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장차 그런 날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더욱더 필요할 날들이, 주님의 심판이 온 땅에 쏟아져 내릴 날들이 올 것입니다.”<sup>6</sup>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그러한 원리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간증을 다음과 같이 나눠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참여했던 교회 회원 중 어느 누구도 그 경험을 잊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면, 검소, 자립,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sup>7</sup>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성약을 맺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충실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금식의 법만큼 지키기 쉽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율법이나 계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식을 하고 정직한 금식 헌금을 낼 때 우리는 그 음식 비용을 주님의 창고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했을 만한 금액 이상의 금전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특별한 축복들을 약속받습니다.

금식의 법은 모든 교회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금식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금식의 법을 이해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면 한 끼부터 시작하여 두 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독신,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기도로 금식을 시작하고, 금식하는 동안 주님의 축복과 힘을 구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 헌금을







주님의 대리인인 감독님께 드릴 때 금식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됩니다.

감독님 여러분, 여러분은 와드에서 복지를 지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찾고 돌볼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상호부조회 회장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이 스스로를 돕고 자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식 헌금을 일시적 지원 및 친척과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도움에 보충을 하는 정도로서 신중하게 사용하여 회원들의 현재적 및 영적 필요를 돌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권 열쇠들과 분별력을 행사할 때, 여러분은 금식 헌금의 올바른 사용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지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 여러분, 여러분은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 열쇠와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독님과 함께 일하며, 정원회 회원들에게 신권 의무에 대해 가르치고, 교회 회원들에게 금식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회원들의 집을 찾아가는 의무에 관해 가르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의 신권 책임을 영화롭게 하고 이 기회를 모든 교회 회원에게 제공할 때, 여러분은 약속된

금식의 축복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도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영이 완약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회원들이 금식 헌금을 건도록 체계를 세우는 감독은 이 거룩한 책임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sup>8</sup>

감독 여러분, 지역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집마다 방문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조언을 고려하고 여러분 와드의 아론 신권 형제들이 금식 헌금을 걷는 일에 참여하여 그들의 신권을 영화롭게 할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영감을 구하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제3니파이 27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sup>9</sup>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닐 것이고 더욱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구주의 성역이었습니다. 그 일은 구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들어올리십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 각자가 더욱더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고, 금식의 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후한 금식 헌금을 낼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충실하게 돌보는 것이 영적인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하는 것임을 겸손히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신명기 15:11.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2.2 참조.
3. 지침서 제2권, 6.1.2.
4. 이사야 58:6-7.
5. 이사야 58:8-11.
6. Harold B. Lee, “Listen, and Obey” (Welfare Agricultural Meeting, Apr. 3, 1971), copy of typescript, 14,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7.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리야호나, 2014년 9월호, 4쪽.
8. 토마스 에스 몬슨, 감리 감독단과 함께한 모임에서, Feb. 28, 2014.
9. 제3니파이 27:27.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주여, 내니이까?”

우리는 교만과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여, 내니이까?” 하고 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필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날 저녁,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시기 전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빵을 드시던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불안과 깊은 슬픔을 가득 안겨 주었을 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입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 [주여, 내니이까]” 하고 여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도 주님께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속으로 ‘존슨 형제를 말씀하시는 걸 거야. 난 항상 그가 미심쩍었어.’ 또는 ‘이 자리에 브라운 형제가 있어 다행이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란 말이야.’ 하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옛 제자들처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예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까요?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이 단순한 말 속에 지혜의 시작점이 들어 있으며 개인적인 개종과 영속적인 변화의 길이 있습니다.

### 민들레의 비유

저녁에 동네를 거닐며 산책을 즐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 이웃의 집을 지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웃집은 잔디를 완벽하게 다듬어 냈고, 언제나 꽃이 만발해 있었으며, 나무는 튼튼하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 이웃은 잔디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웃집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잔디밭 한 가운데 엄청난데 큰 노란 민들레 한 포기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기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웃이 왜 저걸 뽑지 않았을까? 못 본 걸까? 민들레가 씨를

퍼뜨려 수십 개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그는 이 단 한 포기의 민들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신경이 쓰였고,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냥 뽑아 버릴까? 아니면 제초제를 뿌릴까? 밤중에 몰래 와서 아무도 안 볼 때 뽑아 버릴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온통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는 수백 포기의 노란 민들레로 뒤덮인 자기 집 앞마당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 들보와 티

이 이야기에서 구주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들보와 티의 비유는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잘 진단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면서, 어째서 자신의 문제점은 때로 잘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얼굴에다 레몬 주스를 바르면 카메라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에 레몬 주스를 잔뜩 바르고 나가서 은행 두 곳을 털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그의 모습이 저녁 뉴스로 방송되었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보안 카메라에 잡힌 그의 모습을 보여 주자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레몬 주스를 얼굴에 발랐단 말이예요!” 그는 항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코넬 대학교의 한



과학자는 사람이 그토록 지독하게 자신의 무능을 모를 수 있다는 것에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두 명의 연구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다음, 스스로를 평가해 보게 했습니다. 수행을 잘 못한 학생일수록 자체 평가가 부정확했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보다 무려 다섯 배나 높게 자신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 연구는 수많은 방법으로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고,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공헌은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공헌은 과소평가합니다.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는 골프공을 얼마나 멀리 칠 수 있는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제보다도 더 크게 기여한다고 믿기 시작하면,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못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 영적 사각 지대

제 지인 중 한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통계치를 보여 주는 어느 와드에 살았습니다. 참석률도 높았고, 가정 복음 완수율도 높았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늘 품행이 바르고, 와드 저녁 식사는 훌륭한 음식으로 가득했으며, 회원들은 집회소 바닥에 음식을 흘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구기 종목 경기를 할 때도 전혀 언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제 친구 부부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후, 와드로 돌아온 이 부부는 봉사하러 떠나 있는 동안 11쌍의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그 와드는 지표상 표면적으로는 충실하고 강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회원들의 마음속과 삶에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상황이 이 와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복음 원리를 무시할 때 그런 참담하고 불필요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안으로는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점차 영적인 것에서 돌아서서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 갑니다.

한때 합당했던 신권 소유자들이 교회가 여자와 아이들에게나 좋지, 자신들에게는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바쁜 일정과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영과 가깝게 해 줄 헌신과 봉사의 행위를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와 자기 도취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경전 공부를 미루고, 교회 모임과 가정의 밤, 또는 정직한 십일조 및 헌금 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참 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이 단순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내니이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 복음”<sup>6</sup>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의 사랑하는 친구인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의 편리하고 안락한 것들에 얽매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초점을 두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sup>8</sup>.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박고 터를 굳[게] 다졌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행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고 창의성을 발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여러분의 열정을 그에 따라 생활하려는 숭고한 목적에 바칩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속성인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근면, [봉사]”<sup>10</sup>를 키우고자 하는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sup>11</sup>

### 삶을 진단하며

형제 여러분, 정도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약점, 한계, 두려움에 맞서는 일을 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점검할 때,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편견과 변명, 자신을 속이는 말 등을 이용하여 투과해서 봅니다.

그러나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능력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복리에 필수적입니다. 만일 우리의 약점과 단점이 그들 속에 가려 흐릿하다면,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이 그것들을 치유하여 강점으로 만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sup>12</sup>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양육하시고자 하는 신성한 잠재력 역시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순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기 반성을 할 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거울로, 경전과 연차 대회 말씀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대와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생각은 삼가고 그저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여, 내나이까”

우리는 상한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영원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꺼이 배우고 변화하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굳게 결의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됩니까?

배우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필시 교회가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하고 발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구주께 배우고 그분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늘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구주의 속죄에 따른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눈부신 영을 느낄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열매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소망과 절제력을 축복받을 것입니다.

### 선의 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명사들과 친분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에는 학식 있고, 조예가 깊고, 성공하고, 세상의 갈채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는 참으로 선하고 간교함이 없는 훌륭하고 축복된 영혼들을 볼 때 훨씬 더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진수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까? 복음은 선한 소식이며, 우리가 선하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sup>13</sup>

형제 여러분, 우리는 교만과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여, 내나이까” 하고 여쭙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의 응답이 “그렇단다, 내 아들아. 네가 개선해야 할 것이 많구나. 네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부족한 점을 인정하 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아들이 됨으로써 우리의 길을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구주의 복된 길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걷고자 하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할진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강하게 되[며], 높은 곳에서 오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sup>14</sup>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는, 놀랍고도 성취감을 주는 이 길의 첫 걸음은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주여, 내니이까”

이 모든 간증과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6:21~22; 강조체 추가.(홍정역 원문은 “Lord, is it I?”이다. 신약전서 개역 개정판 번역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이나 말씀에서 의도한 바와 원문의 의미에 맞도록 수정함—옮긴이)
2. 마태복음 7:3, 5.
3. Errol Morris, “The Anosognosic’s Dilemma: Something’s Wrong but You’ll Never Know What It Is,” *New York Times*, June 20, 2010; opinionator. blogs.nytimes.com/2010/06/20/the-anosognosics-dilemma-1. 참조.
4. Justin Kruger and David Dunning, “Unskilled and Unaware of It: How Difficulties in Recognizing One’s Own Incompetence Lead to Inflated Self-Assess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Dec. 1999, 1121-34. “Across 4 studies, the authors found that participants scoring in the bottom quartile on tests of humor, grammar, and logic grossly overestimated their test performance and ability. Although their test scores put them in the 12th percentile, they estimated themselves to be in the 62nd” (psycnet.apa.org/?&fa=main.doiLanding&doi=10.1037/0022-3514.77.6.1121에서 발췌) 참조.
5. Marshall Goldsmith, *What Got You Here Won’t Get You There* (2007), chapter 3 참조. 연구자가 세 명의 동료에게 회사의 성공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를 자체 평가하게 했을 때, 그들이 자체 평가한 기여도는 150퍼센트에 달했다.
6. 디모데전서 1:11.
7. 고린도후서 4:4.
8. 누가복음 12:34.
9. 에베소서 3:19
10. 교리와 성약 4:6.
11. 엘마서 17:11 참조.
12. 이터서 12:27 참조.
13. 야고보서 4:6, 10.
14. 교리와 성약 1:28.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예비 신권

신권 준비에서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훌륭한 가르침을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 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봉사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는 아론 신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경전에 “소신권”<sup>1</sup>으로 묘사된 신권을 소유한 이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돕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 신권은 예비 신권으로도 불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그 영광스러운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은 준비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과 필멸의 기회들을 경험하도록 이 지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경전에서 말하는 “예비적 상태”<sup>2</sup>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준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 곧 앰올레크가 말한 사망이 인류에게 임함을 보나니, 이는 현세적 사망이라. 그러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간이 주어졌나니, 그러므로 이 생은 시험의 상태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말한 바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있는, 저 끝없는 상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느니라.”<sup>3</sup>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필멸의 삶이 주어진 것처럼, 아론 신권으로 봉사하는 시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는 법을 배우도록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필멸의 삶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듯이, 주님은 또한 신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움 역시 주십니다.





저는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준비하는 것을 돕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이들과 아론 신권을 소유한 이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감독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남들의 동반자이자 교사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 대회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께 저의 찬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태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제 청소년 시절의 지부 회장님과 감독님에 대해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열두 살 때 미국 동부의 작은 지부에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부는 아주 작은 곳이었는데, 지부 회장인 제 아버지께서 한 중년 남성에게 교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 전까지는 제 형과 제가 유일한 아론 신권 소유자였습니다.

그 새로운 개종자는 아론 신권을 받았고, 이와 더불어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보살피라는 부름도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을 어제처럼 기억합니다. 그 새로운 개종자가 형과 저를 데리고 남편을 여윈 한 자매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낙엽들이 생각납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일을 할 때 신권 권능이 임했던 그 느낌을 확실히 기억하며, 나중에 저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봉사를 행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장래에 감독이 되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보살피고 예비 신권 소유자를 감리할 두 소년을 준비시키도록 새로운 개종자를 부른 지부 회장님에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가족이 유타에 있는 큰 와드로 이사했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집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갖춰진 아론 신권 정원회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론 신권 정원회를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으로 제사 정원회를 감리하는 감독님의 힘과 축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저를 제사 정원회 제1보조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바쁘셨고, 가르치도록 부를 수 있는 다른 재능 있는 형제님들도 계셨지만, 직접 제사 정원회를 가르치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감독님은 교실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감독님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저는 공과를 가르치시는 감독님의

어깨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한쪽 무릎에는 꼼꼼히 적은 쪽지가 담긴 작은 가죽 바인더를, 다른 쪽 무릎에는 표시된 성구가 많고 자주 사용해서 닳아 있는 경전을 각각 올려놓고 가끔씩 내려다보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들과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감동적으로 전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주님께서 예비 신권 소유자들을 위해 동반자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시는지를 언제나 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감독님은 역량 있는 보좌들이 있음에도, 당시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할, 몇몇 집을 방문할 텐데 동반자가 되어 주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을 여의고 음식도 없이 홀로 사는 자매님의 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감독님은 차를 세우신 후 경전을 펴고서, 왜 그 자매님을 생활력이 있는 분인 것처럼 대했으며, 더 나아가 훗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대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한 형제님을 방문했습니다. 감독님은 그 형제님에게 성도들에게로 돌아오라고

권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밍살스럽고 반항적인, 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감독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 우리는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그 부모는 우리를 맞이하도록 두 어린 딸을 문간에 내보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방충망을 통해 부모님이 주무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10분 이상을 그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함께 웃고, 소녀들의 착한 마음과 용기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걸어나올 때, 감독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방문이었구나. 저 아이들은 우리와 만날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거다.”

선임 신권 동반자가 줄 수 있는 축복 중 두 가지는 바로 신뢰와 보살피는 모범입니다. 저는 제 아들보다 훨씬 더 신권 경험이 많은 가정 복음 교사가 제 아들의 동반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반자는 두 번이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고, 그밖에 다른 지도자 직분에서도 봉사한 분이었습니다.

그 경험 많은 신권 지도자는 담당하는 가족을 방문하기 전에 저희 집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들이 나눌 대화를 들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모임을 시작한 그 선임 동반자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회개를 권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전하면 그 가족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 가족이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형제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아들의 눈에 어린 두려움이 생각납니다. 제 아들이 그 신뢰를 받아들였을 때 제가 느낀 그 행복한 기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감독님이 그 두 사람을 동반자로 짝지어 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임 동반자가 그 가족의 감정에 대해 안 것은 신중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미숙한 청소년에게 신뢰를 주어 나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와 안전을 부르짖게 한 것은 영감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 방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감독과 뿔기세텍 신권 소유자와 주님께서 한 소년을 신권 소유자로, 또한 언젠가 감독이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도 신권 준비에 관한 이런 성공 사례와 비슷한 경우를 보았거나, 아니면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감독, 동반자, 부모를 알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받게 될 신권 의무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목격해 보셨을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도와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교리대로 생활하는 모범입니다.

신권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와 성신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범을

잘 보여 주고 계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그 모든 교리에 관하여 가슴을 파고드는 가르침을 전해 오셨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분이 토론토 선교부를 감리하실 때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비회원 친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기에, 실천의 큰 동기를 얻습니다.

신권 준비에서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훌륭한 가르침을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전은 우리가 신권 준비를 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경전은 모범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엘마가 천사의 명에 따라 자신을 거부했던 사악한 앰몬아이하 백성에게 서둘러 돌아가서 가르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조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내라는 말씀과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그 감옥 속의 냉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sup>5</sup> 그런 성구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힘들게 여겨지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봉사하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신권 소유자에게 신뢰를 보이는 아버지나 감독, 또는 가정 복음 교육 선임 동반자는 그 소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에게서 과학과 종교에  
관한 짧은 논문을 하나 써 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과학자이자  
충실한 신권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논문을 써서 저에게 주시며 “이걸  
십이사도들에게 보내기 전에 네가 읽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제대로 썼는지 읽어  
보면 알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서른두 살이나 더 많으셨고, 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하고 지성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위대한 아버지이자 신권  
소유자에게 그런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신뢰한  
것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하는 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동반자 여러분이  
어린 신권 소유자들에게 그런 신뢰를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이 준비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년은 훗날  
의사들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자녀에게 병자  
축복을 주러 손을 얹을 때 오는 부드러운  
영감의 느낌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뢰는 여러 번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권 준비를 시키는  
일에서 거두는 성공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비례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가 어쩌면 성찬대에서

의식을 집행하면서 실수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로 그런 잘못을 공개적으로 교정해야 할  
때에는 그들이 분개할 수도 있고, 굴욕감을  
느끼거나 거부당하는 느낌마저 갖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다음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네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sup>6</sup>

신권 소유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교정이 필요할 때, “더 큰”이란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말은 이미 있는 사랑에  
더하여 더 큰 사랑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나타내 보이!”라는 말은 더 큰 것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신권 소유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분명 그들의 실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실수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사랑을 일찌감치, 그리고 꾸준히  
느끼게 해 주십시오. 실수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진정한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재력과 주님 앞에서의  
가치 면에서 소신권 소유자들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하면서 했던 다음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sup>7</sup>

아론 신권은 더 큰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됩니다.<sup>8</sup> 모든 신권 소유자의  
회장인 교회 회장님은 예비 신권 소유자들  
또한 감리하십니다. 그분이 여러 해에 걸쳐  
전하신 구조하라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회개의 복음과 침례를 가져다주라는  
계명에 완전히 들어맞습니다.

집사, 교사, 제사 정원회는 모든 정원회  
회원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합니다. 회장단은 정원회 회원들에게  
신앙과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합니다. 집사들은 경건함과 신앙으로 성찬을  
전달하며, 회원들은 그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할 때 속죄의 효력을 느끼며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와 제사들은 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동반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각 가정의 가장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미래의  
가정을 아버지의 신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신권으로 함께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그분의 교회로 오실 날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임을 간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주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중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84:26, 30; 107:14.
2. 앨마서 42:10, 13.
3. 앨마서 12:24.
4. 앨마서 8:14~18 참조.
5. 교리와 성약 122:9 참조.
6. 교리와 성약 121:43.
7. 교리와 성약 13:1.
8. 교리와 성약 107:14 참조.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파커



엘 톨 페리



러셀 웬 넬슨



델린 에이치 쿨슨



엠 러셀 메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 철심인 회장단



로버트 에이 킨스턴



엠 휘트니 톰페이튼



도널드 웬 한스톨름



리처드 에이 메이어즈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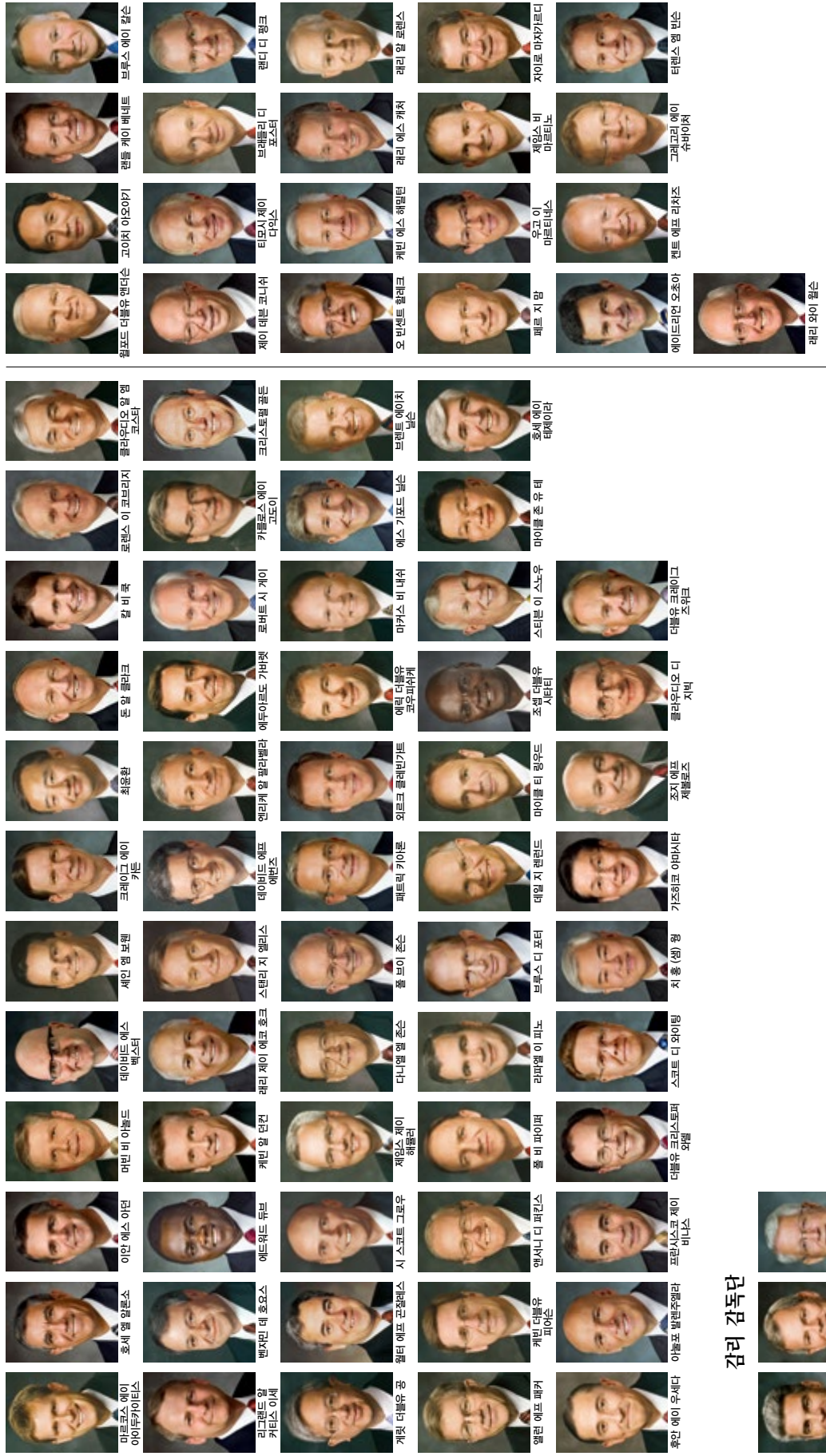


올리세스 쇼어레스



린 지 로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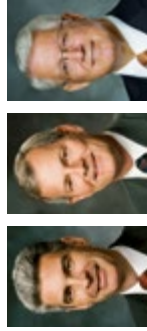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알파벳 순)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알파벳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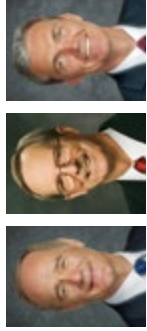


감리 감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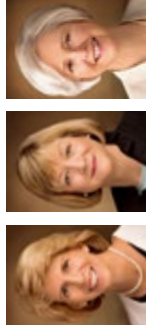
제임스 코세 제보좌  
 케리 이 스티븐스 감리 감독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주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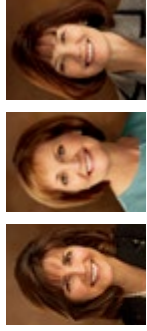
존 에스 테너 제보좌  
 래트 밀 콜리스터 회장  
 데란 지 뉴린트 제보좌

청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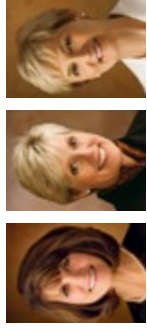
캐롤 에프 맥몽기 제보좌  
 보니 알 오스카스 회장  
 닐 에프 메리엇 제보좌

상용부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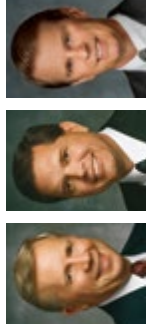
캐롤 앤 스티븐스 제보좌  
 린다 케이 버틀 회장  
 린다 에스 리브스 제보좌

초등학교



진 에이 스티븐스 제보좌  
 포츠메리 앤 워츨 회장  
 헤럴 에이 에스플린 제보좌

청남



데이비드 앤 맥 회장  
 테리 앤 김슨 제보좌  
 맨들 헬 리드 제보좌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미국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멕시코 쿠아우테목,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미국 조지아 피치트리 코너스, 브라질 카노아스, 파라과이 산로렌초, 미국 위스콘신 베로나, 아일랜드 워터포드의 회원과 선교사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무사히 본향으로 인도되기를

우리는 한결같은 방향 감각을 유지하며, 지혜롭고 올바른 행로를 계획하고 그 행로를 따라가기 위해 하늘을 바라봅니다.

**형** 제 여러분, 거대한 신권 조직으로서 우리는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곳곳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5년 전인 1939년 2월 14일,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국경일 축하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열광적인 연설과 환호하는 인파 속에 국가가 연주되고, 새 전함 비스마르크 호가 엘베 강으로 진수되었습니다. 가장 위력적인 군함이었던 그 배는 숨 막히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레이더로 조종되는 2연장 주포탑 안에 장착된 구경 380밀리미터짜리 함포는 제작 과정에 57,000장이 넘는 청사진이 소요되었고, 배 안에는 장장 45,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전기 회로가 깔렸으며,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 35,000톤에 달하는 방탄용 장갑판이 덮여 있었습니다. 외관이 장엄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며, 엄청난 화력을 갖춘 이 거함은 절대로 침몰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스마르크 호의 운명은 그로부터

2년이 넘는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1941년 5월 24일, 영국 해군의 가장 강력한 군함인 프린스오브웨일즈 호와 후드 호는 비스마르크 호와 독일 순양함 프린츠오이겐 호에 맞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비스마르크 호는 후드 호와 승무원 세 명을 제외한 1,400명을 대서양의 깊은 바다 속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남은 영국 군함인 프린스오브웨일즈 호는 심하게 파손된 채 돌아났습니다.

그 이후 사흘에 걸쳐 비스마르크 호는 다시 전투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영국 군함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거대한 비스마르크 호를 찾아 침몰시키려고 전투함 5척, 항공모함 2척, 순양함 11척, 구축함 21척을 집결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포탄이 연이어 발사되었지만 비스마르크 호에서 손상을 입은 부분은 표면뿐이었습니다. 그 배는 전혀 침몰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어뢰 한 발이 온 좋게 명중하여 비스마르크 호의 키를 고장 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수리를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함포 발사 준비도 되어 있었고 대원들도 제 위치에 있었지만 비스마르크 호는 천천히 빙글빙글 맴돌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력한 독일 공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 호는 안전하게 모항까지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된 항로로 나아갈 능력을 상실한 비스마르크 호는 위기를 모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키도, 도움도, 항구도 없는 신세가 되어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독일군 대원들이 허둥지둥 달아나자 영국 함포들이 불을 뿜어 댔고, 한때는 파괴할 수 없을 듯이 보였던 그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끓주린 대서양의 파도가 먼저 배 주위로 몰아치더니 그 독일 해군의 자존심을 삼켜 버렸습니다. 비스마르크 호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sup>1</sup>

우리 개개인은 비스마르크 호처럼 공학의 경이로운 산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제한적인 재능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가장 복잡한 기계를 만들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사고와 판단 능력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성한 은사이며 오로지 하나님만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배에 필수적인 키와 같은, 우리 여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주님의 등대는 우리 모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 곧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향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마치 키가

없는 배와 같아서 결코 모항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로를 계획하고, 돛을 펴며, 키를 제 위치에 놓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강력한 비스마르크 호가 그랬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감각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동력화하고, 힘의 방향을 정해주는 키가 없다면 터빈의 동력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은 쓸모가 없습니다. 키는 크기도 비교적 작고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 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다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뱃사람을 인도하시고자 해와 달, 그리고 하늘의 은하계에 있는 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을 때, 분명하게 표시된 지도를 주시며 바람직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가리켜 주십니다. 또한 우회로와 함정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길을 벗어나도록 꾀는 사람이나 여기저기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추어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와서 나를 따르라”<sup>2</sup>는 주님의 다정한 권유를 전하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며, 자기가 만든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둘러싼, 무척 매혹적으로 보이는 유혹에 너무나도 자주 굴복합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험난한 시대에 이 지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분쟁의 기류를 감지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음모가 국가의 안정을 파괴하고, 독재자들은 권력을 움켜쥐고 있으며, 사회의 각 계층은 끊임없이 억압당하고 기회를 빼앗겨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궤변이 우리 귓전에 메아리치고 죄악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모든 영화로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의 신권도 함께 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신권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그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신권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그 전에 멈추어 서서 그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순결을 유지하고 신권을 존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의로운 본보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sup>3</sup>고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 빛”<sup>4</sup>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의로운 모범을 보이면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네 분의 교회 회장님의 보좌로 봉사하신 엔 엘덴 태너 회장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산업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 일하실 때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의로움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태너 회장은 이런 영감에 찬 권고를 하셨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모범이 되십시오.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오.”

태너 회장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하도록 예비된 [하나님의] 선택된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신권과 권능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들의 삶에 좋게도 나쁘게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올 세대들도 그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sup>5</sup>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필멸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영원한 선장, 곧 위대하신 여호와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 손을 뻗어 하늘의 도움을 구합니다.

위로 손을 뻗지 않은 사람들 중 잘 알려진 예로,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가인이





있습니다. 크나큰 잠재력이 있었으나 의지가 약했던 가인은 탐욕과 질투, 불순종을 주체하지 못했으며,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을 안전과 승영으로 인도하는 개인적인 키를 망가뜨렸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대신 아래를 내려다본 가인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한 종이 간악한 왕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영감을 받아 왕을 위해 벽에 쓰인 글을 해석했습니다. 왕이 제시한 보상, 곧 왕의 옷과 금 사슬, 정치 권력에 대해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sup>6</sup> 다니엘에게 제시된 엄청난 부와 권력은 세상의 보상이었을 뿐, 하나님의 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충실함을 유지했습니다.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금지하는 금령이 선포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다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에는 그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sup>7</sup> 다니엘은 한결같은 길을 가기로 결심했기에 긴급한 순간에 하늘의 보호와 안전한 피난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한 한결같은 길을 간다면, 그러한 보호와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 속의 모래처럼 역사의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새로운 배역이 인생의 무대를 차지하고, 시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불길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탄은 구주를 따르는 이들을 파멸시키고자 지지치 않고 일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위력적인 비스마르크 호가 그랬듯 안전으로 이끄는 키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도 한결같은 방향 감각을 유지하며, 지혜롭고 올바른 행로를 계획하고 그 행로를 따라가기 위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심 어린 우리의 간청에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의 키는 비스마르크 호와는 달리 절대로 고장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항해에서 인생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기를 기원합니다. 죄악과 유혹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용기를 내고, 참되고 충실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온갖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사람과 대면했을 때 “내가 흔들릴 수 없었느니라”<sup>8</sup>라고 말한 니파이의 동생 야곱의 간증처럼 우리의 간증이 깊고 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우리의 항로를 인도하는 신앙의 키와 더불어 본향, 곧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주

1. Ludovic Kennedy, *Pursuit: The Chase and Sinking of the Bismarck* (1974) 참조.
2. 누가복음 18:22.
3. 디모데전서 4:12.
4. 빌립보서 2:15.
5. N. Eldon Tanner, “For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Ensign*, Nov. 1975, 74.
6. 다니엘 5:17.
7. 다니엘 6:23.
8. 야곱서 7:5.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계속되는 계시

인간의 판단과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개인적인 계시를 축복받고자 절실하게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선교부 회장이라면 힘겨워하는 선교사들을 복돋을 방법을 찾고자 간구할 것이고, 세계 어디에선가 전쟁 참사를 겪고 있는 부모라면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할지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할지 아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수많은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들은 주님을 도와 잃어버린 양을 구조할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주께서 자신을 통해 교회와 이 혼란에 빠진 세상에 무엇을 전하려 하시는지 알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판단과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힘든 시기에 단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시가 새롭게 흘러들어야 합니다. 단 한 차례의 섬광과 위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어린 소년이 그런 진리를 이해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는 자기 혼자서는 자신이 속할 교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은 조셉은 하나님께 여쭙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숲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분은 조셉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 조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끊임없이 주어지도록 성신을 불러오는 권능이 회복되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참된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으며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에 대한 계시, 선교부 회장은 선교부에 대한 계시,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에 대한 계시, 감독은 와드에 대한 계시,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계시, 그리고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sup>1</sup>

이 경이로운 계시의 과정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며 또한 계속됩니다. 리하이의 아들인 위대한 니파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니파이의 아버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니파이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리하이가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어서 그런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담긴 판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리하이의 아들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크나큰 위험을 감행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리하이가 아들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 그때 니파이가 한 용감한 대답을 우리는 자주 인용합니다.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sup>2</sup>

경전에는 그 말을 들은 리하이가 “심히 기뻐[했다]”<sup>3</sup>고 나옵니다. 리하이가





기뻐한 이유는 자신이 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을 니파이가 계시로 확증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니파이는 “가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리하이가 왜 “심히 기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하이가 기뻐한 이유는 니파이가 계시로 확증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십 대 자녀의 귀가 시간을 가족 규칙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어느 십 대 자녀가 그랬듯이, 얼마 전부터 떨어져 살게 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처럼 귀가 시간을 지킬 뿐 아니라 가정에서 배운 대로 안식일도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부모가 느끼는 기쁨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받는 계시는 자녀가 받는 개인적인 계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어머니도 분명 그런 계시의 원리를 이해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밤 늦게 귀가할 때면 뒷문을 소리 나지 않게 살며시 닫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방으로 가려면 어머니의 방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는 어머니 방 앞을 아무리 소리 죽여 살금살금 걸어도 이내 “헨리, 잠깐 들어오렴.” 하고 부르시는 나지막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서 주로 침대 끝에 걸터앉았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일상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들은 지금까지도

마치 제가 저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을 때 느끼는 그런 큰 힘으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께서 밤중에 저를 기다리시며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어머니가 축복사가 축복을 주기 전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축복사는 자신이 전하는 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 축복을 구하신 어머니의 기도는 제 머리 위로 응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의 세계로 가신 지도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간구대로, 제가 어머니의 권고에 담긴 하나님의 명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을 받았기에 그곳에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어머니께서 바라신 대로 가서 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계시의 기적을 교회의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들에게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계시와 마찬가지로, 그 계시의 가치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확증해 주는 계시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976년, 아이다호 주의 테튼 댐이 붕괴된 직후에 저는 그러한 계시가 주어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스테이크 회장을 통해 연속적으로 계시가 전달된 그 사례를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잃고 대피한 이재민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구호 작업을 총괄하라는 책임이 그 지역의 농부인 스테이크 회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참사 며칠 후, 제가 리스 대학의 한 강의실에 있을 때, 연방 재난관리국에서 간부 한 사람이 왔습니다. 감독들을 포함하여 현지의 타 종교 성직자들까지 모두 스테이크 회장님의 연락으로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 관리국 간부와 그의 수석 보좌관들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던 리스 대학의 캠퍼스에도 많은 생존자들이 보살핌을 받으며 대피해 있었기에 저도 그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 연방 재난관리국 대표가 일어서서 권위 있는 목소리로 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여섯 개의 필수 항목이 발표되자 스테이크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저희가 이미 다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연방 재난관리국 대표는 “저는 앉아서 좀 지켜보는 게 좋겠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보좌관들과 함께 감독 및 장로 정원회 회장들에게서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아 이행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민 가족들을 찾고 돕기 위해 그런 지시를 이행하면서 또 그들이 받은 영감을 따라 어떤 일을 했는지도 언급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그들은 모두 너무 지쳐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랑 말고는 내보일 수 있는 감정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감독들에게 몇 가지 마지막 지시를 전달한 뒤에 다음 날 아침 일찍 보고 모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방 재난관리국 간부는 보고 및 임무 지명 모임에 예정된 시각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 간부 가까이에서 있던 저는 그가 스테이크 회장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와 제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겪는 세계 곳곳에서 저도 그 간부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패커 회장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계시는 스테이크 회장들을 그들의 지혜와 능력 이상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스테이크 회장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신을 통해 불완전한 인간에게 내려진 것임을 확증해 주는 주님의 증거를 받습니다.

저는 영감받은 지도자들을 따르는 부름에서 봉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에는 장로 정원회 회장 보좌로 부름받은 바 있고, 후에는 두 분의 지방부 회장님과 교회 감리 감독의 보좌로, 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그리고 교회 회장님 두 분의 보좌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계시가 주어진 다음, 그분들을 따르는 이들도 계시로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지도자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개인적인 계시는 바란다고 해서 쉽게 오는 것이 아니며, 구한다고 해서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지침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네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sup>4</sup>

저는 이 성구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권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일로 어디를 가건,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이건 간에 저는 회원들에게서 이런 부탁을 듣습니다. “교회 본부로 돌아가시거든 부디 선지자에게 우리가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 주세요.”

그런 사랑은 유명인을 무작정 숭배하거나 동경할 때 품는 감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선지자가 주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다면 확증해 주는 계시를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시며, 여러분은 그 사랑을 느낍니다.

주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권고를 선지자를 통해 주실 때가 종종 있기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권고에 마음 상하도록 부추기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부름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신이 어떻게 확증해 주는 계시로써 온유한 마음에 영감을 주시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선지자의 명을 받아 멀리 떨어진 어느 소도시에서 사는 형제님에게 성스러운 인봉 권능을 부여하려 간 적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권능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열쇠는 주께서 선임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인봉 권능을 받았지만, 교회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그 권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솔트레이크에서 한참 떨어진 교회 집회소의 한 교실에서, 인봉 권능을 받도록 선지자께서 선택하신 한 형제님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 땅을 일구며 빈곤한 삶을 꾸려 온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곁에는 체구가 작은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도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고된 노동을 해 온 흔적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선지자께서 주신 말씀으로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지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닌 선지자로부터 권세와 책임을 위임받아 나는 그대에게 인봉 권능을 부여하노라.” 선지자의 성함과 그 형제님의 성함, 그리고 그가 인봉자로 봉사할 성전의 이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형제님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도 함께 울었습니다. 부부가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부인이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시며 마음이 행복하면서도 슬프다고 수줍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성전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지만, 몹시 영광스럽고 성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신뢰하셔서 택하셨으므로, 이제 자신은 남편과 함께 성전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글도 모르기 때문에 남편의 동반자로서 성전에 함께 있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이 지닌 영적인 힘이 크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성전에 있으면 남편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 자매님의 언어를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받는 교육 이상의 것을 그 자매님에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늘의 신뢰를 주셨음을 영의 은사로써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봉 권능을 부여하는 열쇠가 자신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손에 있으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누가 말해 주지 않았어도 그 자매님은 선지자가 자신의 남편을 위해 기도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름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자매님은 또한 남편이 집행하게 될 의식을 통해 사람들이 해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맺어지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sup>5</sup>라고 약속하신 것이 여전히 이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확신이 그 자매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그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인용했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으며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에 대한 계시, 선교부 회장은 선교부에 대한 계시,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에 대한 계시, 감독은 와드에 대한 계시,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계시, 그리고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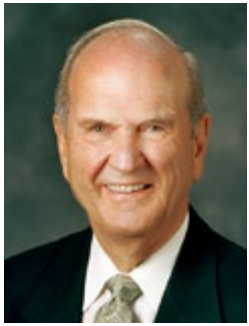
그 말씀이 참되다는 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신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계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날 그 선지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지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쥐고 계시고, 또한 행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대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히 인봉된 가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데 필요한 확증을 계시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보이드 케이 페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성도의 빛, 1974년 12월호, 36쪽.
2. 니파이전서 3:7.
3. 니파이전서 3:8.
4. 교리와 성약 121:45~46.
5. 마태복음 16:19.
6. 보이드 케이 페커, 성도의 빛, 1974년 12월호, 36쪽.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선지자를 지지하며

선지자를 지지하는 것은 선지자가 제시하는 우선순위를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아** 이어링 회장님, 교훈적이고 영감 어린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모두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님을 주님의 선지자이자 주님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찬송가,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지자를 지지하는 특권을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의 권고는 흠 없고 꾸밈없으며 개인적 야심과는 무관한, 지극히 참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진정으로 지지할 수 있을까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교회 회장이 되기 오래 전에 이런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원을 …… 지지하며, 그저 단순한 형태로 그 손을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과된 중요한 의무입니다.”<sup>2</sup>

선지자를 지지하기 위해 제가 한 아주 각별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서 1972년에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그분의 심장 절개 수술을 맡았습니다. 김볼 회장님께서는 매우 복잡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심부전증을 앓는 77세 환자에게 그런 복잡한 수술을 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수술을 추천하지 못하고 김볼 회장님과 제일회장단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김볼 회장님은 제일회장단의 권유라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발휘하여 그 수술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도 지도자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저는 무척 난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주님 덕분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능을 되찾은 김볼 회장님의 심장은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분이 언젠가 교회 회장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영의 증거를 받았습시다!<sup>3</sup>

그다음 일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불과 20개월 후, 김볼 회장님은 교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담대하고 용감한 지도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님,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 그리고 현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교회 회장으로 지지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에 담긴 뜻을 다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복의 성과 중 하나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말씀하기를 그치셨다는 근거 없는 오랜 믿음을 무너뜨린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사실과 동떨어진 믿음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아담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sup>4</sup>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신성과 지상 사명 및 성역을 증거합니다.<sup>5</sup>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로서 존경합니다. 아울러 그를 계승한 모든 분을 교회 회장으로 존경합니다.

선지자와 그 밖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데는<sup>6</sup> 만장일치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가진 어떤 자에 의해 성임되지 아니하였거나 또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과 교회의 머리된 자들에 의해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아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되지 아니하리라.”<sup>7</sup>

그래서 주님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경전의 경고를 따르려 분투할 때 확신과 신앙으로 입할 수 있는데,<sup>8</sup> 그것은 주님의 종인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sup>9</sup> 주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지도자가 합당한 권세를 통해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이든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이든 스스로 부름에 임명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투표로 선지자를 결정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음 말씀으로 그 점을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sup>10</sup> 여러분도 저도 어떤 부름에서든 교회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지지할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나이를 먹거나 장애를 입으면 직위나 업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선지자를 지지하는 것은 선지자가 제시하는 우선순위를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그런 지지는 맹세와 다름없는 표시로, 선지자의 부름을 우리에게 구속력이 미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회장이 되기 26년 전에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맺는 의무는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 제 갈 길을 조용히 가면서 주님의 선지자가 이 사업을 이끄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맺는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선한 이름을 옹호하고, 그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도록 지시하신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sup>11</sup>

살아 계신 주님께서 살아 있는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sup>12</sup> 주님은 교회에 관한 자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어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님을 교회 회장으로 지지하는 제안을 받은 다음, 그분과 제일회장단 보좌 및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열다섯 명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지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경륜의 시대에 남성에게 부여된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열다섯 명의 기록한 사도직 부름은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중대한 보호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sup>13</sup> 어떻게 영이 열다섯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만장일치에 이르게 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열다섯 명은 교육이나 직업적 배경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열다섯 명은 만장일치에 도달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전념을 다해 주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들이 기도의 본보기로 삼는 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sup>14</sup>

사도 직분에 가장 오래 봉사한 선임 사도는 감리자가 됩니다.<sup>15</sup> 이런 봉사 기간에 따른 선임 방식으로 교회 회장직에 오르는 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sup>16</sup> 이렇게 교회 회장은 주님의 인도에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고 원숙해지며 경험을 쌓고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조직하신 곳입니다. 주님은 준비와 대체 기능이 있는 놀라운 관리 방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방식으로, 노령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질병이 생기거나 업무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sup>17</sup>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과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임 지도자들은 언제나 평의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끊임없이 지도받습니다. 그들은 영의 속삭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웁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의 임종을 앞두고서, 그분의 제1보좌였던 고든 비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관리를 위해 제정하신 원리와 절차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이 아프거나

또는 그 직무를 충분히 행하지 못할 때, 교회의 제반 업무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영감과 계시를 받는 권리를 포함하여 교회의 관리와 예언의 은사의 행사에 대해 의심과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권의 열쇠를 갖도록 부름받아 성임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교회를 관리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며, 교리를 풀어 가르치며, 교회의 행사들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헝클리 회장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교회 회장이 아프거나 그 직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두 보좌가 있어 함께 제일회장단 평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들이 제일회장단의 매일매일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그러나 정책과 절차, 프로그램 또는 교리에 관한 주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합니다.”<sup>18</sup>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지 5년째 되는 해였던 지난 해에 몬슨 회장님은 사도로서 봉사해 온 50년의 세월을 돌아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나이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베냐민 왕의 말씀은 참 와 닿습니다. ‘…… 나는 너희 자신과 같이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니기 쉬운 자이나, 그럼에도 나는 …… 택함을 받고, 내 부친에 의해 성별되었으며, …… 비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아,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겼느니라.’(모사이아서 2:11)”

…… 건강이 악화되고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더라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봉사합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인도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제일회장단 평의회 및 십이사도 평의회 구성 체계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올바르게 인도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따르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탄 이 배의 키를 한시도 놓지 않으십니다.”<sup>19</sup>

몬슨 회장님, 그런 사실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평생에 걸쳐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교회 회원을 대신해 한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손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별된 노력을 기울여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게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합니다!]”<sup>20</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211쪽, 강조체 추가. 이 말씀은 스미스 회장이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던 1898년에 전한 말씀이다.

3. 자세한 내용은 Spencer J. Condie, Russell M. Nelson: *Father, Surgeon, Apostle* (2003), 153~156 참조.
4. 경전 안내서, "경륜의 시대" 참조.
5. 리하이(니파이전서1:19 참조), 니파이(니파이전서 11:31~33; 19:7~8 참조), 야람(야콥서 4:4~6 참조), 베나민(모사이아서 3:5~11, 15 참조), 아비아다이(모사이아서 15:1~9 참조), 엘마(엘마서 40:2 참조), 레이맨인 사무엘(힐라맨서 14:12 참조)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가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들은 구주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구주의 속죄 희생과 그 후에 일어날 그분의 부활을 보았다.
6. 지도자를 지지하는 원리는 주님 교회의 전체를 아우르는 기반이다. 부름에 성별되거나 신권 직분에 성임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
7. 교리와 성약 42:11.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일은 교회가 조직된 1830년 4월 6일과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받은 1836년 3월에 실시되었다. (*History of the Church*, 2:417 참조)
8. 물론경은 우리가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 경고한다. 물론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교만이고, 또 그것이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히 크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 일러 이르되, 어린 양의 열두 사도를 대적하여 싸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멸망이 이리하리라 하더라." (니파이전서 11:36)
9. 다니엘 9:10; 야모스 3:7; 교리와 성약 21:1, 4~5; 124:45~46 참조.
10. 요한복음 15:16. 신약개조 제5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인수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야 함을 믿는다."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엘버트 스미스* (2011), 64쪽; 강조체 추가. 이 인용문은 1919년에 조지 엘버트 스미스 장로가 전한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했다. 그는 1945년에 교회 회장이 되었다.
12. 교리와 성약 1:30, 38 참조.
13. 교리와 성약 107:27 참조.
14. 제3니파이 13:10; 또한 마태복음 6:10; 누가복음 11:2 참조.
15. 교회 회장이 서거하면 제일회장단이 해체되고 보좌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직분으로 돌아간다. 그런 후 십이사도 정원회는 제일회장단이 재구성될 때까지 교회를 감리한다. 사도의 관리 시기라 알려진 이 기간은 역사적으로 보아 4일부터 3년 반까지 다양하다.
16. 물론 이 계승 방식은 조셉 스미스의 부름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는 회복의 선지자이자 교회의 초대 회장으로 예임된 사람이었다. (니파이후서 3:6~22 참조; 또한 아브라함서 3:22~23 참조)
17. 우리는 주님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분이 택한 시간에 분향으로 부르실 수 있음을 안다.
18. 고든 비 헝클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54쪽; 또한 고든 비 헝클리, "주님은 출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5쪽 참조.
19. "Message from President Thomas S. Monson," *Church News*, Feb. 3, 2013, 9.
20.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찬송가* 25장.



캐럴 에프 맥콩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지자를 지지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 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자녀들이 당신의 행복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이름으로 행할 권능과 권세로 선지자를 성임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의의의 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지니는 무한한 권능을 증거합니다. 선지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열쇠와 구원 의식을 행할 권세를 지닙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때에 단 한 사람뿐"¹입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우리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몬슨 회장은 주님의 말씀을 밝히심으로써 이 교회 전체를 이끌고 인도합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교회 회장만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² 살아 있는 선지자와 관련하여 주님은 그분의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³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지자를 지지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몬슨 회장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그들은 교회 회장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할 권리와 권능, 권세가 있습니다."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들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경전이 되며,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⁵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⁶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⁷이 되시는 이 교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며, 우리는 의문에 대한 답을 잘못된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어떤 목소리를 따라야 할지 막막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sup>8</sup> 하나님은 그분의 성임된 종들을 통해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sup>9</sup>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완전함으로 향하는 성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살기 위해 애쓰던 과부에게서 우리는 선지자를 지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지시하였고, 과부가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착한 엘리야는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sup>10</sup>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sup>11</sup>

이 굶주린 어머니에게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부탁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충실한 종을 먹일 음식을 직접 마련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명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에게 가서 선지자를 먹이기 위해 가진 것을 희생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순종할 때 받는 축복 또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sup>12</sup> 주님은 과부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의로움과 영성이 결핍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지지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지지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뜻과 지혜, 그리고 주님이 정한 시간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불편하며 불유쾌하게 여겨질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선지자를 따르는 게 인기가 없고 정치적으로 맞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sup>13</sup>.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sup>14</sup>.

주님은 선지자의 권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에게 순종했기에 자신의 목숨과 나중에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약속대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sup>15</sup>

주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먹이실”<sup>16</sup>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만나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받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사는 법을 배웁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 그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분이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만드십니다. …… 모든 시대에서 주님은 위험이 닥친 순간에 필요한 인도를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곧 다가올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아가서 그분의 백성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sup>17</sup>

저는 월계반 교사님이 가르치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성약의 결혼 관계가 어떠한지 하는지를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저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신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일곱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하며 때로는 힘들고 기진맥진할 때, 저는 고대와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함으로써 버텨 낼 수 있었습니다. 경전에 담긴 선지자의 말씀과 이 연단에서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위안과 사랑과, 힘과 격려를 줍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sup>18</sup>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임된 종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며 짓밟고 그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모두 성약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sup>19</sup>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진정한 의도로 성스러운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성신은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진리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고 깨달으며, 우리의 시야를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20</sup>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신권을 회복한 선지자임을 간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몬슨 회장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찰 때까지 선지자들을 지지하며 그들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2:7; 또한 교회 지침서 제2권, 2.1.1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분은 지상의 하나님 왕국과 관련된 모든 열쇠를 그분의 사도들에게 각각 부여해 오셨다. 살아 있는 선임 사도인 교회 회장이 지상에서 모든 신권 열쇠를 행사하도록 권세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2. J. Reuben Clark Jr., “When Are the Writings and Sermons of Church Leaders Entitled to the Claim of Scripture?”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직원에게 전한 말씀, 브리검 영 대학교, 1954년 7월 7일)
3. 교리와 성약 21:4~6; 강조체 추가.
4. J. Reuben Clark Jr., “When Are the Writings and Sermons of Church Leaders Entitled to the Claim of Scripture?”
5. 교리와 성약 68:4.
6. 교리와 성약 1:38.
7. 에베소서 2:20.
8. 에베소서 4:14.
9. 에베소서 4:12~13.
10. 열왕기상 17:10.
11. 열왕기상 17:11~13; 강조체 추가.
12. 열왕기상 17:14.
13. 이사야 55:9.
14. 잠언 3:5.
15. 열왕기상 17:15~16.
16. Roger Hoffman, “Consider the Lilies” (1991).
17. Bruce R. McConkie,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Deseret Book Company, 1985), 478; 구두점을 맞춤법에 맞게 수정함; 허락을 받아 사용함.
18. 힐라맨서 5:12.
19. 제3나피어 20:23 참조.
20. 모사이야서 2:9 참조.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영생—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이시며, 뚜렷이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들로서, 그분들의 목적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십니다.

**오**래전에 저는 각 경륜의 시대 선지자들의 마지막 간증을 연구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힘찬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또한 오랜 세월이 걸쳐 남겨진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읽을 때면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느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들을 알기 위해, 또한 그분들이 서로에 대해 지니신 사랑을 알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sup>1</sup>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sup>2</sup>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오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이미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숙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작은 별레부터 우뚝 솟은 나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의 아름다운 장관을 바라보며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 그대로 그분의 영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 알게 해” 주며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믿게 해 주나니, 이는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충실하면 그들도 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sup>3</sup> 제 견해로는, 이 성구가 어떤 사람들은 영원토록 타인의 간증에 의존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교사,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읽는 경전, 특히 성신의 가르침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해 배워 가면서 제 간증은 성장했습니다. 신앙을 행사하고 계명에 순종하자 성신은 제가 배우는 것들이 참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쇠는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니파이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라. ……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sup>4</sup>

여덟 살 생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침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확인을 받을 때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이시며, 뚜렷이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들로서, 그분들의 목적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함은 [그분들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sup>5</sup> 저는 거듭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지를 주시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수많은 성구 중 몇 가지를 나눌 테니 잘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전세에 대해 가르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sup>6</sup>로 칭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로 말미암아”<sup>7</sup>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sup>8</sup>을 낳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sup>9</sup>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구주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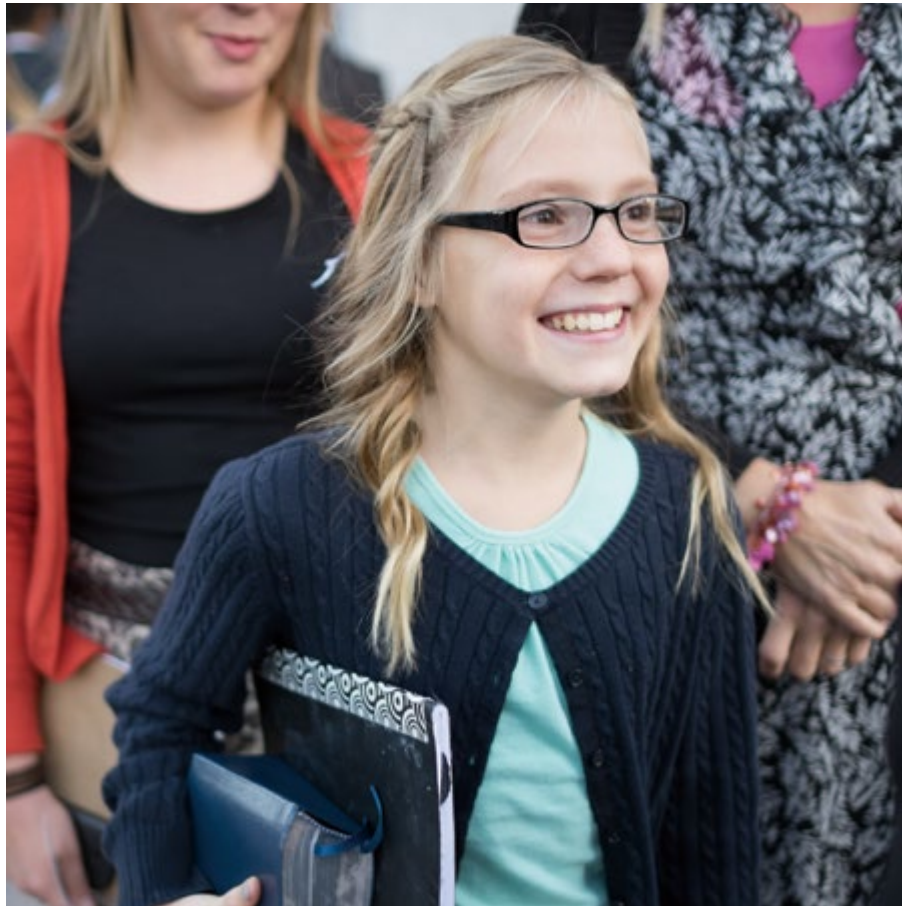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sup>11</sup>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sup>12</sup>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베푸시는 기적과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sup>13</sup>

속죄의 시각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이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sup>14</sup> 잠시 후, 우리 죄의 무게가 그분에게 지워졌을 때, 주님은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sup>15</sup>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후,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sup>16</sup>

그 후, 주님은 영의 세계에서 죽은 자들의 영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권능을 주사,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아와서,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sup>17</sup>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 올라간다”<sup>18</sup>

주님이 미대륙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께서 몸소 구주를 소개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sup>19</sup> 성전에서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가신 구주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 나는 ……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sup>20</sup> 주님은 교리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리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리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노라]”<sup>21</sup>

“진실로 ……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sup>22</sup>

이러한 성구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뚜렷이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증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이실까요? 그것은 두 분이 동일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두 분이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시고자]”<sup>23</sup> 똑같이 현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뚜렷이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임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며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 신앙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오니 ……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사, 나로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옵소서.”<sup>24</sup>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복음의 회복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의 영화로운 존재가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sup>25</sup>

자신이 가입해야 할 교회를 알고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숲 속에 갔던 어린 선지자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증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셉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랬듯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세상에 회복할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전과 이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이 예수[와]”<sup>26</sup>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증거, 즉 개인적인 계시를 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자 영의 인격체인, 우리가 성신이라 칭하는 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포함하여,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확실히] 알게 되리라.”<sup>27</sup>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선지자 힐라맨의 말씀이 티끌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sup>28</sup> 참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확실한 기초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반석”<sup>29</sup>이십니다. 그분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운다면, 이 마지막 시기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sup>30</sup>

저는 그러한 집이 바로 “영광의 집”<sup>31</sup>임을 간증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신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 곧 해의 왕국의 영광의 약속”<sup>32</sup>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 계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계시다는 제 특별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성령은 가서 그 지식을 구하는 각 사람에게 이것이 참됨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14:7.
2. 요한복음 17:3.
3. 교리와 성약 46:13~14.
4. 니파이후서 32:3.
5. 요한1서 4:19.
6. 모세서 4:2.
7. 모세서 2:1.
8. 누가복음 1:32.
9. 누가복음 2:49.
10. 마태복음 3:17.
11. 마태복음 6:9~10.
12. 요한복음 3:16.
13. 요한복음 5:19; 또한 17절 참조.
14. 요한복음 17:1, 4.
15. 마태복음 26:39.
16. 누가복음 23:34, 46.
17. 교리와 성약 138:51.
18. 요한복음 20:17.
19. 제3니파이 11:7.
20. 제3니파이 11:10~11.
21. 제3니파이 11:32.
22. 제3니파이 11:27.
23. 모세서 1:39.
24. 제3니파이 19:29.
25. 조셉 스미스—역사 1:17.
26. 이더서 12:41.
27. 모로나이서 10:4~5.
28. 힐라맨서 5:12.
29. 모세서 7:53.
30. 제3니파이 14:24~25 참조.
31. 교리와 성약 88:119; 109:8, 16.
32. 교리와 성약 88:4.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  
칠십인

# 성찬과 속죄

성찬 의식을 위해 우리 각자는 더욱더 성스러워야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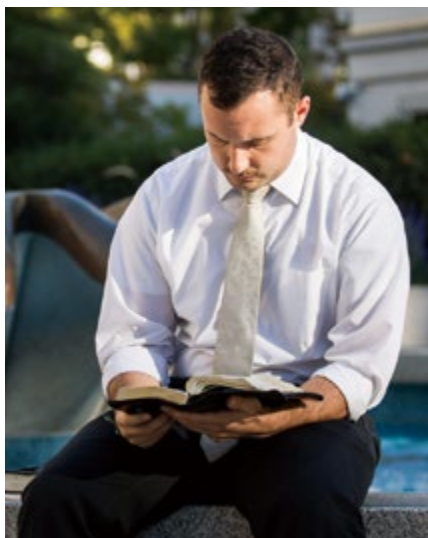
**겻** 세마네와 갈보리의 날이 이르기 전날 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제자의 집 다락방이었으며,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희생물로 바쳐진 양과 포도주, 무교병 등 유월절 전통 음식이 놓였습니다. 이 음식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속박과 사망<sup>2</sup>으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더불어 미래에 실현될 구속을 상징합니다.<sup>3</sup> 만찬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sup>4</sup>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sup>5</sup>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sup>6</sup>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포도주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sup>7</sup>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 흘리는 …… 피[니라]”<sup>8</sup>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sup>9</sup>

이 단순하고도 심오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언젠가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 희생을 바라면서 동물의 피를 흘리거나 동물의 살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sup>10</sup> 그 대신,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피의 상징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의 구속 희생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sup>11</sup> 이 새로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약속된 그리스도로서 엄숙히 받아들이며 기꺼이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임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뜻을 나타내고 또한 그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사망은 지나가고 영생이 보장됩니다.

예수님은 겻세마네 동산에 가신 후에 갈보리로 끌려가셨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아리마대의 모지를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신 후,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던 충실한 제자들은 그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었고]”<sup>12</sup> 그리고 그들은 이를



“[꾸준히]”<sup>13</sup> 행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을 떠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구속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대륙의 제자들을 방문하시어 제자들 가운데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sup>14</sup> 그렇게 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sup>15</sup>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sup>16</sup>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성찬 의식을 제정하시며 초기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과 유사한 지침을 주셨습니다.<sup>17</sup>

성찬 의식은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sup>18</sup>으로 불려 왔습니다. 우리 각자는 성찬 의식을 더욱더 성스럽고 거룩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이 의식을 제정하시어 당신이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떼어 낸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한다는 것을,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그 몸을,<sup>19</sup>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흐를 만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sup>20</sup> 살이 찢겨 나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심장이 멎은 그 몸을 기억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sup>21</sup> 또한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나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생명을 얻으시어 다시는 질병과 부패와 죽음을 겪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sup>22</sup> 빵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멸의 육신처럼 우리의 육신도 죽음의 속박에서 풀려나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일어나서 영원한 영에게로 회복될 것임을 인정합니다.<sup>23</sup>

작은 잔에 든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분이 전 인류를

위해 겪으신 영적 고통을 기억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구주의 피를 흘리게 한 고난을 기억합니다.<sup>24</sup> 구주께서 자신을 체포한 자들로부터 참아 내신 고통과 수난을 기억합니다.<sup>25</sup> 갈보리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sup>26</sup> 그분이 자신의 고통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sup>27</sup> 성찬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주께서 흘리신 피와 겪으신 고통을 인식하며, 우리가 주님의 복음 원리와 의식을 받아들이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빵과 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빵을 먼저 취한 다음에 물을 마시는 이 성찬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빵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되새깁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와 영의 회복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sup>28</sup> 그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삶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그 질문은, 우리가 죽은 후에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지만, 모두가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멸의 삶 동안 우리는 모두 죄와 범법을 저질러 더러워지게 됩니다.<sup>29</sup> 정결하지 못한 생각과 언행을 한 채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sup>30</sup> 즉,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이 ……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sup>31</sup> 엘마 이세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천사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부정함으로 크나큰 괴로움을 느끼고 번뇌하고 고통을 당했으며 “하나님의 면전에 이끌려 나가 서지 않도록 ……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기만을]”<sup>32</sup> 바랐습니다.

성찬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죄와 범법으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범법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여 침례로 시작하는 구원의 모든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고 성신을 받는다면,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신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 나의 피로 그 옷을 빨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sup>33</sup>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sup>34</sup>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 나갈 때,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깨끗하게 됩니다.<sup>35</sup>

성찬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겠다는 결의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청원하면서, 그분의 소중한 아들을 “항상 …… 기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꺼이” 기억하겠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죄에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겠다고 엄숙하게 다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의] …… 계명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회개하겠다는 엄숙한 결심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언행이 합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결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 아들의 이름을 받들 것을”<sup>36</sup> 선언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사업을 하겠다는 엄숙한 다짐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의식과 성약을 받겠다는 것이 포함됩니다.<sup>37</sup>

이 원리들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때, 우리는 성찬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의 영광 함께하도록”<sup>38</sup>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영을 다시 받는다는 것만큼 위대한 축복은 없는데, 왜냐하면 영은 죄와 범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현세와 영원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주님은 속죄를 이루셨으며, 또한 속죄로 주어진 축복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에 정기적으로 열심히 참여할 때, 우리는 침례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계속 살 수 있으며, 그리하여 성결하게 되는 과정을 추구하고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성찬 의식은 우리가 충실하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sup>40</sup>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모두를 사망과 죄로부터 구속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성찬을 포함해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 수”<sup>41</sup>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그분의 신권 의식의 권능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다음 주, 아니 계속해서 더 깊은 소망과 더 간절한 목적 의식으로 매주 성찬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26:17~20; 마가복음 14:12~17; 누가복음 22:7~18 참조.
2.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28:16~25; Bible Dictionary, “Feasts” 참조.
3. 출애굽기 13:12~13; 모사이야서 2:3~4; 모세서 5:5~8.
4. 마태복음 26:26; 마가복음 14:22; 누가복음 22:19; 고린도전서 11:24 참조.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니파이인들 사이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들은 빵을 떼어 낸 후 축복하셨다. (제3니파이 18:3 참조)
5. 마태복음 26:26; 마가복음 14:22; 고린도전서 11:24.
6. 누가복음 22:19; 또한 고린도전서 11:24 참조.
7. 누가복음 22:20; 또한 마태복음 26:28; 마가복음 14:24; 고린도전서 11:25 참조.
8. 마태복음 26:28.
9. 누가복음 22:19; 또한 제3니파이 18:11 참조.
10. 니파이후서 11:4; 25:24~25; 야곱서 4:5; 엘마서 34:14; 제3니파이 9:17, 19~20; 모세서 5:5~8 참조.
11. 요한복음 6:51~57; 고린도전서 11:24~26; 교리와 성약 20:40 참조.

12. 사도행전 20:7.
13. 사도행전 2:42.
14. 제3니파이 9:19~20; 18:1~11; 20:3~9; 26:13.
15. 제3니파이 18:6.
16. 제3니파이 18:7.
17. 교리와 성약 20:75; 27:2; 59:9~12 참조.
1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2013), 96쪽. “저는 성찬식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중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95쪽)
19. 엘마서 7:11 참조.
20. 누가복음 22:44; 모사이야서 3:7;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21. 시편 22:16; 요한복음 19:33~34; 20:25~27; 제3니파이 11:14; 교리와 성약 6:37;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1916), 668쪽 참조.
22. 마태복음 28:6; 누가복음 24:6, 39; 요한복음 20:20; 교리와 성약 76:22~24 참조.
23. 요한복음 6:51~59; 엘마서 11:42~44; 40:23; 제3니파이 27:13~15 참조.
24. 누가복음 22:44; 모사이야서 3:7;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25. 이사야 53:5; 마태복음 26:67; 27:26, 29~30; 마가복음 14:65; 15:15, 19; 누가복음 22:63~65; 요한복음 19:1; 모사이야서 15:5 참조.
26. 마태복음 27:35; 마가복음 15:15; 누가복음 23:33; 요한복음 19:16, 33~34 참조.
27. 교리와 성약 19:15.
28. 엘마서 11:42~45; 제3니파이 27:13~15 참조.
29. 모세서 6:55 참조.
30. 마태복음 5:27~28; 12:36; 야고보서 3:1~13; 모사이야서 4:29~30; 엘마서 12:14 참조.
31. 모세서 6:57; 또한 고린도전서 6:9; 에베소서 5:5; 니파이전서 10:21; 15:33~34; 엘마서 7:21; 11:37; 40:26; 제3니파이 27:19; 교리와 성약 1:31~32 참조.
32. 엘마서 36:15; 또한 14절; 요한계시록 6:15~17; 엘마서 12:14 참조.
33. 제3니파이 27:19~20.
34. 니파이후서 31:2~21; 제3니파이 11:31~41; 27:13~22; 교리와 성약 76:40~42, 50~54, 69~70 참조.
35. 제3니파이 27:19; 또한 요한계시록 1:5~6; 7:14~15; 엘마서 5:21; 13:11~12; 이터서 13:10~11; 모세서 6:59~60 참조.
36. 교리와 성약 20:77; 모로나이어서 4:3.
37. Dallin H. Oaks, *His Holy Name* (1998); Dallin H. Oaks, “Taking upon Us the Name of Jesus Christ,” *Ensign*, May 1985, 80~83 참조.
38. 교리와 성약 20:77, 79; 모로나이어서 4:3; 5:2.
39. 로마서 15:16; 고린도전서 6:11; 니파이후서 31:17; 엘마서 5:54; 13:12; 제3니파이 27:20; 모로나이어서 6:4.
40. 교리와 성약 93:6~20 참조.
41. 교리와 성약 84:2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네 발이 행할 길을 헤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하게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서니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저를 위해 여러분의 신앙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영의 세계를 떠나 종종 어려움에 직면할 이 필멸의 삶이라는 무대로 들어섬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상에 거하는 주된 목적은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얻고, 하늘 부모에게서 떨어져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며,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sup>1</sup>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은사인 선택의지를 지니고 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방법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교사와도 같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인생의 고락을 알게 되며, 결정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승영을 얻겠다는 크나큰 소망을 안고 그분을 떠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분은 아무런 방향과 지침도 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영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분 아들의 말씀이 나오는 거룩한 경전이 있기에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는 권고와 가르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 모범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sup>2</sup>.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sup>3</sup> 그분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라고 물으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sup>4</sup>라고 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sup>5</sup>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하게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따르며 끝까지 견디지 아니할진대 구원받을 수 없도다.”<sup>6</sup>

성지를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걸으신 곳을 저도 걸었어요!” 하고 외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생활하고 가르침을 주시던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예수께서 한때 올라서셨던 바위 위에 서 봤거나 예수께서 한때 응시하셨던 산맥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경험 자체가 감격스러웠을 테지만, 예수께서 걸으셨던 곳을 실제로 걷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행위를 본받고 모범을 따르는 일이 그분이 필멸의 삶 동안 걸으신 길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한 부자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sup>7</sup>고 하신 것은 단지 시골 지역의 언덕과 계곡을 오르내리며 뒤를 따라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가기 위해 갈리리 해변이나 유대 언덕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그분의 가르침이 삶의 지침이 되고 필멸의 삶이라는 여정 동안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그 길을 환하게 비춥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sup>8</sup>.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살펴보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분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실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 번 낙심하셨으나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예루살렘에서의 성역을 마치시며 한탄하셨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날개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폐허로 버려질 그 성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분은 괴로움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sup>9</sup>.

예수님은 유혹의 길도 걸으셨습니다. 사악한 루시퍼는 안간힘을 다해 가장 호소력 있는 궤변으로 사십 일 밤낮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sup>10</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힘쓰고 애[쓰실 때] ……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sup>11</sup> 어느 누구도 주님이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실망의 길을 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를 잃거나 능력을 오용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선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의 길도 경험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29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악마가 사람의 자녀들을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없나니”<sup>12</sup>.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통의 길도 걸을 것입니다. 종인 우리는 주인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신 그분은 큰 아픔과 고통만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쓰라린 슬픔도 있지만, 커다란 행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이 남겨 준 유산을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sup>13</sup>.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사로잡혀 사망에 이르겠지만, 순종하면 자유와 영생을 보상으로 얻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도 봉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역을 베푸신 예수님의 생애는 길을 환히 밝혀 주는 선량함의 등댓불과도 같습니다. 그분은 걷지 못하는 이의 다리에 힘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에 시력을, 듣지 못하는 이의 귀에 청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주기도문이라는 아름다운 기도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겻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다음 기도도 빠트릴 수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sup>14</sup>

구주께서 주신 더 많은 가르침은 우리의 손끝으로 펼쳐 볼 수 있는 거룩한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자비롭고, 겸손하고, 의롭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용감하게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빛을



말하여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생각과 행위에서 도덕적으로 청결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며,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sup>15</sup>

주님은 권능과 권세가 담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것을 가르치시며,<sup>16</sup>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치십니다.<sup>17</sup>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는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가르치십니다.<sup>18</sup>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할 때,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얻은 영생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며,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일을

행하겠다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선택도 그분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르려고 진정으로 노력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볼 때, 저는 구스타프와 마가리트 바커 부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두 분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 태생인 그 부부는 캐나다 동부로 이주해 살았는데, 제가 거기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커 형제님은 이발사였습니다. 궁핍한 생활이었지만 그 부부는 가진 것을 모두 다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자녀를 얻는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돌봐 주었습니다. 학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글을 모르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 단 한 시간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면,

그것을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외모가 평범했고, 영어는 서투라서 알아듣기 쉽지 않았으며, 집도 소박했습니다. 자동차도 텔레비전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주로 관심 쏟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그 집에 깃든 영을 느끼고자 그들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었고, 그들에게는 지극히 평화롭고 선한 영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을 지닐 수 있으며, 구주의 길을 걷고 그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를 때 그런 영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네 발이 행할 길은 [헤아리라]”<sup>19</sup>는 권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신앙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걷고자 하는 소망도 생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모범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바탕이 되고, 그분의 말씀은 견고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은 우리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제가 사랑하고 섬기며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3:25.
2. 누가복음 18:22.
3. 제3니파이 27:21.
4. 제3니파이 27:27.
5. 일라이자 알 스노우,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6. 니파이후서 31:16.
7. 누가복음 18:22.
8. 요한복음 14:6.
9. 누가복음 13:34.
10. 마태복음 4:10.
11. 누가복음 22:44.
12. 교리와 성약 29:39.
13. 사무엘상 15:22.
14. 누가복음 22:42.
15. 마태복음 5장; 6장 참조.
16. 누가복음 10:30~37 참조.
17. 마태복음 25:14~30 참조.
18. 누가복음 15:4~7 참조.
19. 잠언 4:26.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배 안에 머물고 배를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춘다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는 아들과 함께 유타 남동부의 캐터랙트 캐니언을 지나 콜로라도 강을 타고 내려가는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 협곡은 장장 23킬로미터에 달하는 물거품 가득한 급류로 유명한데,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두 사람은 모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 웹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여기저기 도사리는 위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행 초반, 경험 많은 강 안내인이 급류를 따라 내려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 줄 세 가지 규칙을 강조하며 중요한 안전 지침을 다시 한 번 안내했습니다. “첫째, 배 안에 머문다! 둘째,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셋째, 항상 두 손으로 배를 꼭 붙든다!” 그런 다음 “무엇보다도 배 안에 머물라는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모험에서 저는 우리의 지상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인생의 잔잔한 물결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캐터랙트 캐니언을 관통하는 23킬로미터짜리 급류에

비교될 만한 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산산조각이 난 꿈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문제와 의문, 의심에 직면할 때 오는 신앙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강을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배를 포함하여 구명조끼와 같은 필수품, 안내와 안전 지침을 주는 경험 많은 안내자 등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 규칙인 “배 안에 머문다!”를 생각해 봅시다.

브리검 영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시온의 정든 배”라는 표현으로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바다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 옵니다. 선원들이 말한 대로 배는 몹시 고전을 합니다. 한 탑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안 있을 테야. 이 배는 “시온의 배”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다의 한복판에 있는걸.’ ‘상관 없어. 여기 안 있을 테야.’ 그는 이같이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빠져 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는 '시온의 정든 배'입니다. 우리들은 이 배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합시다."<sup>1</sup>

또 다른 말씀에서 영 회장님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인생이 순탄한데도 길을 잃는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날씨에 시온의 정든 배가 순풍을 타고 항해하고 갑판 위가 다 고요할 때, 몇몇 형제들이 수영을 ..... 하려 작은 배를 내려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더러는 빠져 죽고 더러는 휩쓸려 가고, 더러는 다시 배로 돌아옵니다. 이 정든 배를 떠나지 마시다. 그러면 이 배는 우리를 항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sup>2</sup>

끝으로, 영 회장님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정든 배에 있습니다. ....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시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 모든 계 순조롭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므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분이 지시하고,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자신이 맺은 성약과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sup>3</sup>

우리는 오늘날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온의 정든 배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충실함을 키워서 생애 내내 지속적인 개종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물었습니다. "또 이제 보라, 나의 형제[자매]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sup>4</sup>

오늘날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영감 어린 현지 신권 지도자와 보조 조직 지도자는 경험 많은 안내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선교부의 눈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정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법이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선교사들에게 시선을 우리에게 두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일을 감리하는 열쇠를 지닌 신권 지도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더 교회 관리 방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성역을 베풀어 오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길을 잃고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대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말씀이 ..... 그 당시를 위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자주 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sup>5</sup>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시온의 정든 배를 떠납니다. 떨어져 나가고 배도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단기적으로는 자주, 장기적으로는 영원토록 안겨 줍니다.

능숙한 강 안내인처럼 우리 교회의 현지 지도자들은 인생의 경험으로 단련되었고 사도와 선지자 및 교회의 다른 역원들로부터 훈련과 지도를 받아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방송에서 저는 교회의 청년 성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풍부한 경험을 해 왔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살았으며 배경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일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때문에 말 그대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전 세계의 정계, 종교계, 사업계 및 인도주의 인사들과 만납니다. 우리는 워싱턴 디시의 백악관[에 있는 지도자들]과 세계 유수의 국가 [및 종교] 지도자들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가족과 사람들]도 찾아[갑니다]. ....

우리의 삶과 성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은 극히 경험하기 힘든 것이라는 데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더 많이 알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적이거나 통합된 지혜에는 위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총관리 직원들은 공법과 공공 정책들이 낳은 결과, 실망, 비극, 자기 가족의 죽음을 포함하여 그런 일을 두루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sup>6</sup>

제가 적용했던 첫째 규칙과 더불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한다’는 둘째 규칙과 ‘두 손으로 배를 꼭 붙든다’는 세 번째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경전 및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권고와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명조끼처럼 작용하여 어떻게 하면 두 손으로 꼭 붙들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던]” 모사이아의 아들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할]”<sup>7</sup> 때에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경전과 더불어 과거와 현재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탐구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공부하고 실천하며 사랑하는 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을 읽는 습관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모사이아의 아들들처럼 “많은 기도와 금식”<sup>8</sup> 힘써야 합니다.

쉽게 측정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단순한 것에 계속 집중하고,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저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배 안에 머물지도 않고, 두 손으로 배를 꼭 붙들지도 않은 사람들, 또한 상대적으로 평온한 시기에도 배 안에 머물지 않았던 사람들을 아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중 상당수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애초에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유였고, 또한 결의에 차서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헌신적으로 성별된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열심이었던 이유였으며, 교회가 그들의 삶에 “영적 양식과 성장의 장소”<sup>9</sup>가 되었던 통로였는데도 말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중추적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sup>10</sup>

우리가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춘다면,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sup>11</sup>

충실한 후기 성도와 진지한 구도자들도 기본 원리가 아니라 “부속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복음의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에서 멀어지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덜 중요한 관행이나 가르침에 초점을 두거나 몰두하여 성찬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느낀 의문과 의구심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문을 느끼고 의심하는 것은 헌신적인 제자의 특성과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따금 교회 회원들이 교회 교리, 역사 또는 관습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그러한 질문들을 묻고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간절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sup>12</sup>

조셉 스미스도 질문이 있었으며, 바로 그 질문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탐구자였으며,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란,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구주의 속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온유하며, 용서하고, 인내하고, 헌신적인 제자가 되는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르쳤듯이 기꺼이 “짐을 서로 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sup>13</sup>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에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몸과 영이 가난한 사람, 탐구자, 곤란을 겪는 사람, 또한 일정한 시기 동안 봉사하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주님을 따르는 회원들 등 모든 사람들을 돕고,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배 안에 머물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두 손으로 배를 꼭 붙잡으십시오. 초점을 흐트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만일 여러분 중 하나라도 배 밖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찾아서 보살피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계시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이 시온의 정든 배로 다시 안전하게 데려올 것입니다.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83쪽.
2. Brigham Young, "Discourse," *Deseret News*, Jan. 27, 1858, 373.
3.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Nov. 18, 1857, 291.
4. 엘마서 5:26.
5. M. Russell Ballard, "Mission Leadership"(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 June 25, 2014), 8.
6. 엠 러셀 벨라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4년 5월 4일); lds.org/broadcasts.
7. 엘마서 17:2.
8. 엘마서 17:3.
9.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서한, 2014년 6월 28일.
10. Joseph Smith, *Elders' Journal*, July 1838, 44.
11. 니파이후서 31:20.
12.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서한, 2014년 6월 28일.
13. 갈라디아서 6:2.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삶에서 마주치는 온갖 부정적인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던 아담과 이브에게는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려움이나 도전,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겪은 적이 없었기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혼란을 겪은 적이 없기에 평안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더는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되는 것의 원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병마와 마주하게 되었고,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시련을 겪고 시험받기 위해 우리가 지상으로 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sup>1</sup> 우리는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책임지는 능력인 선택의지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타락으로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슬픔 모두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겪기 때문에 평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sup>2</sup>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완벽한 행복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당신 아들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겪을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오래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심적 고통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혹, 고통, 슬픔과 관련된 우리의 싸움을 우리 각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시험받고, 시련을 겪고, 발전하기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sup>3</sup> 대적의 사악함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필멸의 삶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sup>4</sup> 삶에서 마주치는 온갖 부정적인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행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이고도 신앙으로 충만한 속죄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고 구주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도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 도구가 기본적인 습관이 될 때, 우리는 필멸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도구 중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각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그런 후 주님의 인도를 구하여 각 도구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첫 번째 도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주 대화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과 나누십시오. 걱정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존중하시기에 절대로 기도를 강요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일상 생활 면면을 그분과 나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생동감 넘치는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은 고난 중에도 영원한 빛에 중심을 둘 것이며, 어려움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헤쳐 나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하여 자녀들을 무장시키십시오. 자녀들은 매일 공격을 퍼붓는 욕망과 탐욕, 교만, 기타 다수의 죄악에 노출됩니다. 가족 기도에서



오는 강력한 축복으로 자녀들을 강화하여 매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가족 기도를 일상 생활에서 우선시하는 일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 경전 공부

두 번째 도구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대부분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듣고 느끼는 방법을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경전을 공부하며 상고해야 합니다.<sup>5</sup> 이 일은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영의 속삭임을 감지하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행하기를 바란다면, 함께 경전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경전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미혹하는 사탄의 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경전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이 잠이나 공부, 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을 내기 위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언적인 많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sup>6</sup>

이 약속에 제 간증을 덧붙이려 합니다. 매일 시간을 들여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 평화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및 가족과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은사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퍼져 나와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평화를 쌓아가는 데 매우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있었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나 행복과 기쁨, 평안도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sup>7</sup> 어려움은 필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경전 공부를 통해 여러분은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유혹에 대항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신앙을 키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가정의 밤

가정을 강화하고 평화를 쌓으려 노력할 때, 이 세 번째 도구, 즉 매주 하는 가정의 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밤을 바쁜 일상에 추가되는 활동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월요일 밤에는 가족이 함께 집에 있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업무나 운동 경기, 과외 활동, 숙제, 그 외 어떤 것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정의 밤 형식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 하나하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게 하십시오. 가정의 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간증을 나누며, 가르치고 계획하며 조직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가족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는 경전 공부와 기도, 그리고 매주 하는 가정의 밤의 축복에 대해 간증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으며, 우리 삶은 인도받고, 가정은 더 보호될 것입니다.”<sup>8</sup> 리브즈 자매님은 매우 현명한 여성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습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성전 참여

네 번째 도구는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평화로운 장소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성전 추천서가 없다면 그것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십시오. 추천서가 있다면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sup>9</sup> 정기적으로 성전에 갈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성전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전에서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 그 의식문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며 그에 대해 기도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성전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가족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할 때 더 많은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여러분의 생활에 확실하게 불러오는 기본적인 습관들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평강의 왕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필멸의 삶에서 느끼는 평안은 그분의 속죄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가정의 밤을 하고,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때, 우리는 “[내게로] 오라”는 그분의 초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키울수록 사탄은 더 심하게 우리를 해치려 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려 하는 그의 능력은 감소될 것입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속죄 희생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한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멕시코 쿠아우테목





겪으며 성장하기 위해 필멸의 삶으로  
왔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좀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되게 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 줍니다.<sup>10</sup>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갈 때 모든 유혹과 심적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5:11 참조
2. 모세서 4~5장 참조.
3. 아브라함서 3:25 참조.
4. 니파이후서 2:11.
5. 교리와 성약 18:36 참조; 또한 34~35절 참조.
6. 다음과 같은 예들이 포함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경전을 읽고 상고할 때, 영이 우리 영혼에 전하는 감미로운 속삭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 축복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얻게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을 내어 경전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삶에 무한한 축복이 임하고, 우리를 얽매는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우리는 결코 혼자자 아닙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2쪽)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주 없이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물론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더욱 충만한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현명한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곁에 불러 모으고, 함께 경전을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가며,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와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한다면, 가족이 모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흔히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기본적인 종교 문학을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경전 읽기”,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95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자주 스테이크 내에서의 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참석률을 늘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왕국의 성장에 중요하고도 크게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전 연구에 몰입한다면, 이러한 기타 모든 활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간증이 증가되고 헌신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은 강화되고 개인적인 계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말씀의 힘”,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9쪽)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게 될 때, 그리고 신성한 귀가 듣지 않고 있고 신성한 음성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제가 하나님에게서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자신을 경전에 몰입시킬 때, 그 거리가 좁아지고 영성이 돌아옵니다. 저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제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때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킴볼[2006], 66쪽)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물론경을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정과 그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건의 정신이 커지며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다투는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고에 더 잘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의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신앙, 소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박애가 우리 가정과 생활에 풍성하게 되어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게 됩니다.”(“물문경”, *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97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참된 교리와 이해력은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복음 교리에 대한 연구는 행위에 대한 연구가 행위를 개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빨리 행위를 개선시킬 것입니다.”(“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9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매일의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은 우리 영혼이라는 그림에 겨우 한 획을 찍는 북자국입니다. 대단히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랑, 금색, 갈색 물감 자국이 서로를 보완하며 인상적인 걸작을 만들어 내듯,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을 하는 우리의 한결같은 중대한 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9쪽)

7. 니파이후서 2:13 참조
8. 린다 에스 리브즈, “외설물로부터의 보호 —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가정”,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7쪽.
9.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모든 후기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회원의 위대한 상징으로 바라보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길 마음속 깊이 소망합니다. 모든 성인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인이나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입니다.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이 됩시다. 성전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을 방문하십시오. 성전 사건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집의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하도록 하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8쪽)
10. 니파이후서 2:2 참조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칠십인

# 주님께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약속된 축복들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연** 차 대회 연사들이 모국어로 말씀할 기회를 받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이 연단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영어 억양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르투갈어 속도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자막보다 더 빨리 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직업과 저 직업 중 뭘 택해야 할까? 선교사로 봉사해야 할까?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해야 할 사람인가?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미래에 중요한 결과를 낳을 이런 상황들은 삶의 여러 영역에 존재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수년 동안, 그리고 수많은 집전에서, 저는 개인과 결혼, 가족 안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한 마디로 ‘몇 도의 오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몇 도의 차이”,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58쪽)

어떻게 하면 그런 작은 오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보겠습니다.

1980년대 말에 저는 아내 모니카와 저희 네 자녀 중 두 아이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마친 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와드의 감독 직책에서 해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인생은 멋졌고, 모든 것이 제대로 풀려 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나갈 즈음에 그 친구는 제 확신을 흔드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는 먼저 “카를로스, 가족, 직장, 교회 봉사 등등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군. 그런데 말이야.” 하고 말하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면, 자네 축복문에 약속된 축복들이 성취될 것 같은가?”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축복사의 축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읽기는 했지만,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고대하는 마음을 품은 적도, 현재 제가 사는 방식을 평가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후, 저는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면, 약속된 축복들이 성취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제 축복문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얼마간 깊이 고민한 후에 특히 교육과 직업 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 관한 결정이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에 관한 다양한 선택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그저 좋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것도 있습니다.”(“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5쪽)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한다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 원리 1: 우리는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선택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폭넓은 시각으로 결과를 가늠해 보지 않고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면,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미래에 미칠 결과들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이생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더 넓은 시야가 생길 것입니다.

더 넓은 시야가 있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진다는 예는 경전에도 나옵니다.

모세는 주님과 대면해 대화했으며,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웠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전능한 주 하나님이요 …….

그리하면 나는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네게 보여 주려니와 …….

그리고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모세서 1:3~4, 6).

이러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세는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견뎌 냈으며,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경의 위대한 선지자 리하이네 꿈을

꾸었고, 시현을 통해 가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참으로 꿈에 나의 부친에게 명하여,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도록 명령하셨느니라.

……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그의 금과 그의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버려두[었더라]”(니파이전서 2:2, 4).

여행 중에 겪게 될 어려움과 예루살렘의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하이는 이 시현에 충실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훌륭한 예입니다. 첫번째 시현을 시작으로 많은 계시를 통해 그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조셉스미스-역사 1:1~26 참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해력을 얻기 위해 천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전과 성전, 살아 있는 선지자, 축복사의 축복문, 영감받은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을 인도하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리 2: 우리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가장 쉬운 길인 경우는 드뭅니다. 정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선지자들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옳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리하이, 조셉 스미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결정에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친숙한 지금의 환경과 사람들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축복문과 관련한 경험으로 돌아가서, 당시 저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을 더 받고 장학금을 신청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2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미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토플(TOEFL: 미국 대학 입학자격 영어 평가-웁긴이)과 지맷(GMAT: 경영대학원 입학 시험-웁긴이) 같은 시험이 제가 넘어야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많은 거절과 몇 번의 불확실한 대답도 들으면서, 대학 입학 허가를 받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막바지에 장학금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올해 최종 후보 3인에 뽑혔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단 한 명에게만 입학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쁜 소식은 다른 후보자 한 명이 유력 인사의 자제이고, 다른 한 명도 역시 그렇고, 그다음에 당신이라는 거지요.”

저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걸요.”

다행히도, 세상의 가문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으며, 저는 1992년 그 해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나이를 먹고, 죽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며 잠재력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지식을 구하여 여러분에게 내재된 거룩한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하도록 하십시오.”(“상호부조회라는 강한 힘”, *리아호나*, 1998년 1월호, 95쪽)

### 원리 3: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리하이는 레이맨과 레무엘에게 그들이 일으키는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려고 적지 않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친의 시현에 공감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여행 동안 불평을 해 댔습니다. 반면, 니파이는 부친이 본 것을 보고자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부친이 시현에서 보신 것들과 그가

성신의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들었으니, …… 나[는] …… 하나님의 은사인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10:17)

니파이는 이 시현을 통해 여행 중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때 가족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몇몇은 선택의 결과를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들도 우리가 본 것을 보고 우리와 같은 확신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정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로 들었던 저의 경험에서도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 아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 의견이 그리 많지 않았으나 아내의 도움은 지극히 중요했습니다. 제 기억에, 우선 아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결심이 설 때까지 조심스럽게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아내는 변화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이 계획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생과 관련하여, 주님께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도 아십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있는지 이따금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면, 약속된 축복들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일상의 목표를 성취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앨런 에프 패커 장로  
칠십인

# 책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은 개인적인 예배의 정기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보** 이 스카우트 단원이었던 열두 살 때, 저는 몹시도 원하던 스카우트 활동 장비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 두꺼운 가죽 뒷개가 있는 손도끼였습니다! 그 뒤에 떠난 야영에서 우리 일행은 눈이 많이 내린 습하고 추운 산길을 걸어 날이 저문 후에야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커다란 모닥불을 피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손도끼를 들고서 쓰러져 있는 나무를 패러 갔습니다. 나무를 패다 보니, 생각보다 도끼가 잘 들지 않은 것 같아 불만스러웠습니다. 불만 속에서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겨우 나무 몇 조각만을 가지고 야영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운 모닥불의 불빛을 통해 저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도끼의 뒷개를 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 뒷개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것들에 주의를 빼앗겼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승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필수 요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두 가지 요건이나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에 지나치게 집중하며 주의를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됩니다.<sup>1</sup>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에 크게 바로잡는 것보다는 작게 자주 바로잡는 것이

덜 고통스럽고 지장을 덜 줍니다.

얼마 전에 패커 자매와 저는 여러 국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권과 기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예방 접종 및 건강 진단과 비자를 받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서류 검사를 받고, 모든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자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승영할 자격을 얻는 것은 마치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각자 자신의 영적인 여권을 얻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모든 필수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만 합니다.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승영할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교리, 법, 계명, 의식을 포함합니다.<sup>2</sup> 그러한 것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 구원받[는] 것입니다.”<sup>3</sup>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승영할 자격을 얻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노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열다섯 명을 불러 교회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sup>4</sup> 과 십이사도 정원회<sup>5</sup>는 똑같은 권능과 권세가 있으며, 선임 사도가 교회 회장으로 지명됩니다.<sup>6</sup> 칠십인은 보조하는 부름을 받습니다.<sup>7</sup> 승영의 필수 요건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도자들은 우리가 길에 머물도록 가르치고, 해설하고, 권면하며, 경고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sup>8</sup>

교회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과 가족이 승영할 자격을 얻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성하게 제정된 책임에 역점을 둔다. 이러한 책임에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고, 선교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집합시키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자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포함된다.”<sup>9</sup> 이 네 가지 책임과 기타 모든 법과 계명, 의식은 필수 요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리고 이런 항목을 각각 행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여권에 도장을 찍어 나갑니다.

이 대회 동안 우리는 더 잘 준비되는데 도움이 될 변화들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마도 구원의 계획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sup>10</sup>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더불어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sup>11</sup>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우리의 성공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나 주로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느냐에 좌우[된다.]”<sup>12</sup>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회 활동이라기보다는 가족 활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다시금 강조해 왔습니다.<sup>13</sup> 여러분이 이 강조 사항을 따르면 여러분 각자와 가족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서, 또 후기 성도로서 의롭게 헌물을 주께 바치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책을 바치자.”<sup>14</sup>

이 “책”은 교회의 패밀리 트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과 의식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을 확인하고 추가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책 안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와 성약 128편에는 “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sup>15</sup>라고 나옵니다.

가족 역사는 단지 계보나 특정

규칙이나 이름, 날짜, 장소 등의 정보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집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족 역사는 우리가 자신의 역사를 창조해 가는 현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통해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 갈 우리의 미래도 포함합니다. 한 예로, 어느 젊은 어머니는 가족 이야기와 사진들을 자녀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취하고, 모임에 참석하며, 경전을 읽고,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은 개인적인 예배의 정기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과 그밖의 다른 사람들이 이 예언적인 권유에 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모든 회원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우리는 [이제] 교리와 성전,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sup>16</sup>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으며, 이 일이 제한받는 것은 오직 이것을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에는 여전히 시간과 희생이 요구되지만,

수년 전에 비해 비교적 쉽게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돕기 위해 교회는 기록을 수집하고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가정이나 와드 건물 및 성전에서 이 사업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역사를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주저하는 개개인입니다. 필요한 것은 결심과 약간의 수고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약간의 시간을 내면, 이 사업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고, 배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성전으로 가지고 간 이름들은 그 “책”<sup>17</sup>에 기록될 것입니다.

회원 참여가 놀랍게 증가했음에도, 비교적 소수의 교회 회원들만이 정기적으로 가족을 위해 이름을 찾고 성전 의식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sup>18</sup>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에 맞서 다투지 말고, 받아들이고 따르십시오! 변화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교회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와 우리 자신을 위해 완수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적인 여권에 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를 거슬러 가족들을 “결합”<sup>19</sup>시키는 일은 오직 성전 인봉 의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또한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부모와 지도자들은 지금 이

세상의 상태와 가족 및 청소년에게 끼치는 세상의 영향력에 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엘리야의 영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 대적이 미치는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성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청소년 시기뿐 아니라 평생토록 보호될 것입니다.”<sup>20</sup>

형제 자매 여러분, 방해가 되는 도끼의 덮개를 벗기고 일을 하러 갈 때입니다. 덜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와 가족들의 승영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회원과 비회원들이 함께 이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는 영문 찬송가 323장의 가사에서 한 단어만 바꾸어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오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덜 가치 있는 일 포기하고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만왕의 왕 섬기세!*<sup>21</sup>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2:22~25; 9:18; 모사이야서 2:41 참조.
2. 경전 안내서, “구속의 계획” 참조; scriptures.lds.org.

3. 신앙개조 제 3조
4. 교리와 성약 107:22 참조.
5. 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6. 교리와 성약 107:24 참조.
7. 교리와 성약 107:25~26 참조.
8. 경전 안내서, “제일 회화단”, “사도”, “칠십인”; scriptures.lds.org 참조.
9.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2.
10. 엘머서 42:8.
11. 보이드 케이 페커, “증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5쪽.
12. 스펜서 더블유 김볼,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58쪽.
13. 토마스 에스 몬슨,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리아호나, 2014년 6월호, 4~5쪽; 헨리 비 아이어링, “마음을 돌이킴에 관한 축복”, 리아호나, 2014년 7월호, 4~5쪽; Russell M. Nelson, “It All Starts with Love” (video),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it-all-starts-with-love; Russell M. Nelson, “Adding ‘Family’ to Family History Work”,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adding-family-to-family-history-work; 러셀 엠 넬슨, “사망으로 연결된 세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1~94쪽; 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3~95쪽; 쿠엔틴 엘 쿡, “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4~48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4~27쪽; Neil L. Andersen, “A Classroom of Faith, Hope, and Charity” (Church Educational System religious educators에게 전한 말씀), lds.org/broadcasts; Neil L. Andersen, “Find Our Cousins!” (RootsTech family history conference에서 전한 말씀, Feb. 8, 2014), 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find-our-cousins 참조.
14. 교리와 성약 128:24.
15. 교리와 성약 128:18.
16. 쿠엔틴 엘 쿡,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7쪽.
17. 교리와 성약 128:24.
18. 쿠엔틴 엘 쿡,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7쪽 참조.
19. 교리와 성약 128:18.
20.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6, 27쪽.
21. “Rise Up, O Men of God,” Hymns, no. 324.





우고 이 마르티네스 장로  
칠십인

## 우리의 개인적인 성역

타인의 필요 사항을 인식하고 도와줄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개인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 이래로 계속해서 저는 여러 방면으로 봉사했습니다.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님의 부친이신 우디네 팔라벨라 형제님은 “봉사하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고,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하는 동안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구주께서 개인과 가족에게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각 개인을 향한 구주의 사랑과 온화한 배려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각자가 지닌 크나큰 가치를 알아보신다는 사실을 배웠고, 또한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살핌을 받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

그리고 ……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sup>1</sup>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크나큰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sup>2</sup>

타인의 필요 사항을 인식하고 도와줄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줍니다. 필요 사항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성역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라”<sup>3</sup>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신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 원리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이십니다. 2005년 1월에 몬슨 회장님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신권 지도자 대회를 감리하셨는데, 그때 그분은 구주와 그분의 종들이 어떻게 개인적인 성역을 통해 봉사를 베푸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훌륭한 모임을 마치면서 회장님은 그곳에 참석하신 모든 신권 지도자와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혼자 멀리 떨어져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형제님을 발견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무리를 떠나 그에게 다가갈 말을 거셨습니다. 호세 알 제야스 형제님은 감격에 겨워 자신이 몬슨 회장님을 뵈는 것은 기적이며, 이것으로 아내 올란다와 함께 모임 전에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야스 형제님은 자기 딸이 무척 아프며 아내가 몬슨 회장님에게 쓴 편지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야스







형제님은 아내에게 몬슨 회장님은 너무 바쁘셔서 만나 볼 수가 없을 거라고 말했던 티였습시다. 몬슨 회장님은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편지를 달라고 하셔서 조용히 읽으셨습시다. 그런 다음, 편지를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고서 제야스 형제님에게 부탁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종을 통해 이 가족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sup>4</sup>

1998년 9월 21일, 태풍 조지스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습시다. 저와 마르티네스 자매와 다섯 자녀는 그 엄청난 폭풍우와 허리케인 급의 강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 안에만 있어야 했습시다. 하지만 수도와 전기가 끊긴 채 2주를 보내야 했습시다.

식수가 떨어졌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시다. 저는 우리에게 귀중한 물을 주신 형제님들과 사랑을 가득 담아 도와주신 자매님들의 보살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습시다.

게르만 콜론 형제님이 트럭에 커다란 플라스틱 물통을 싣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시다. 형제님은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형제님 댁에 물이 필요할 것 같았다”며 물을 가져오셨습시다. 며칠

뒤에는 노엘 무노즈 형제님과 에르미니오 고메즈 형제님이 트럭에 커다란 물탱크 3개를 싣고 오셨습시다. 예고 없이 찾아온 그 형제님들은 집에 있는 모든 물통에 식수를 채워 주었고, 저희 이웃들에게도 와서 물을 채워 가라고 했습시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개인적인 성역으로 응답되었습시다. 그 세 형제님의 얼굴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었고, 그들의 봉사,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개인적인 성역은 저희의 삶에 식수보다 더한 것을 가져다주었습시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딸은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습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습시다. 그분들은 이 생애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배치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때, 우리는 그분들이 계시로 알려 주시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시다.

이런 방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손을 뻗으실 것입습시다. 선한 목자는 그분의 모든 양을 모으실 것입습시다. 목자께서는 그분 종의 목소리를 듣고 보살핌을 받은 후 도덕적

선택의지를 잘 행사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으실 것입습시다. 그러면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서 그분을 따라갈 것입습시다. 우리의 침례 성약을 지키는 데에서 이런 개인적인 성역은 필수불가결한 것입습시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개 방법입습시다.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의 목장의 양들과 우리 안의 어린 양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아 그분의 종”<sup>5</sup>이 되며, “연약[하고] 단순한”<sup>6</sup> “사람을 낚는 어부”<sup>7</sup>가 됩습시다.

우리의 봉사와 개인적인 성역은 이 지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시다. 우리는 죽은 자, 즉 영의 세계에 있으며 지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습시다. 또한 일지를 쓰고 가족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현재 살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조상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시다. 이는 우리 가족이 세대를 넘어 영원한 유대로 연결되는 것입습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온 산”의 “구원[자]”<sup>8</sup>가 될 것입습시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특별한 기회가 있습시다. 우리는 배우자와 가족, 친구, 주위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베푸는 개인적인 성역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sup>9</sup>.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8:10, 15; 강조제 추가.
2. 경전 안에서 참조, “영혼”, scriptures.lds.org.
3. 린다 케이 버튼, “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 78쪽.
4. 누가복음 10:37.
5. 알렉산더 비 모리스, “그리스도의 양떼를 양육함”,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13쪽.
6. 교리와 성약 1:23.
7. 마태복음 4:19.
8. 오바다 1:21.
9. 마태복음 25:32~40.



래리 에스 캐처 장로  
칠십인

# 성스러운 것들을 소홀히 다루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름진 토양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하고 자문하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생에서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영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약 5년 전에 이 원리가 중대하다는 것을 큰 대가를 치르며 배웠습니다.

당시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오만 남부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도양 연안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의 열여섯 살짜리 딸 벨리는 자기가 모래톱이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헤엄쳐 가도 되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파도가 거칠었기에 저는 위험한 조류가 걱정되어 딸에게 제가 먼저 가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짧게 헤엄을 쳐 간 후에 저는 제가 모래톱 부근에 도달했는지 보라며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곳을 지나쳤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안류<sup>1</sup>에 휩싸여 바다 쪽으로 순식간에 밀려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돌려 바닷가로 수영해 가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저를 바다 쪽으로 더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제 결정을 믿고 저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 저는 제가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제 결정 때문에 아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엄청난 노력과 하늘의 도움 덕분에 저희는 어떻게든 모랫바닥에 발을 디딜 수 있었으며, 안전하게 걸어서 친구들과 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지상 생활에는 많은 조류가 있는데, 안전한 조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조류도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벌 회장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대양의 보이지 않는 해류와 아주 흡사한,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sup>2</sup> 그러한 힘은 실재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 인생에 큰 축복이 된 또 다른 조류, 즉 신성한 조류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의 개종자입니다. 개종하기 전에 저는 스키에 대한 야심이 있었고,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꿈을 이루려고 유럽으로 이주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꿈 같은 생활을 보낸 후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 느낌의 근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느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국 유태 프로보에서 저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몇몇 좋은 친구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프로보에 있으면서 저와는 아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감정에 저항했으나 과거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평온과 위안을 곧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조류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는 조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72년에 친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따르기로 한 이 새로운 조류는 제 삶에 방향과 의미를 제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제게 질문을 던지고 괴로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몇몇 질문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서 대답을 얻어야 하는가? 제가 택한 길이 그릇된 것이라고 확신시키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안류”가 행복의 훌륭한 근원이 되어 준 평화로운 조류로부터 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원리와,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 제 선택의지를 저버리지 않고 저 스스로 행하는 것<sup>3</sup>의 중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큰 위안을 주는 것에서 돌아서야 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sup>4</sup>라는 말씀을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굳게 다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경전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질문들이 불러오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저는 그것들이 제 인생에 자리한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리라 믿으며, 그 질문들을 잊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에게 하신 다음 말씀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보라, 너희는 어린아이라 지금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나니, 너희는 은혜로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야만 하느니라.”<sup>5</sup> “이안류”가 될 수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의혹의 조류에 휩쓸려 제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엔 엘돈 태너 회장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 얼마나 현명하며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sup>6</sup>라고 가르치신 말씀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순수한 탐구를 시도할 필요도 없다는 뜻일까요? 성스러운 숲에서 피난처를 구하면서 모든 교회 가운데 어느 곳에 가입해야 할지 알고 싶어 했던 어린 소년에게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교리와 성약을 펴 들고서 이 영감받은 기록에 계시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겸손히 진리를 탐구한 결과로 왔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조셉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 그리하면 주시리라”<sup>7</sup>라는 구절을 찾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묻고 하늘의 응답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sup>8</sup> 배우며 지식과 지혜를 키웁니다.

핵심은 “순수하고도 진지한 탐구를 하면 안 되는가?”가 아니라 “의문이 솟구칠 때 어떤 진리에 의지해야 할까? “몇몇 의문이 들더라도 나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 만큼 지혜로울 수 있을까?”입니다. 저는 신성한 근원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한 분이 존재하심을 간증드립니다. 만물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sup>9</sup> 경전은 그분께서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며 …… 말한 것을 변경하지도



아니[하신다]"<sup>10</sup>고 증거합니다.

이 필멸의 여정에서 하는 우리의 선택이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최근에 한 젊은 남성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한 영을 지니고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중심에 두는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부친이 모친에게 충실하지 못해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모든 자녀가 교회에 의문을 품고 떨어져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젊은 아버지는 부친이 한 선택에 영향을 받아 귀중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 밖에서 양육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남성은 한때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으나 특정 교리에 의문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도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구하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세속적인 근원에 의존했습니다. 사람의 명예로 보이는 것을 구하면서 마음이 그릇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교만으로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하늘의 권능에서는 잘려 나갔습니다.<sup>11</sup> 진리를 찾기는커녕 간증을 잃었고, 그의 많은 가족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남성은 보이지 않는 이안류에 휩싸이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까지 거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 장인 장모님이신 라루 밀러와 루이스 밀러는 세상적인 재산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고 매일의 삶을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열매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안겨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가정에서 신권이 존중받고, 사랑과 조화가 흘러 넘치며, 복음 원리가 삶을 인도하는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함께 나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조류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을 순수히 따랐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우리가 …… 의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흐르는 해류를 만든다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은 고난, 실망, [그리고] 유혹 등의 역풍도 이겨 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sup>12</sup>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까? 그 선택의 영향은 우리에게만 국한됩니까? 회복된 복음이라는 영원한 조류 속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경로를 잡고 있습니까?

때때로 저는 두려웠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 9월의 어느 날, 인도양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제가 제 딸 벨리에게 “그래, 가서 모래톱까지

수영해 보렴.” 하고 말했거나, 벨리가 저를 따라 수영하다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인 행동의 결과로 딸 아이가 이안류에 휩싸여 바다로 멀리 나가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자책하면서 살아가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따르겠다고 선택하는 조류들은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범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 주는 신성한 은사인 성신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영감과 계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성한 은사를 잘 활용하시도록 당부하며,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진 토양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하고 자문하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마련되어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크든 작든 조정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그렇게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주님과 맺은 성약이 성스럽고 거룩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것을 절대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sup>13</sup> 우리 모두 계속 충실히 남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이안류: “바다에서 다른 조류와 부딪쳐서 격량을 만드는 조류.”
2. 스펜서 더블유 김볼, “해류와 가정의 영향력,” *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3~5쪽 참조.
3. 니파이후서 2:11, 16 참조.
4. 교리와 성약 6:23.
5. 교리와 성약 50:40.
6. N. Eldon Tanner, Conference Report, Oct. 1968, 49.
7. 야고보서 1:5.
8. 교리와 성약 98:12.
9. 모세서 1:6 참조.
10. 교리와 성약 3:2.
11. 교리와 성약 121:35~37 참조.
12. 스펜서 더블유 김볼, *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3쪽.
13. 교리와 성약 6:12 참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후기 성도들은 왜 그렇게도 열심히 자기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 교회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는 걸까?”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제가 말씀을 잘 전달하고 여러분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신성한 임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들은 언제나 충실한 선교사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선교사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이 구속주이심을 증언하고 그분의 복음이 참됨을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구주의 교회에 속한 회원 개개인인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신성한 의무가 성취되도록 돕는 엄숙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약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후기 성도는 모든 나라의 모든 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라는 이 책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고대에 구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후기에 그분의 손길로 다시 지상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는 교리, 원리, 신권 권세, 의식, 그분의 복음 성약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참석하거나 전임 선교사들에게서 배워 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물건을 팔아야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회원은 영적인 시험에서 상을 받거나 추가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회원 숫자만 늘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들어 보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참된지 스스로 알 수 있게 공부하고 숙고하며 기도하고 알아볼 것을 권유합니다.

“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혹은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교적 전통이나 인생 경험을 폄하하려고 이런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참되고 선하며 칭찬할 만한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 메시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여러분이 이미 참되다 믿는 바를 더 폭넓게 하고 더 풍부하게 하는지 한 번 와서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엄숙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150개국에서 88,000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가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젊은이들과 부부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의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라는 신성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교리와 성약 68:1 참조)

## 영적인 의무를 넘어서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우리의 열의가 단순히 영적인 의무감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은 오히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합니다. 오래 전 저희 부부와 두 아들이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지가 잘



설명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와 저는 창가에 서서 두 어린 아들이 바깥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던 중에 작은 사고가 생겨 작은아이가 조금 다쳤습니다.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을 바로 확인한 저희는 즉시 달려가는 대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형제애에 대해 가족과 토론했던 것을 두 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고도 교훈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큰 아이가 동생을 다독이더니 조심스럽게 작은아이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주방 가까이로 다가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면서 혹시 더 다치거나 사고가 커지면 즉각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주방 개수대로 의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의자로 올라가더니 동생도 위로 끌어올린 뒤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세제를 가득 짜서 상처 난 동생의 팔에 문질렀습니다. 형은 동생 팔에 묻은 흙을 살살 씻어 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룩한 경전에 나오는 다음의 말보다 작은아이의 반응을 정확히

설명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며, 울며, 애곡하며, 이를 갈 이유가 있을 것이라”(모사이사서 16:2) 작은아이는 정말로 통곡을 했습니다!

형은 다 씻은 동생의 팔을 수건으로 잘 닦아 주었습니다. 마침내 비명이 그쳤습니다. 그런 다음, 큰아이는 조리대로 기어 올라가 찬장을 열고 새 연고를 찾아냈습니다. 찰과상이 크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닌데 큰아이는 상처가 난 동생의 팔 전체에다 연고 한 통을 거의 다 짜 내어 발라 주었습니다. 비명 소리는 다시 나지 않았습니다. 주방 세제의 세정 효과보다 연고의 진정 효과가 더 좋았나 봅니다.

형은 다시 연고를 찾았던 찬장으로 가서 새 멸균 붕대 한 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벗기더니 동생의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위아래로 붕대를 칭칭 감았습니다. 응급 상황이 종료되고 세제 거품과 연고와 붕대가 사방에 널린 가운데 두 아이는 행복하게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친 아이가 남은 붕대와 거의 다 쓴 연고를

챙기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 친구들을 찾아서 친구들 팔에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작은아이가 진심과 열의로 주저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지체 없이 자신이 아파서 받은 도움을 나누려 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행동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자극하거나 등을 떠밀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소망은 아이가 직접 도움을 받고 유익을 경험한 데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대개 성인도 오래 앓던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이나 약을 찾아내면, 또는 용감하게 시련에 대처하고 참을성 있게 혼란을 이겨 내게 해 준 조언을 들으면, 이와 다르지 않게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나 도움이 됐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행동 양식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일에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예컨대, 물몬경으로 알려진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고대 선지자이자



지도자였던 리하이라는 사람이 꿈의 꿈을 조명합니다. 리하이의 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이며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니파이전서 11:22~23; 니파이전서 8:12, 15 참조)

리하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 보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워 내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움을 알았느니라. 또한 나는 그 열매가 희되, 내가 이제까지 본 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더 희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는지라, 나는 나의 가족들도 역시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나니”(니파이전서 8:11~12; 강조체 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멸의 성역과 속죄 희생, 부활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구주의 속죄에서 비롯한 축복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고 큰 기쁨을 느끼자마자, 가족에게 그 열매를 먹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리하이의 소망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향한 후에 리하이는 사랑과 봉사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마음을 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화가 물론경에

있습니다. 이노스라는 사람의 진심 어린 애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네가 복이 있으리니라 하시더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 그런즉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나의 형제 니파이인들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 온 영혼을 쏟아내었느니라.”(이노스서 1:4~9; 강조체 추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니파이후서 31:13) 주님께 향했을 때, 동시에 가족, 친구, 지인의 복리에 대한 이노스의 염려도 커졌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적 행위를 뛰어넘어 진심 어린 봉사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오는 축복을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불변의 교훈을 배웁니다. 리하이와 이노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제 어린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도 영적인 의식과 죄로 고통에 시달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구주의 복음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충실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생활함으로써 평화와 양심의 화평, 영적인  
치유와 새로워짐,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데 필요한 세정제이자 영적인  
상처를 아물게 하고 죄를 없애는 진정  
연고이며,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계속 충실할  
수 있게 하는 보호책입니다.

### 실재하는 절대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아닌 가족과 친구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가 선교사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갈수록 절대성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 무릎을 꿇고] ……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빌립보서  
2:10~11)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영원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의 교회가 후기에 충만하게  
회복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배우고 시험해 보라는  
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툴고 돌발적이며 집요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영혼의 온 힘을 다해 그분이 기록하시며  
실재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 “와서 보기”(요한복음 1:39)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 ■

#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들었던 진리를 숙고하고 그 진리를 통해 훨씬 더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감  
어린 메시지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이들을 보냈습니다. 이 대회에  
임한 영을 함께 느끼면서 마음이 감화되고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임 중에 들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음이 고양되고 감동을  
받았으며, 모임마다 드린 기도도 하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되신 형제님들께  
전 교회가 보내는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앞으로  
올 여러 세대 또한 그 사실을 느낄 것입니다.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회원들뿐  
아니라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린다 케이 버트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대할 때 존경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매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밅시다. 우리는 서로 보살핌으로써 축복을 받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댁에만 계셔야 하는 분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간을 내어 찾아 보면 그분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sup>1</sup> 우리가 이 지시를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옳은 일을 하려 힘쓰는 가운데 정직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이자 의로움의 모범이 되어 “세상의 빛”<sup>2</sup>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분과 여러분에게 봉사하려 할 때 저는 강화되고 고양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며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멀리서 집을 떠나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들었던 진리를 숙고하고 그 진리를 통해 이 대회 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분의 거룩한 이름, 곧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1:5.  
2. 빌립보서 2:15.

## 일찍이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합당하게 구원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그에 따른 성약을 진심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제** 막내딸이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어땠니?” 하고 묻자 그 아이는 “좋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라고 깨우자 딸아이는 팔짱을 끼고서 단호하게 “이미 갔다 왔잖아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아이에게 학교에 가는 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5일, 그것도 앞으로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지도, 그 아이를 준비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비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서, 다 함께 이런 장면을 한 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해의 왕국실에 앉아 있는데, 현재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올릴 여러 쌍의 신랑 신부가 안내에 따라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한 신부가 약혼자의 손을 잡고 해의 왕국실에 들어섭니다. 간소하지만 아름다운 성전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따스한 웃음이

스며 있습니다. 차림새는 단정했으며, 산란하지 않았습니니다.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자신이 있는 장소와 자신을 기다리는 성스러운 의식에 대한 경외감과 경의, 그리고 자신과 결혼할 남자를 향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듯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그녀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귀여운 십 대 손녀가 제 베개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성전에 갈 때 가장 놀랐던 것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영이었어요. 사람들은 영감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갈 수 있어요.”<sup>1</sup> 손녀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영감과 계시, 그리고 살아 가면서 적들에게 맞설 힘을 받게 됩니다. 손녀는 계속 가족의 이름으로 대리 침례와 확인을



받으며 성전에서 배움으로써, 자신과 회장 저편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성전 의식, 성약,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리셀 엠 벨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이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듯이,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sup>2</sup>

몰몬경에 있는 모로나이 장군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모로나이가 성취한 아주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니파이인들이 무시무시한 레이맨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심하게 준비시킨 것이라는 사실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백성들을 훌륭하게 준비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레이맨인들]로서는 지극히 놀라움게도, 니파이인들은 일찍이 ……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sup>3</sup>

“일찍이 ……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이 부분에 특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성스러운 성전 축복을 위해 어떻게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또, …… 내가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을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경전상의

규범에 대해 숙고해 봅시다. 적을 대비할 때, 모로나이는 꾸준하고, 충실한 근면성을 보였는데, 이 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주께서 말씀하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아름다운 비유는 아무리 들어도 싫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성전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전 축복은 잘 준비된 자들에게는 영적인 잔치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sup>5</sup>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처녀들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다른 다섯 처녀들에게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게 기름을 그냥 나눠 쓸 수 없니?”라고 물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구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섯 처녀를 “슬기 있다” 하였고 다른 다섯은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성전 준비를 위한 규범으로 생각할 때 “영적인 준비라는 기름은 나눌 수 없습니다.”<sup>6</sup>라고 가르친 후기 성도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다섯 명의 “슬기 있는”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나눌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할 때 여러 해를 걸쳐 한 방울씩 조금씩 기름병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금식, 가족 기도, 가정의 밤, 육체적 육구의 통제, 복음의 전파, 경전 공부 등은 헌신과 순종의 행동을 상징하며, 우리의 창고에 저장하는 기름 방울과 같습니다. 친절함, 헌물과 십일조를 바치는 것, 순결한 생각과 행동은 한밤중에 다 타버린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붓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sup>7</sup>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씩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규범이 보이십니까? 어떤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소중한 영적 기름 방울들을 준비하는 등불에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다음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합당성은 성전 축복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 합당한 품성은 주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가장 잘 형성됩니다.”<sup>8</sup> 저는 *지속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한결같고 끊임없으며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합당성의 원리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문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스러운 면에서 오직 가정만이 성전에 비견될 수 있다.”<sup>9</sup> 우리의 가정도 그 설명에 해당되니까? 최근에 와드의 한 사랑스러운 청년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오빠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막 귀환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빠가 집에 와서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오빠가 와서 정말 좋지만, 오빠가 가끔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는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나쁜 음악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신을 한 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이 영을 느끼도록 준비할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영이 환영받는 곳이 되도록 준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마치 “집”에 온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성전 성약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많은 복에 복을 더하여”<sup>10</sup> 주실 것입니다. 저의 좋은 친구인 보니 오스카슨 자매님은 최근에 경전 구절을 바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요구된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니.”<sup>11</sup>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가는데,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더 높은 표준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벨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기에],

성전에 들어가는 기준은 주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님으로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귀중한 특권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표시입니다.”<sup>12</sup>

세계 정상급 선수나 세계 일류 대학의 박사 과정 학생들은 여러 시간,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준비합니다. 그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하는 준비가 그들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종과 관련하여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할 것이 요구되며, 그것은 매일 조금씩 순종의 덕성을 연습할 때 오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등잔에 꾸준히, 부지런히 붓는 이 작고 단순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고,



우리의 등잔을 “손질하여 타게”<sup>13</sup>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인 제 남편은 최근에 누가 준비되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지 언제나 느낌이 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으려고 올 때 “그 방을 환하게 밝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에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올 모든 백성이 당신의 권능을 느끼고 ……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 모든 요긴한 것을 얻을 준비가 되게 하시[옵소서]”<sup>14</sup>

성전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일회성 행사 이상의 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합당하게 구원 의식을 받기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그에 따른 성약을 진심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인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권능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이디어 케일리 멜로가 린다 케이 버튼에게 보낸 쪽지, 2014년 8월 31일.
2. 러셀 엠 벨슨,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41쪽.
3. 알마서 49:8; 또한 6-7절 참조.
4. 교리와 성약 52:14.
5. 마태복음 25:1-2, 4-11; 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25:12 (Matthew 25:12, footnote a)
6. Marvin J. Ashton, “A Time of Urgency,” *Ensign*, May 1974, 36.
7. Spencer W. Kimball, *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 256.
8. 리차드 지 스코트, “성전 축복을 받음”, *성도의 벗*, 1999년 7월호, 29쪽.
9. Bible Dictionary, “Temple.”
10. 교리와 성약 104:2.
11. Bonnie L. Oscarson, “Greater Expectations” (Seminar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satellite broadcast, Aug. 5, 2014); lds.org/broadcasts; 또한 누가복음 12:48; 교리와 성약 82:3 참조.
12. 러셀 엠 벨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8쪽.
13. 교리와 성약 33:17.
14. 교리와 성약 109:13, 15.



진 에이 스티븐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 하나님의 성약의 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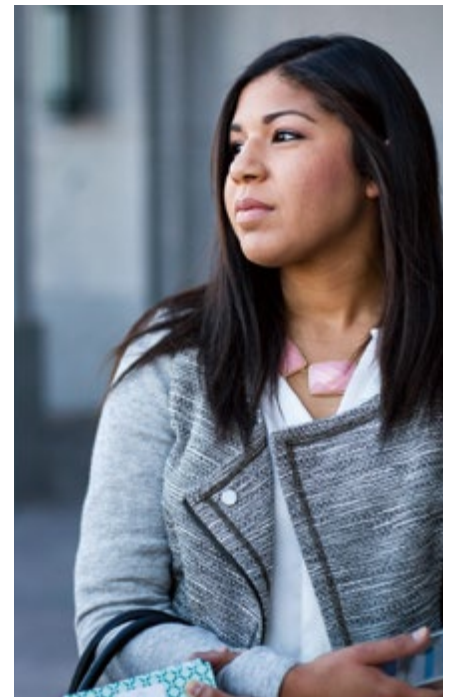
하나님의 딸들이 성전과 그들이 맺은 신성한 성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개인적이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합창단이 노래한 메시지를 간증해 주는 영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제 간증을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성약의 딸로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황, 개성이 어떻든 그것들은 우리를 갈라놓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3주 전에 한 침례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그 개인적인 성약의 권능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여덟 명의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마침내 특별한 날이 왔다는 경건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밝은 표정들을 마주해 보니, 이들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실 관점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에머와 소피아, 이언, 로건, 에이든, 윌리엄, 소피, 마이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각각 침례 성약을 맺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그

어린이들은 여덟 살 난 아이로서의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하나님과 첫 번째 성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받았던 날을 회상해 보십시오. 상세하게 기억나든, 몇 가지만 기억나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맺은 성약의 중요성을 지금 느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고 물속에 잠긴 후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자 성약을 맺은 딸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되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성약은 우리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해 주고, 그분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와 그분 왕국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느끼게 해 줍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례 성약이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길의 관문일 뿐입니다. 앞으로 있을 여정은 성전 성약을 맺는 것과 신권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침례의 물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성전을 바라봅니다.”<sup>1</sup>

성약을 맺는 것뿐 아니라 성약들을 충실히 지키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이며, 기쁨입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대로 사셨던

저의 의로운 부모님에게서 성약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다정한 어머니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성약의 딸이 매일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가를 분명하게 목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린 소녀였을 때도 어머니의 선택은 어머니의 우선순위를 반영했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나타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여정에서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셨을 때, 화평과 권능, 보호가 어머니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지상 생활은 구주를 향한 사랑과 구주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어머니의 모범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하시게 된 시작점은 다소 특이합니다. 때는 1936년이었습니다. 두 분은 진지하게 교제하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남아프리카로 가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본인이 합당하고 기꺼이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독님께 연락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과정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교제 상대인 헬렌에게 보여 주었고, 두 분은 두말할 것 없이 그 봉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지로 떠나시기 전 2주 동안, 두 분은 매일 만나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 부근의 메모리 그로브로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던 중, 금식과 기도로 인도를 구하고 계셨던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하는 클래튼에게, 원한다면 떠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남성이 아내와 가족을 집에 남겨 두고 임지로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신권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은 후, 두 분은 아버지가 선교 임지로 떠나기 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먼저 어머니가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뒤이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의 집행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사진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도, 꽃도, 결혼식을 축하하는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성전과 자신들의 성약에 집중했습니다.



### 필리핀 라스피냐스

성약이 그분들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6일만에 눈물 어린 작별인사를 한 후, 아버지는 남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의 결혼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섬기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맺은 그 신성한 성전 성약은 2년 동안의 이별을 감내할 힘과 권능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성약에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분들의 단기적인 희생과 이별을 능가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가족의 기초를 놓는 이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약을 지키겠다는 흔들림 없는 헌신 말입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의로움의 모범은 저희 가족에게 여전히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삶에서 보여 주신 모범은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가정이든 장차 꾸리게 될 가정이든, 가정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sup>2</sup>

부모님의 곤고와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환하신 지 3년만에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아버지도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해군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4년 동안 아버지는 집을 떠나 계셨습니다.

다시 헤어져 있는 그 시간은 부모님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롭고 애타며 불안정했던 나날 중에도, 영원한 약속과 고난 중에 위안과 화평을 주는 영의 속삭임이 어머니와 함께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행복과 기쁨, 사랑과 봉사가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구주에 대한 사랑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과 놀라운 소통을 하였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사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성전에 관하여 하신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sup>3</sup>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어머니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자신이 충실하게 맺고 지킨 성약을 통해 강화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곳곳은 제 어머니의 삶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과 그들이 맺은 신성한 성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개인적이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신

모범처럼, 우리가 믿고 성약을 지키겠다고 선택할 때, 그것은 후손들에게 풍성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전 성약의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축복들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삶을 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다양한 연령층의 자매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여덟 살이 된 메리를 만났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듯이 메리도 가족 역사 조사를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1,000 명의 이름을 성전 사업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메리는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자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아나는 열세 살이며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브리아나는 닐 에이 앤더슨 장로님의 성전에 관한 도전 과제를 받아들였습니다.<sup>4</sup> 브리아나는 성전 사업을 위해 수백 명의 이름을 준비했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도 대리 침례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신성한 일을 통해, 브리아나는 지상의 조상을 향해서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청년 독신인 앤피사는 일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지만, 그래도 매주 성전에 참석할 시간을 만듭니다. 앤피사는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면서 계시를



구하고 화평을 찾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랑스러운 캐티야는 성전을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 키예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캐티야와 지부 회원들은 1년에 한 번씩 3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독일에 있는 성전에 가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 헌신적인 성도들은 버스 안에서 기도했고, 경전을 공부했고, 찬송가를 불렀으며, 복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캐티야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인생 길이 성전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영생하는 데 필요한 신권 의식을 받으라고 권유하십니다. 각 성약은 개인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큰 변화는 주님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맺은 성약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갈 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고] ……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있고] ……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게”<sup>5</sup>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는 확고한 간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의 모든 소망과 약속과 축복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성약을 신뢰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8쪽.
2. 린다 케이 버튼, “사람 구함: 구원 사업을 서두를 힘과 마음을 지닌 사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23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2쪽.
4. templechallenge.lds.org 참조.
5. 교리와 성약 109:22.



넬 에프 매리엇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 여러분의 빛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하고 참된 교리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복음의 빛과 진리를 우리 삶에 더하는 것, 둘째는 그 빛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바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소중한 중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 진리를 압니다. 그 진리를 수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 살고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하고 참된 교리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2014년 9월호 *리아호나*에서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분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와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믿는 바를 이해하여 모든 것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sup>1</sup>

자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보즈와나에 이르기까지 저는 자매 여러분에게서 모범을 보고, 간증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부터 휴대전화 연락처 속의 사람들, 소셜미디어상의 친구들, 오늘 밤 옆자리에 앉은 분들까지 모두가 그 영향력을 느낍니다. 저는 “점점 더 어둠이 짙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보여 주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살아 움직이며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봉화입니다.”<sup>2</sup>라고 하신 해리엇 우흐트도르프 자매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려면 스스로 빛을 발해야”<sup>3</sup>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면에서 그 진리의 빛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때로 저는 저 자신이 희미한 백열전구 같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밝게 빛날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sup>4</sup> 경전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경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전 안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성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도시를 아름답게 해 주고 높은 언덕에서 빛을 발합니다. 성전은 왜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빛을 발할까요? 경전의 말씀대로 “진리는 빛을 발하[기]”<sup>5</sup> 때문이며, 성전에는 진리와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1877년에 조지 큐 케넌 회장은 “모든 성전은 지상에서 사탄의 힘을 약화시킨다”<sup>6</sup>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상의 어느 곳이든 성전이 지어지면 어둠을 몰아낸다고 믿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이 현납된 건물인 주님의 집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람들이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지 않을까?

성스러운 성전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게 되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성전의 영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구주의 속죄가 지닌 실제성과 권능, 희망을 배웁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은 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전에 가서 기도로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에게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약점을 분명하게 깨닫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동하며 스스로의 성취에 뿌듯해 하는 오만한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저 자신임을 깨달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하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성전의 순수한 계시의 영을 통해 저에게 구속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저의 생각은 즉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했으며, 고뇌가 눈 녹듯 사라지고 커다란 희망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고 저는 오로지 그분께 매달리기만을 갈망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에 속한 여성은 “하나님의 적”<sup>7</sup>이며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적이 됨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성전에서 배운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제 교만한 성품이 바뀔 수 있고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으며, 그분이 영으로 저를 가르치신다는 것과, 제가 그분께 전멸할 때 그분께서 저를 변화시키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제 약점과 싸우고 있지만, 저는 속죄의 신성한 도움을 신뢰합니다. 이 순수한 가르침은 제가 성전에 들어가 위안과 답을 찾았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으나 떠날 때에는 전능하시며 사랑이 충만한신 구주가



저에게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그분의 빛을 받았고 저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세워진 성전들은 겉모습과 설계 면에서 제각기 독특하지만, 모두 똑같이 그 안에 영원한 빛과 목적과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전처럼 하나님의 딸로서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며, 성전처럼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처럼 우리 내면에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빛은 구주의 빛을 받아 빛납니다. 사람들은 이 밝은 빛에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딸, 어머니, 지도자, 교사에서 자매, 부양자, 아내 등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 영향력이 큰 역할들입니다. 어떤 역할에서든 우리가 복음 진리와 성전 성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도덕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모든 상황에서 어머니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관계도 흉내 낼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칩니다.”<sup>8</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남편 데이비드와 제가 선장이고, 저희 자녀 열한 명은, 항구에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 준비하며 우리 주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작은 배들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이 작은 배들을 잘 이끌기 위해 주님의 나침반을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저의 일상은 빨래 개기, 동화책 읽어 주기, 저녁 식사 준비와 같은 소소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정이라는 항구에서 일어나는 단순하고도 계속되는 일들, 즉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런 일들에 영원한 중요성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 작은 배들이, 어린 자녀들이, 대양을 누비는 거대한 함선으로 자라고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설]”<sup>9</sup> 준비를 갖추는 때, 우리는 참으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소소한 신앙의 행위와 봉사를 통해 우리 대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마침내는 영원한 빛과 영광을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소녀의 신앙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 공원에서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저희 가족은 딸의 신앙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애타게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열 살 난 딸이 제 팔을 끌어당기며 “엄마, 기도해야 하지 않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구경꾼들 틈에서 한데 모여 아이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소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항상 알려주세요!”

이번 여름에 저는 알래스카에서 900명의 청녀들과 함께 청녀 야영에 참가했습니다. 그 청녀들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청녀들은 몰몬경을 읽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외워서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청녀 야영에 왔습니다. 셋째 날 밤, 청녀들 900명이 모두 일어서서 사도들의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했습니다.

그 거대한 강당은 영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저도 그들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청녀들처럼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간증을 반복하여 암송하면서 구주를 언제나 기억하라는 성찬 성약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소망은 올해 12월 25일까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외우고 마음에 각인하는 것으로 구주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청녀들이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다음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인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sup>10</sup>

비록 병자를 치유하며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지는 않더라도 교회의 자매로서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마음이 다치고 상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속죄의 치유하는 사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주처럼 눈 먼 자를 보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눈 먼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을 간증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영원한 성약에서 신권 권능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구주처럼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찾아 성전 의식의 축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그들을 영육에서 일으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권능과 빛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아는 진리를 소리 높여 외치며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엠 러셀 벨라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4년 9월호, 36쪽.
2. Harriet R. Uchtdorf, *The Light We Share* (Deseret Book Company, 2014), 41; 허락을 받아 사용함.
3. 토마스 에스 몬슨,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성도의 빛*, 1999년 7월호, 69쪽.
4. 교리와 성약 50:24.
5. 교리와 성약 88:7.
6. George Q. Cannon, *Preparing to Enter the Holy Temple* (booklet, 2002), 36.
7. 모사이아서서 3:19.
8.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여성의 도덕적 힘”,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30쪽.
9. 교리와 성약 4:2.
10.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성도의 빛*, 2000년 4월호, 2쪽.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다시 말해,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이자 저의 친구인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또 한 번의 연차 대회를 개막하는 이때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이 모든 총관리 역원 및 본부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모임을 하고, 전 세계적인 연차 대회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어져 열릴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세계 제일회장단을 대표하여 교회의 자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숙고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이생의 난관을 헤쳐 나가도록 저를 도와주신 여성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가족을 몰몬 성찬식에 데려가기로 결정하신 제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많은 독신 여성인 독일의 에위그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자매님의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면 “영원한 자매님”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용감하고도 훌륭하게 제 할머니를 초대해 주신 분입니다. 네 자녀를 데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의 혼란을 헤쳐 나오신 제 어머니께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제 딸들과 손녀들, 그리고 앞으로 올 후대의 충실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아내 해리엇에게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해리엇은 십대였던 저에게 마법과도 같은 황홀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어머니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아내로서 제 곁에서 있어 주며,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과 증손주들을 사랑하고 아깁니다. 아내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가정의 힘이 되었으며, 그녀를 아는 모든 이의 삶에 행복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연령에 관계 없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전 세계의 수백만에 달하는 충실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북돋우고 보살피며 축복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딸**

수많은 하나님의 딸들과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면, 노랫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근원과 목적, 운명에 대한 이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힘을 주고, 놀라운 것들을 성취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부모님의 딸이라는 자격은 여러분이 얻어 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잃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에 대한 원대한 목표가 있으시지만, 그 신성한 근원 만으로 신성한 상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이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영광스럽고 우리를 고무시킵니다. 그 가운데는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sup>2</sup>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 출생 증명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 회원 카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우리 시대에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릇 생명들의 승영과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착하여 ……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으라.”<sup>3</sup>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온 마음과 힘과 생각과 영혼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신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아주 기쁜 것만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몸에 좋기는 하지만 먹기 싫어하는 채소 반찬 앞에 앉은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계명에 접근하면, 몇몇 계명은 더 힘들거나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호감 가는 활동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억지로 따릅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존재시며, 그분의 경험과 지혜, 예지는 우리보다 더 무한하게 큼니다.<sup>4</sup>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동정심으로 가득하시며 오로지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sup>5</sup>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명은 자녀들이 승영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계명을, 어렵게 느껴지는 계명조차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둠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분께서 주신 등불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등불들은 우리의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신성한 기초를 놓는 것이며, 이 기초는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하늘의 거대한 창고 속에 가두어 놓고서 그분이 정하신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비처럼 끊임없이 내려 주십니다. 단지 우리의 두려움, 의심, 죄가 우산이 되어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산을 접어 하늘에서 내리는 끊임없는 축복을 받게 해 주는, 사랑의 가르침이며 신성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의 “생활 아이디어”나 핀터레스트(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유크인)의 동기 부여 인용구가 아닙니다. 계명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sup>6</sup> 가져다주는,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신성한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항상 변하는 이론들과 미심쩍은 동기들로 가득한 세상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과 사랑, 위대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지혜와 특정 약속들과 사랑 넘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다와 모래와 끝없는 별들의 창조주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은 행복과 화평과 영생의 비결을 알려 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신앙을 행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따르고, 굳은 결의로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sup>7</sup> 합니다.

### 순종의 이유

하나님의 참된 본성과 그분의 계명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신성한 목적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동기가 변화하고,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하려는 소망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키고, 화평을 찾으며, 사람들을 복돋우고, 영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개인적 실천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의자에 앉아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석 통계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회개를 훨씬 더 많이 염려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혼자서 어린 자녀 둘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최근에 수두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금세 아이들에게도 옮겼습니다. 혼자서 자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이 젊은 어머니에게 너무 벅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아주 깨끗했던 집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졌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저리가 가득 쟁여져 있고, 여기저기 빨랫감이 잔뜩 쌓였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달래며 자신도 울고 싶은 마음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교육 교사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이 젊은 어머니의 고충을 보았습니다. 집과

부엌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 자매님들이 매달 지명받은 방문을 끝내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그 어머니에게 과자 접시를 건네고, 지난 주 상호부조회에서 못 봐서 섭섭했다고 전하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라는 말을 한 다음, 이번 달도 방문 교육을 100퍼센트 완수한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자매의 필요 사항을 목격했고, 여러 가지 재능과 경험을 발휘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깨끗하게 정돈했으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식료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침내 일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할 때, 그 젊은 어머니는 감사와 사랑이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방문 교육에 대한 이 젊은 어머니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단지 누군가의 할 일 목록에 줄을 그어 표시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문 교사는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매달의 방문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 건설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하나님의 계명을 할 일 목록에서 줄 그어 표시할 것 따위로만 여긴다면, 제자

됨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킬 때 오는 성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반드시 쓴 경험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롭습니다.]”<sup>8</sup>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의 영을 들어올리고 마음을 밝게 해 줍니다. 신앙과 소망, 사랑으로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어둠의 시기에 우리의 영을 빛으로 채우고, 슬플 때에는 평온으로 채워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권능과 지속적인 기쁨을 줍니다.

###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합시다

복음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8세이든 108세이든, 여러분이 진실로 이해하고 아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빛과 생명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약점과 나쁜 습관을 극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며, 바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간절하게 드리는 소망의 기도를 아십니다. 점점 짙어 가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해지는 빛을 붙들고 믿었던 때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회한까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 역시 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성공들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성공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짐만으로도 힘겨운데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화장이나 옷, 머리카락이 완벽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의 팔로어 숫자에 따라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친구나 팔로어 삭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으로 걱정하거나 우울해하길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느끼는 여러분의 가치에 외모의 매력이나 인기가 한 치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되고 싶어 하는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의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 즉, 하늘 본향으로 명예롭게 돌아가는 운명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이기적인 소망과 합당하지 않은 야망을 희생과 봉사의 제단에 바치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다시 말해,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새롭게, 더 크게 경험하기를, 또한 신앙과 결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가슴으로 소중히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속 드리건대,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가장 훌륭한 모습 즉,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로움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간증과, 주님의 사도로서의 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이자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일시적인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인간은] 영으로서 하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숙하게 양육되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9], 336)
2. 교리와 성약 132:19.
3. 교리와 성약 132: 21~22, 24.
4. 이사야 55:9 참조.
5. 모세서 1:39 참조.
6. 교리와 성약 59:23.
7. 모사야서 18:9.
8. 엘마서 32:42.



브라질 소브라우

##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닐 엘 앤더슨	(28) 닐 엘 앤더슨이 조셉 스미스에 대한 귀환 선교사의 간증을 강화한다.
엠 러셀 벨라드	(89) 강 안내인이 물거품 가득한 강에서 급류 타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배 안에 머물라'고 경고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0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의 아들이 작은 상처를 치료받은 후 자신이 치료받은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친구들을 치료한다.
린다 케이 버튼	(111) 주님을 향해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선교 사업을 한 뒤 더 순수해진 영을 지니고 귀환한 어느 선교사.
태드 알 콜리스터	(32) 아들의 인생을 바꾼 벤 카슨의 어머니. 어머니에게서 복음을 배운 레바논의 한 소녀. 태드 알 콜리스터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50) 여러 집사 신권 형제들이 몬슨 회장을 존경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물문경을 공부하여 간증을 얻은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16) 사람은 모두 각자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며 병사들에게 이야기한 헨리 5세. 스스로를 보살피지 않는 한 남자가 자신이 공동묘지로 옮겨지는 데 동의한다.
쿠엔틴 엘 쿡	(46) 만화 피너츠의 루시가 떨어지는 공을 잡지 못한 변명을 늘어 놓는다.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이란 목표에 걸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한 청년. 대학 미식축구 팀 감독과 만난 뒤 아버지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쿠엔틴 엘 쿡.
딘 엠 데이비스	(53)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이후 교회와 회원들은 회원과 비회원들을 구조하려 나선다.
첼렐 에이 에스플린	(12) 성찬의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알게 된 청년 지도자. 성찬을 취하기 위해 교회에 참석하는 96세 노인.
헨리 비 아이어링	(59) 어린 헨리 비 아이어링과 그의 형이 신권 봉사를 준비하도록 도와준 어느 새로운 개종자. 헨리 비 아이어링의 아버지와 감독이 아이어링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신뢰를 보였다. 헨리 비 아이어링의 아들에게 신뢰를 보인 가정 복음 교육 선임 동반자. (70) 자신의 조연 속에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기를 기도한 헨리 비 아이어링의 어머니.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계시를 받은 미국 아이다호의 교회 지도자들. 남편이 인봉 권능을 받게 되었을 때, 남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계시로써 알았던 아내.
에두아르도 가바렛	(37) 전임 선교사 시절, 에두아르도 가바렛은 구주의 음성을 따르는 것에 관한 교훈을 배운다. 우르과이에 사는 14세 소녀의 부모와 남매들이 소녀의 모범을 따라 교회 회원이 된다. 선교사와 선교사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에두아르도 가바렛의 부모.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96)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는 축복사의 축복에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 아내의 지지 속에서 교육을 더 받게 되었다.
로버트 디 헤일즈	(80) 어린 시절 로버트 디 헤일즈는 부모와 교사들, 경전과 성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움으로써 간증을 얻었다.
제프리 알 홀런드	(40) 토마스 에스 몬슨은 자신의 신발과 여벌 정장과 셔츠를 나눠 준 뒤, 슬리퍼를 신고 독일에서 돌아온다.
래리 에스 캐처	(104) 래리 에스 캐처와 그의 아내는 이안류에 휩싸였으나 하늘의 도움 덕분에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가족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선택을 한 두 남성. 복음대로 살며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후손들을 축복한 래리 에스 캐처의 장인 장모.
외르크 클레빈가트	(34) 외르크 클레빈가트가 우크라이나 키예프 선교부 지역의 한 자매에게 자신의 약점에 감히 말라고 권고한다.
닐 에프 매리엇	(117) 닐 에프 매리엇은 자신이 구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안고서 성전을 나섰다. 어린 남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들에게 기도하라고 격려한 닐 에프 매리엇의 딸. 알렉스카의 청년 900 명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암송한다.
우고 이 마르티네스	(102) 아픈 딸을 둔 아버지에게 성역을 베푼 몬슨 회장.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마르티네스 가족에게 물을 가져온 형제들.
토마스 에스 몬슨	(67) 전함 비스마르크호는 어뢰를 맞고 키가 망가져서 계획된 항로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86) 캐나다의 교회 회원들이 평화로운 영을 느끼고자 자주 방문했던 독일인 이민자 부부.
러셀 엠 넬슨	(74)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의 수술을 집도한 러셀 엠 넬슨은 김볼 회장이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증거를 받는다.
맬린 에이치 옥스	(25) 아내의 인내와 친절 덕분에 비회원 남편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다.
앨런 에프 패커	(99) 어린 앨런 에프 패커는 나무를 때는 데만 집중하여 도끼 덮개 벗기는 일은 잊어버렸다.
보이드 케이 패커	(6) 구주께서 이미 자신의 상처에 대한 값을 치르셨음을 깨달은 한 자매.
엘 톨 페리	(43) 어머니에게 저녁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해롤드 비 리의 손자.
린 지 로빈스	(9) 린 지 로빈스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물어모 로빈스가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진 에이 스티븐스	(114) 주님과 맺은 성약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굳게 붙든 진 에이 스티븐스의 부모. 성전 성약을 준비하는 청년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56) 한 남자가 이웃의 뜰에 핀 민들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은행 강도가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바르고 자신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겉으로만 굳건한 와드에서 부부 11쌍이 이혼하게 된다. (120) 몸이 아픈 두 자녀와 싸름하는 홀어머니를 돕고자 찾아온 방문 교사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영감 어린 메시지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이틀”

“우리는 영감 어린 메시지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이틀을 보냈습니다.” 2014년 10월 5일 일요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제184차 반연차 대회를 갈음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든 상황을 건디게 할 간증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과 구주의 길을 따르고 헌신적인 제자가 되기, 선지자를 따르고 지지하기, 현명하게 선택의지 발휘하기, 그리고 가정을 사랑과 안전, 모범과 복음 교육의 장소로 가꾸기 등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토요일 모임을 시작하면서, 몬슨 회장은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우리 교회 회원 수는 1,500만 명을 넘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노력은 방해받지 않고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재 88,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복음 메시지를 나누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와

윌리엄 알 워커 장로가 해임되어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아라익 브이 미나시안 장로와 비도 센칸스 장로가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되었다.

연차 대회 사상 처음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몇몇 연사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치 흥(썸) 왕 장로는 광둥어로,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와 우고 이 마르티네스 장로는 스페인어로,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는 포르투갈어로 말씀을 전했다.

21,000석에 달하는 컨퍼런스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매워졌으며, 모임 때마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는 인파가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말씀들은 90개 언어로 번역되어 170개 국가와 지역에 위성방송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위성 중계, 휴대 기기를 포함한 인터넷으로 청취 및 시청이 가능했다. 이번 대회는 라디오 방송으로는 90주년,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65주년을 기록한 연차 대회였다. ■

## 홀루(Hulu)에서 조셉 스미스 영화를 만나보세요

**선** 지자 조셉 스미스를 기리기 위해 교회가 제작한 영화를 이제 수백만 명이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조셉 스미스: 회복의 선지자*는 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유산을 담은 영화로, 현재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홀루(Hulu)에서 무료로 상영되고 있다.

이 영화는 교회가 처음으로 홀루 같은 대형 주류 배급사를 통해 공개하는 영화이다. 약 사백만 회원을 보유한 홀루는 인터넷에 연결된 로쿠, 애플 티비, 플레이스테이션, 스마트폰 및 태블릿 피시 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홀루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교회 회원은 물론 교회 회원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 보고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다.

회원들이 영화를 보고 의견을 남기고 점수를 매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찾아볼 수 있다. ■

## 성전에 계속되는 진전

**몬**슨 회장은 201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미 발표된 성전들이 모두 건축되어 헌납되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179개가 됩니다. 이전에 발표한 성전 완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부지를 찾게 되면, 성전 건축 계획이 추가로 발표될 것입니다.”

2014년 9월에 몬슨 회장이 재헌납한 유타 옥든 성전은 전 세계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143번째 성전이 되었다.

2014년 5월,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성전을 헌납했다. 2014년 11월 16일에 애리조나 피닉스 성전이 헌납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5개의 성전이 추가로 헌납 또는 재헌납될 예정이다. ■



유타 옥든 성전은 2014년 9월 21일 재헌납되었다.

사진: 세라 제인 워버, CHURCH NEWS

## 평의회가 사용할 ‘회원들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이**제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일원들은 교회의 새로운 웹사이트인 ‘회원들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ministering.lds.org)에 접속하여 어렵고 민감한 사안을 포함해 현세적, 영적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을 도울 수 있다. 현재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부름에서 봉사하는 회원은 LDS 계정으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만 열람 가능하던 자료를 이제 평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대로 피해를 당하거나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 미혼 예비부모, 외설물 사용자, 동성애자, 경제적인 어려움 및 취업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함으로써 자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와드 평의회는 와드 경계 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가족의 유익을 논의할 때, 이 ‘회원들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는 201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말씀을 토대로 준비해야 한다. 2015년 4월에는 2014년 10월이나 2015년 4월 연차대회에서 말씀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과 지방부 회장은

자신의 지역에서 어떤 말씀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고, 혹은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를 듣는 반원들은 미리 선정된 말씀을 공부하도록 권유받는다. 대회 말씀은 conference.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 ■







## 사랑하는 사람의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중독 증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움과 희망과 치유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안내서가 새로 나왔다.

AddictionRecovery.Lds.org에 게시된 배우자 및 가족 지원 안내서는, 약물, 알코올, 외설물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 및 습관 관련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으로 둔 회원들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사이트는 영어 외에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곧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내서는 총 열두 편으로 구성되는데 치유, 커지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는 힘에 중점을 둔다.

한계와 규칙 정하기, 사랑하는 사람과 중독 및 회복 논의하기, 재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등 실질적인 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안내서는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가 제공하는 배우자 및 가족 지원 모임에서 토론을 인도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개인 학습용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접견 및 권고 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

청년 성인들이 미국 유타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 매리엇 센터에서 영적 모임 말씀을 듣고 있다.

## 1월부터 청년 성인 영적 모임 변경 사항 적용

**제**일회장단 및 교회 교육 위원회는 청년 성인 영적 모임의 빈도, 장소, 출판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1월부터는 적용된다.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칭:** 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 (연사 성명)과/와 함께하는 밤.

**빈도:** 연 3회. 1월 둘째 주 일요일, 5월 첫째 주 일요일, 9월 둘째 주 일요일.

**대상:** 기혼자와 미혼자를 망라한 모든 청년 성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과정 졸업 예정자도 참석 가능.

**장소:** 1월 영적 모임은 유타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브리검 영 대학교-하와이에서 개최. 5월 영적 모임은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 또는 교회 본부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 9월 영적 모임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개최.

**자료 게시:** 각 영적 모임 종료 후 며칠 내에 영어판 문서, 음성 및 영상본이 LDS.org와 복음 자료실 앱 및 새로운 청년 성인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 추후에 언어별로 번역본 출판 예정. 말씀을 요약한 기사가 리아호나에 요약된 말씀이 게재되고, 다수의 본문, 사진 및 하이라이트 영상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거나 추후에 교회 소셜 미디어 채널에 연사의 소셜 페이지와 함께 게시될 예정.

연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일회장단이 총관리 역원과 교회 관리 역원 중에서 선택할 것이다.

2014년 11월 2일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중에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표되며, 신권 지도자들에게는 2014년 8월 29일 위성 방송 계획표가 첨부된 제일회장단 서한을 통해 이 내용이 이미 공지되었다. ■

## 후기 성도 자선회의 지원

**회** 복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는 굳건한 의지를 지닌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 교회 회원과 비회원들은 후한 기부 활동을 통해 교회 인도주의적 봉사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축복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후기 성도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130개국 1,050만 명을 지원했다.

생명을 유지하거나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될 물품을 보급하는 일에서부터 정수 시설 완비, 수천 명에 달하는 신생아들을 살린 산파와 의사 교육, 휠체어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또한, 교회는 시력 보호 및 교정 훈련, 면역 강화, 지역 사회의 자양물 재배 보조 등에도 관여했다.

### 난민 원조

교회는 난민을 비롯하여 식량 부족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현황:

- 교회는 차드 지역의 많은 가정에 텐트 수천 동과 기본 식량 물자를 기부했으며, 부르키나 파소의 난민 대피소에는 수동 펌프 우물, 화장실 및 세면 시설을 마련해 주었다.
- 후기 성도 자선회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에 식량

보급품, 담요, 의료 물품, 위생 용구, 침구 및 겨울철 의류를 보급했다. 이라크와 쿠르디스탄 지역에는 분쟁 중 다친 사람들을 이송하는 데 쓰일 휠체어와 기타 기동 장비를 전달했다.

- 가자의 중앙 병원에 의약품과 의료용품, 분유를 기증했다.
- 이스라엘 의료 시설에 초음파 장비를 기증했다.
- 교회는 유엔 개발 계획과 제휴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소요 사태로 추방된 3만 명에게 식량과 침구, 의복, 개인 위생 용품을 공급했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교를 초월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 구호 노력

교회는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구호 활동에 나선다.

- 시에라 리온과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방지법을 교육하고 식량 및 기본 위생 용구, 의료 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현지 자원봉사자 1,600명을 모집했다.
- 파키스탄과 인도에 장마로 큰 홍수가 났을 때 식량과 위생 용구 및 의료 용품을 제공했다.
- 통가는 태풍으로 회원 가정 116가구를 포함해 수백 가구가 피해를 봤다. 이에 회원들은 피해 가옥 재건축에 힘을 보탤다. 자신들의 주거지를 건축하는 법을 배운 회원들은 적어도 네 사람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라는 권고를 받았다. 교회는 또한 농작물을 되살리고, 가정에서 텃밭을 가꾸는 법도



사진: 후기 성도 자선회의 하기를 받아 사용함

**요르단 암만 지방부 회장과 딸이 시리아 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르친다.

- 허리케인이 수천 가구를 휩쓸고 지나간 멕시코에서는 교회의 현지 지도자들이 피해 가정 회원들에게 식량과 물을 공급했으며 교회는 주 정부와 협력하여 식량 구호품을 제공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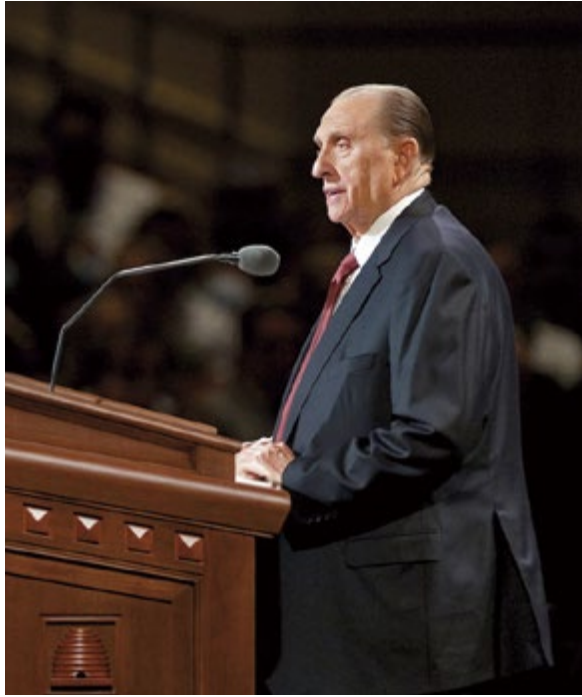
인도주의적 원조 기금에 기부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교회가 즉시 응할 수 있다. 또한 회원들은 사는 곳과 관계 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이고, 봉사를 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사는 난민과 이주민 또는 개인적인 참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며, 관심을 쏟고 마음을 여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인도주의적 조직을 통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권고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서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 손길을 뻗쳐 ..... 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8쪽) ■



### 성스러운 기도, 린다 컬리 크리스텐슨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열네 살 때 성스러운 숲에서 겪은 일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나는 ……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일천팔백이십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다.  
…… 나의 모든 염려 중에서도 내가 아직 소리 내어 기도하기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조셉 스미스—역사 1:14~15)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할 때,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얻은 영생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제184차 반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말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며,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일을 행하겠다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선택으로는 그분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